메인 기획 Main Proposal

미래의 대학과 '공익적 가치' A University of the Future and 'Value of Public Service' 대한민국 거점 국립대학교 소식지

Vol.6 (Sixth Issue) June 2019



Korea National University 10



발 간 등 록 번 호

11-7000215-000019-08

Korea NU10 MAGAZINE

CONTENTS Vol 6







인사말 Greetings

04 제주도에서 거점 국립대의 상생과 미래를 보았습니다 A Future Envisioned on Jeju Island about Mutually Coexisting K-NU10

메인 기획 Main Proposal

Regional Universities

미래의 대학, '공익적 가치'를 지향하다 A University of the Future, Aiming for the 'Value of Public Service'

- 06 지역대학 간 협력을 통한 기초보호학문 분야 강화 방안 Measures to Strengthen Basic Academic Disciplines Requiring Protection through Cooperation among
- 09 학문후속세대를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3가지 방법 Three Effective Measures to Support the Next Generation of Academia
- 12 지식공유형 모빌러티 캠퍼스 Knowledge Sharing Mobility Campus

총장칼럼 President's Column

15 지역거점 국립대의 나아갈 방향과 역할 The Roles and Aims of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 in a Region

거점 국립대 소식 Korea NU10 News

"함께하는 제전, 상생하는 거점 국립대!" "The Festival of Togetherness, Coexistence of the Korea NU10!"

- 20 '소통·연대의 장 넓힌' 2019 거점 국립대 제전 The 2019 K-NU10 Festival Expands the Space for 'Communication and Solidarity'
- 22 거점 국립대 총장협의회 2019학년도 제2차 회의 제주대에서 개최 The 2nd Meeting of the 2019 CP K-NU10 Held at Jeju National University



회원대학 소식 Member News

20

대학별 주요 소식 및 장학제도 Major News and Scholarships by University

26 제주대학교 Jeju National University

28 충남대학교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30 충북대학교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32 강원대학교 Kangwon National University

34 경북대학교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36 경상대학교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38 부산대학교 Pusan National University

40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42 전남대학교 Chonnam National University

44 전북대학교 Chonbuk National University

Korea NU10 소개 Introduction to Korea NU10

『Korea NU10 Magazine』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10개 거점 국립대학교가 발행하는 소식지입니다.

"Korea NU10 Magazine, is a newsletter issued by 10 national universities representing Korea.

Korea National University

발행일 2019년 6월 25일(통권 제6호) 발행인 거점 국립대학교 총장협의회장 제 작 굳디자인연구소 (Tel. 051-796-6600)

The date of issue 25/06/2019 (Vol.6)

Publisher The President of the Presidential Council of the Korean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

Production Good Design Institute (Tel. 051-796-6600)

Kørea NU10 MAGAZINE

CONTENTS Vol 6





04 제주도에서 거점 국립대의 상생과 미래를 보았습니다 A Future Envisioned on Jeju Island about Mutually Coexisting K-NU10

메인 기획 Main Proposal

미래의 대학, '공익적 가치'를 지향하다 A University of the Future, Aiming for the 'Value of Public Service'

- 06 지역대학 간 협력을 통한 기초보호학문 분야 강화 방안 Measures to Strengthen Basic Academic Disciplines Requiring Protection through Cooperation among Regional Universities
- 09 학문후속세대를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3가지 방법 Three Effective Measures to Support the Next Generation of Academia
- 12 지식공유형 모빌러티 캠퍼스 Knowledge Sharing Mobility Camp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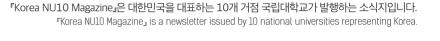
총장칼럼 President's Column

15 지역거점 국립대의 나아갈 방향과 역할 The Roles and Aims of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 in a Region

거점 국립대 소식 Korea NU10 News

"함께하는 제전, 상생하는 거점 국립대!" "The Festival of Togetherness, Coexistence of the Korea NU10!"

- 20 '소통·연대의 장 넓힌' 2019 거점 국립대 제전 The 2019 K-NU10 Festival Expands the Space for 'Communication and Solidarity'
- 22 거점 국립대 총장협의회 2019학년도 제2차 회의 제주대에서 개최 The 2nd Meeting of the 2019 CP K-NU10 Held at Jeju National University





회원대학 소식 Member News

대학별 주요 소식 및 장학제도 Major News and Scholarships by University

26 제주대학교 Jeju National University

28 충남대학교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30 충북대학교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32 강원대학교 Kangwon National University

34 경북대학교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36 경상대학교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38 부산대학교 Pusan National University

40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42 전남대학교 Chonnam National University

44 전북대학교 Chonbuk National University

Korea NU10 소개 Introduction to Korea NU10

Korea National University

발행일 2019년 6월 25일(통권 제6호) 발행인 거점 국립대학교 총장협의회장 제 작 굳디자인연구소 (Tel. 051-796-6600)

The date of issue 25/06/2019 (Vol.6)

Publisher The President of the Presidential Council of the Korean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

Production Good Design Institute (Tel. 051-796-6600)

제주도에서 거점 국립대의 상생과 미래를 보았습니다

이상경 경상대학교 총장 (2019년 거점 국립대학교 총장협의회 회장)

'함께하는 제전, 상생하는 거점 국립대!', '평화의 섬에 서 울려퍼진 화합과 우정의 한마당' 5월 10일 제주대 학교에서 열린 거점 국립대학교 제전은 이 두 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10개 거점 국립대학교 교직원과 학생 5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각자 자기 대학의 명 예를 위해 땀을 쏟으면서도 전체 거점 국립대의 성장 과 공동 발전을 위해 화합하고 협력한 날이었습니다. 우리 거점 국립대에 부여된 소명을 상기하고 공동으 로과제를 해결해 나갈 방안도 모색했습니다.

그러한 바람은 이날 함께 열린 거점 국립대학교 총장 협의회에서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대 학 국제화 역량 인증제와 관련해 유학생 불법체류율 산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거점 국립대로서 고등교육 발전을 위해 인문·사회· 자연 계열 기초학문분야에 대한 등록금면제 건의 등 에 관해서도 생산적으로 논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5월 9일 열린 제6회 국제전기자동차엑 스포는 우리 협의회가 공동으로 주관한 행사로서, 하 나의 섹션에서 '한반도 전기차 발전 방향과 협력'이 라는 주제의 포럼도 마련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거 점 국립대가 남북의 환경과 에너지문제 등에 관하여 미래를 생각하며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은 제주대 송석언 총장님을 비 롯해 교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거점 국립 대 모든 교직원 여러분이 계시기에 가능한 일이었기 에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거점 국립대학교 총장협의회의 10개 회원교는 우리 나라 고등교육을 대표합니다. 우리 회원교들은 현재 당면한 우수인재양성, 지역사회발전과 같은 소명과 목표에 충실하면서도 100년 후의 대학의 모습도 그 려봅니다.

미래의 대학이 지녀야 할 올바른 가치는 무엇일까 요? 그것은 대학 본래의 설립 목적을 되돌아보는 것 이기도 합니다. 인문·사회·자연 등 기초학문분야를 강화하고 대학원생으로 대표되는 학문후속세대를 육성하며 지식 공유형 모빌러티 캠퍼스를 구축해 나 가는 것이 미래 대학의 참다운 모습이라고 봅니다. 미 래의 대학이 추구해야 할 공익적 가치에 대한 논의는 이제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호에서 이 문제에 대한 고민의 일단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 Future Envisioned on Jeju Island about Mutually Coexisting K-NU10

Lee Sanggyeong Ph.D.

President,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Chairman 2019, The Council of the Presidents of the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



'The Festival of Togetherness, Coexistence of the K-NU10!' and 'Celebration of Unity and Friendship Resonating throughout the Island of Peace.'

The festival of the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 (K-NU10) held at Jeju National University on May 10th can be summarized in the above two slogans. More than 500 faculty, staff, and students of our K-NU10 gathered together in one place. I could see how much every one of us was committed to attaining victory for the honor of a respective university. Still, this was the day for us to harmoniously come together as one for mutual growth and development of all K-NU10. This festival also reminded us of our calling as K-NU10 to collaboratively seek for the measures to solve our issues.

Such hope was clearly apparent in the meeting of the Council of the Presidents of the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 (CP K-NU10) which was concurrently held on that day. At this meeting, in-depth discussions were proceeded on various agendas such as requesting the government to reasonably improve its criteria to compute the rate of international students illegally staying in Korea, which impacts the certification system on globalization capabilities of universities. These productive discussions also covered the suggestion of tuition wavier for the basic academic areas of humanities as well as social and natural sciences in order to further develop higher education as the K-

Moreover, our CP K-NU10 cohosted the 6th International Electric Vehicle Expo held on May 9th. In one of the expos segments, CP K-NU10 also provided a forum of 'Direction of Cooperatively Developing Electric Vehicles on the Korean Peninsula. All this demonstrates how much our K-NU10 are pondering on energy crises of North and South Koreas pushing forward the future environmental protection of two

I would like to extend our gratitude to President Song Seokeon of Jeju National University and its faculty and staff who have spared no effort for this event. In addition, I would also like to thank all faculty and staff of the K-NU10, who made this festival possible

The schools of ten CP K-NU10 members represent higher education of our nation. The ten schools have faithfully devoted themselves to the K-NU10' calling and current goals such as fostering talented individuals and developing the community in a respective region. At the same time, we also envision a big picture as to how the role of a university will be transformed over the next 100 years. What would be the right value that a university should carry on in the future? In a way, this would eventually ask each university to look back on the initial objectives of its establishment. I believe the right role of a university in the future would be to strengthen the basic academic areas including humanities as well as social and natural sciences.

Also, it would be to foster the next academic generation. namely graduate students, and to build the knowledgesharing mobility campus. I believe our discussion on what value of public service a university should pursue in the future has just begun. Hopefully, this 6th issue of Korea NU10 Magazine can help confirm how we have taken our first step to face such future challenges. Thank you.





정순기 경북대학교 교수 전 기획처장 **Jung Soonki** Professor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Former Planning Director

지역대학 간 협력을 통한 기초보호학문 분야 강화 방안

Measures to Strengthen Basic Academic Disciplines Requiring Protection through Cooperation among Regional Universities



2019년 국립대학 육성사업은 국립대학이 지역의 교육·연구·혁신의 거점으로서 지역 상생 및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적 역할을 강화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기초보호학 문의 육성은 거점 국립대학의 책임이자 사명이기에 국립대학 육성사업의 필수 세부 사업 중의 하나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기초학문은 공학이나 의학 등 응용학문의 밑바탕이 되는 순수학 문으로 기초 원리와 이론에 대한 학문을 뜻한다. 통상적으로 기초 학문은 영리 활동을 목적에 두지 않은 순수한 지적 호기심에서 나 오는 학문의 진리 탐구 자체를 목적으로 한다는 뜻에서 순수학문 이라고도 한다. '자연과 인간에 대한 기본적 성찰을 다루는 학문'과 '여러 응용 학문의 기초적 도구가 되는 학문'을 포함한다. 문학, 사 학,고고학, 철학, 예술학 등의 인문사회과학과 물리, 화학, 생물학, 지구과학, 기상학, 수학 등의 자연과학이 기초학문에 해당된다. 기초학문은 응용학문과는 달리 사회의 직접적인 수요가 적어 기초보호학문의 진흥 정책을 통해 보호하지 않으면 유지되기 어렵다. 기초보호학문의 진흥은 대학 내 학문의 다양성 유지와 학문의 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하다. 응용과학의 발전에는 반드시 기초과학의 발전이 선행되어야만 하며,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사고를 가진 인 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인문사회와 과학기술의 융합 교육 및 연구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따라서 대학이 기초보호학문을 진흥하는 것은 국립대학에 부여된 사회적 책무로서뿐만 아니라 모든 대학이 그자체로도 충분한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어떠한가? 지난 10년간의 등록금 동결과 학령인구 감소 및 수도권 대학 선호 현상으로 지역 대학의 재정적 악화와 더불어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예상된다. 교육부의 대학재정지원사업 및 부실 대학 선정 평가 등에서 사용되는 신입생 충원율, 취업률 등의 지표들은 경쟁력이 없는 학과를 정리해야만 대학이 생존할 수 있다는 인식을 더욱 확고히 한다. 대학의 생존경쟁이 치열한 현 상황에서 인문학, 예술, 기초과학 등 기초보호학문을 다루는 학과들이 통폐합의 주된 대상이 될 것이며, 이로 인해 기초학문이 고사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현실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지난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이후 입학정원 현황을 보면, 대학 정원의 전체 감소 인원 대비 사회계열이 40.2%, 인문계열이 35.2%의 비중을 차지하였고, 자연계열 및 예체능계열 순으로 입학정원이 감축되었다. 취업난으로 인한 실용적인 학과에 대한 수요 증가에 따라 대학들이 기초보호학문 계열의 입학정원을 감축한 것이다.

앞으로 이러한 상황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특히 지역의 소규모 사립 대학 및 전문대학은 국립대학이나 대규모 사립대학보다 사회 수요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으며 학령인구감소에 따른 영향 또한 가장 먼저 받게 될 것이다. 그 결과 기초보호학문 관련 학과의 유지가 더욱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며, 관련 교양교육 교과목을 외부 강사에 의존하거나 대학재정의 악화로 교과목 개설조차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해당 대학의 기초보호학문 분야 기초 교육 및 타 분야와의 융합교육이 부실해짐과 동시에 기초보호학문 분야 학문후속세대의 고학력 실업사태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지역 대학의 기초보호학문 분야 교육을 강화하고 동시에 학문후속세대의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 거점 국립대학과 지역대학의 연계·협력 및 역할 분담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기존대학협력형 사업인 지역선도대학육성사업을 기초보호학문 분야에 적용하여 거점 국립대학의 기초보호학문 분야에 대한 우수한 인적·물적교육 자원을 효과적으로 공동활용하고, 그 운영 재원을 국가에서 보조하는 방안이 그것이다. 예를 들어, 인문학분야 전공교육과정을 운영하지 않거나 축소 운영하고 있는 소규모 대학, 전문대학 및 과학기술특성

화대학은 거점 국립대학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컨소시엄 내 참여 대학의 인문교양교육과정 및 타 전공과의 연계 융합교육과정을 거점국립대학이 주도하여 공동운영할 수 있다. 또한 컨소시엄 내 참여 대학간 교수 및 학생교류, 상호 학점인정, 온·오프라인 교과목 공동개발 등을 지원하고, 필요한 소요 예산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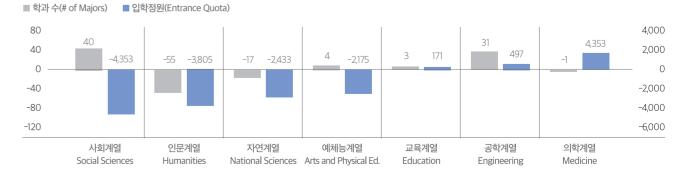
기초보호학문 분야의 열악한 여건은 각 지역 대학별로 상황이 다르며, 이에 대한 해결 방안 역시 대학 상황에 의존적이다. 따라서 일괄적으로 소규모 대학 및 전문대학의 기초보호학문 분야를 거점 국립대학에 의존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많은 부작용이 발생될 것이다. 국가의 기초보호학문 분야 지원 정책을 장기 사업화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기초보호학문 분야 진흥에 대한 국가의 의지를 표명하고 거점 국립대학의 지역사회 기여 역할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다. 또한 거점 국립대학의 기초보호학문 분야 진흥에 대한 열매를 지역 대학들과 연계·협력하여 활용함으로써 지역 대학들이 상생하도록 유도하며, 국립대학의 공공성 및 지역협력 네트워크가 자연스럽게 강화될 것이다.

The Korean government's 2019 National University development programs (NUDPs) aim to help them play their role more significantly as the official hub of education, research, and innovation in their regions. It also aims to help them contribute to their coevolution in the regions and to the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Additionally, since protecting and fostering the basic academic disciplines is the mission and responsibility of the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K-NU10), nurturing the basic academic disciplines is being pushed forward as one of the mandatory sub-programs within that of NUDPs.

Generally, the basic academic disciplines are also called "pure studies," since their objective is to explore scholarly truth itself out of sheer intellectual curiosity without concerning profitability of their end-result. Pure studies lay the foundation of other applied fields such as engineering and medicine by focusing on the basic academic principles and theories. Such pure studies include academic disciplines concerning "the basic introspection on nature and humans" and those used as "basic scholarly tools in

2015년 계열별 학과 수 및 정원 증감(2012년 대비)

Change in the Number of Majors and Entrance Quota by Field, 2012 vs 2015



메인 기획 MAIN PROPOSAL

various applied academic fields." One of the two main categories in the basic disciplines is the field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including literature, history, archeology, philosophy, and arts. And, the other is the field of natural sciences such as physics, chemistry, biology, earth science, meteorology, and mathematics. Unlike the demand for applied academic fields, that for the basic studies is inevitably lower since it has less of a direct impact on society. This means that pure studies cannot sustain themselves without any protection under specific government policy.

It is necessary to promote the basic disciplines to maintain diverse and balanced academic development within higher education. The development of basic sciences must precede that of applied sciences. Also, universities should invigorate convergent education and research among humanities, social studies, sciences, and technologies to foster talents with creative and convergent thinking. Therefore, promoting the basic disciplines is not only required by the National Universities as their job duty but also sufficiently needed by all other universities for the sake of the basic disciplines themselves.

On the contrary, the reality is quite different. Regional universities are expected to suffer from drastic restructuring caused by their escalating financial obstacles. This is due to the tuition freeze over the past decade, a decrease in the size of the student population, and excessive university application focusing solely on the metropolitan Seoul area. Yet, the Ministry of Education in Korea uses the index of recruitment and employment rates as its criteria to determine which universities to receive financial assistance and which ones to be identified as substandard. These selection criteria further confirm the notion that the only way for a university to survive is to restructure its departments of less competitive academic majors. In this current state where universities have to compete for one another just to survive, the main target of such merge or elimination will inevitably be the academic majors of the basic disciplines including humanities, arts, and basic sciences. Thus, the concerns that the basic academic disciplines to wither away may as well become a real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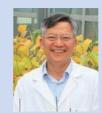
This trend is statistically demonstrated by the actual changes in universities' entrance quota after the first phase evaluation of their restructuring. Within the total decrease of the overall university entrance quota, 40.2% were of social sciences, 35.2% humanities followed by natural sciences and then by the fields of arts and physical education in that order. This is because universities reduced their entrance quota of the basic academic fields in response to the increasing demand for practical academic majors due to the ongoing unemployment crisis.

This trend is expected to further escalate in subsequent years. Especially, regional small private universities or two-year colleges are bound to react to this social demand more sensitively than National universities or large private universities. The decreasing size of the student population will also impact these small private universities or two-year colleges first. As a result, it will be more difficult for them to maintain academic majors related to basic academic disciplines. Some of them might have to depend on

outside instructors for their general requirement courses related to the basic academic disciplines. It might become difficult for some schools to even offer such courses due to their shrinking budget. This will eventually lower the quality of basic education of the basic academic fields and convergent education with other fields. At the same time, this will significantly worsen the unemployment crisis of advanced degree holders in the basic academic fields among the next generation of academia.

This raises the question of whether it is possible to find a measure to strengthen the basic disciplines education of regional universities while maintaining available jobs for the next generation of academia. An answer to this question can be found in collaboratively sharing their duties among the K-NU10 and other regional universities. Since the program to promote the K-NU10 was already launched to encourage cooperation among the K-NU10, this existing model can also be applied to the basic academic fields, in which quality human and material resources of the K-NU10 can be shared effectively with financial assistance from the national government. For example, since some small private universities, two-year colleges, as well as science and technical institutes have partially or fully eliminated their programs of academic majors in the humanities fields, they can create a consortium led by the K-NU10s in their respective region. Through this consortium, participating schools can jointly offer general requirement courses of humanities as well as collaborative and convergent programs with other majors. At the same time, they can jointly develop and offer among themselves their student and faculty exchange programs as well as on- and off-line courses. In addition, they can mutually accept academic credits while requesting the national government to provide the necessary

Inadequate conditions of the basic academic fields depend on the circumstances each university is facing in its respective region, and so do possible solutions of the basic academic fields. Therefore, expecting the basic academic disciplines education of small private universities or two-year colleges to uniformly depend on the K-NU10 in their respective region may cause a lot of side effects. Thus, the national government should have a sustainable policy to continuously support long-term programs for basic academic disciplines to clearly express its will to promote the basic academic fields. It should also effectively expand the role of K-NU10 so that they could contribute more to their respective community in their regions. By doing so, the K-NU10 can collaboratively share and jointly use the fruits of their efforts to promote the basic academic fields with other universities in their regions. In addition, the K-NU10 can lead other universities in their regions to mutually survive, thus naturally strengthening their cooperative network to promote public interests of their respective regional community.



저조인

경상대학교 연구부총장 겸 산학협력단장

Chung Jongi

Vice President of Research at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Director of the Office of Academy and Industry Collaboration

학문후속세대를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3가지 방법

Three Effective Measures to Support the Next Generation of Academia



'학문후속세대'란 석사과정 학생부터 대학에 전임교원으로 채용 되기 전의 박사학위자 등 연구자들을 일컫는다. 독립적으로 연구 를 수행할 수 있는 박사학위 취득자가 학문후속세대의 주류를 이 루고 있다.

세계 각국은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 창의적인 학문후속세대의 양성 및 확보를 국가적 과업으로 삼고 있다. 1980년 우리나라에서 배출된 박사 수는 724명이었다. 1990년대 초부터 지식, 정보의 생산이 갈수록 중요해지는 시대에 그 생산을 담당하는 학문후속세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1999년부터 BK21사업이 시작되어 2000년에는 7,569명의 박사가 배출됐다.

이후 매년 박사학위 취득자는 증가하여 2017년에는 두 배에 달하

는 1만 4,316명의 박사가 배출되었다. 최근 몇 년 간 배출된 국내 박사학위 취득자 수는 아래 표와 같다.

표 1. 국내 박사학위 취득자 수(2012-1217년)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취득자 수(명)	12,243	12,625	12,931	13,077	13,882	14,316

한국은 특히 고급 인력이 중요한 나라인데 박사학위 취득자가 많아지는 건 아주 좋은 현상이다. 하지만, 오랫동안 시간과 재정을 투입하면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학문후속세대가 일자리 걱정, 장래걱정 등으로 사회 및 국가발전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학문후속세대위기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메인 기회 MAIN PROPOSAL



신규 박사 졸업자의 대학 재직 비율이 2017년 48.8%에서 2018년 54.8% 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 중 비정규직 비율이 68.1% 정도로 나타나고 있 다. 향후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하고 그 위치를 장기간 안정적으 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학문후속세대의 양성이 기본적으로 뒷 받침되어야 된다고 본다.

학문후속세대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3 가지의 방법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첫째, 박사학위 취득자가 중소기업의 연구를 담당하는 범부처적 프로 그램이 필요하다고 본다. 현재 중소기업들은 만성적인 연구인력 부족 을 호소하고 있다. 신규 직원에 대한 지원자 부족보다 적합한 연구인력 부족이 더 큰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연구공간, 예산, 인력고용 등 3가지를 동시에 해결 하는 형태가 되어야 된다고 본다. 연구공간은 정부의 예산으로 대학(대 학 입학자원의 감소로 대학에서는 여유 있는 공간의 리모델링 지원), 지자체, 정부기관에서 제공하고 연구예산은 정부와 중소기업이 공동 으로 부담할 수 있다고 본다. 고용 형태는 중소기업과 중소벤처기업부 에서 일정 부분 역할 분담하여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으로 보며 청년 실업률 해소 등 많은 장점이 있을 것으로 본다. 둘째, 학문의 전 분야에서 박사학위 취득자에 대한 안정적인 연구공간 및 재정의 지원이 대폭 확대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동안 국가에서는 박 사학위 취득자를 대상으로 안정적인 연구환경을 제공하는 정책을 실 시해 왔다. 대표적인 예로 한국연구재단에서는 리서치펠로우, 박사후 국내외 연수, 시간강사 지원, 학술연구교수 등 학문후속세대 지원사업 을 진행해 오고 있다. 최근 5년간 한국연구재단의 학문후속세대 지원 사업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2. 최근 5년간 학문후속세대지원사업 현황(한국연구재단)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지원액(백만 원)	39,335	72,062	63,118	62,214	63,248
과제 수(개)	1,944	2,538	2,430	2,393	2,380

이 외에도 BK21 사업, 국립대학육성사업에서의 학문후속세대 지원, 대 학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학문후속세대 지원사업 등 다양하게 지원 프 로그램을 확대해 가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러나 매년 전체 박사학위 취득자의 20% 정도가 학문후속세대 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과학기술의 다양성 을 인정하고 학문의 전 분야에서 학문후속세대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 해야 된다고 본다. 대학 입학자원의 감소로 대학에서는 여유 있는 공간 을 학문후속세대의 독립적인 연구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셋째. 향후 분야별 장기간 박사 인력의 수요를 고려한 박사학위 취득에 대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현재 수요보다는 공급이 훨씬 초과 된 박사학위 취득자의 증가가 학문후속세대 위기의 원인이 된 측면이 있다고 본다. 교수 수의 증가에 비해 박사과정 대학원생 수만 대폭 늘 어날 경우 연구 공간 부족, 박사과정 1인당 교수의 지도 시간 부족 등으 로 박사학위의 질적 수준 향상은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학문 전 분야를 대상으로 박사학위 취득자 수요 공급을 철저히 분석하 여 박사과정 입학생 수를 조절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본다. 4차 산업 혁명과 관련된 분야에서는 박사과정 입학생의 대폭적인 증원이 필요 하고 증원할 경우 질적으로 우수한 박사학위 취득자가 배출될 수 있는 장치가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다.

The term "next generation of academia" (NGA) refers to any researcher ranging from a student in a master's program to a doctoral degree holder (DDH) who has not yet been hired by a university as a full-time faculty. The majority of NGA are DDHs able to independently perform their research.

To enhance its competitiveness in the global community, each country is pushing forward a program to foster and secure creative NGA as its national-level priority. In Korea, although only 724 doctoral degrees were conferred in 1980, creating knowledge and information became increasingly imperative starting from the early 1990s. In this rapidly changing age, a need to systemically support NGA capable of fulfilling this duty came to the fore in the Korean society. This led its national government to launch the BK21 program in 1999, which soon helped produce 7,569 DDHs in

Since then, this figure continued to grow annually, doubling itself to 14,316 in 2017. The increasing number of DDHs who obtained their degrees in Korea from 2012 to 2017 is as follows.

Table-1. DDHs who obtained their degrees in Korea, 2012~2017

Year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No. of DDHs	12,243	12,625	12,931	13,077	13,882	14,316

Since Korea especially emphasizes on highly educated workforce, some may interpret the rapidly increasing number of DDHs as a positive trend. However, this trend has inevitably caused an excessive supply of doctoral degrees. Despite their hefty investment of time and money, DDHs of NGA now have to face the unemployment crisis and the uncertain future without being able to help contribute to the Korean society.

On the surface, the rate of employment at university among recent DDHs increased from 48.8% in 2017 to 54.8% in 2018. Yet, about 68.1% of them were hired as non-regular employees. In order for Korea to subsequently become an advanced nation as well as stabilize and sustain its status accordingly,0 fostering quality NGA must be fundamentally supported.

Although there could be various ways to effectively support NGA, three measures will be discussed here.

First, it is necessary to have inter-agency programs where DDHs can be in charge of research on 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s (SMEs). Currently, these SMEs are pleading with the government to relieve their chronic shortage of researchers. To be more specific, the lack of qualified staff for their research is a bigger problem among SMEs than the lack of job applicants for their new openings.

These inter-agency programs should be in a platform that can concurrently resolve three issues of research space, budget, and employment. Due to their decreasing entrance quota, universities can now remodel and utilize their unused physical space for research. While the national government can fund this remodeling, such space can also be provided by a local selfgoverning bodies or pubic agencies in the regions outside the metropolitan Seoul (OMS) area. Just as the research budget itself can be provided jointly by the national government and SMEs, the research employment issues can also be addressed in various ways. For example, the responsibilities to hire DDHs as regular employees can be shared by SMEs and the Ministry of SMEs, simultaneously resulting in many advantages including reduction of the youth unemployment rate.

Second, the stable research space and financial assistance for DDHs should be increased significantly in all academic fields. Until now, the national government has implemented a policy to provide a stable research environment for DDHs. For example,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 has implemented various NGA support programs, including those of research fellow, domestic and foreign post-doctoral training, part-time lecturer support, as well as research professor. The NRF's support programs for NGA over the past five years is shown in Table-B below.

Table-2. Support programs of NRF for NGA, 2015-2019

Year	2015	2016	2017	2018	2019
Unit: Million Won	39,335	72,062	63,118	62,214	63,248
No. of Projects	1,944	2,538	2,430	2,393	2,380

In addition, various other support programs have been expanded in a positive direction. This includes BK21, subprograms to support NGA within the program of promoting the national universities, and NGA support programs independently provided by universities themselves.

However, the data show that only about 20% of all DDHs have actually benefitted from the NGA support programs each year. Therefore, the need for diversity in the field of science and technology should be recognized, and the budget to support NGA should be increased substantially in all academic fields. Due to their decreasing entrance quota, universities can now utilize their unused physical space for NGA to independently conduct research. To make this possible, financial assistance from the government is also needed.

Third, it is necessary to restructure the doctoral programs by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subsequent long-term demand for DDHs in each field. One of the aspects causing this NGA crisis is the current supply of DDHs far surpassing the demand for them. If the number of students in doctoral programs grows at a much higher rate than that of professors, it will be difficult to expect universities to improve quality of their doctoral degree programs due to insufficient research space and time each professor can provide per student.

Therefore, it is also necessary to thoroughly analyze supply and demand of DDHs to adjust the number of students entering doctoral programs in all academic fields. Especially, in the fields related to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e number of students entering doctoral programs should be increased substantially along with a safety device to ensure the quality of workforce with doctoral degrees.

11



Korea NU10 MAGAZINE



최용업 한국대학신문 발행인 한국대학경쟁력연구원장

Choi Yongseob

Publisher, University News Network
President, Institute of Korean University Competitiveness

지식공유형 모빌러티 캠퍼스

Knowledge Sharing Mobility Campus



우리는 지금 부정할 수 없는 Industry 4.0의 시대에 살고 있다. 세계 굴지의 자동차,IT기업들이 어제의 경쟁관계 또는 분야 간 경계를 넘어 융합과 협력을 통해 새로운 제품 개발에 앞 다투어 나서고 있다. 산업계에서 일고 있는 극한 경쟁의 종식, 초융합의 부상은 경쟁기업보다 비교우위 전략을 집중하는 마이클 포터 교수의 기업 경쟁전략이 일대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런 변화는 기업뿐만 아니라 대학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학 간의 무한경쟁 시대에 차별화, 집중화에 매달렸던 대학들이 대학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공유·협업 속에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플랫폼 형태로의 발전을 대안으로 모색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 거점 국립대학 육성과 공영형 사립대학 제도 도입을 고등 교육 발전 방안으로 내놓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 공유와 협력에 입각한 대학발전 논의가 또 다시 급물살을 탔다.

국립대 차원에서는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7월 9개 지역 거점 국립대학이 모여 네트워크화를 본격적으로 논의한 것이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거점 국립대 육성 정책과 맞물려 힘이 실리는 듯했으나 현재는 정체 상태에 머물 러 있다. 여전히 반대론의 핵심인 서울대 폐지, 하향평준화, 획일 화 등의 주장이 발목을 잡은 결과이다.

사립대 차원에서는 일부 지역대학들이 공유와 협력 논의를 구체 화하는 가운데 한국대학신문사가 2018 UCN 사립대 프레지던트 서밋을 통해 대학 간 '개방'과 '공유'의 필요성을 전면적으로 제 기하자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

비교적 폐쇄성이 높은 사립대학들이 개별 대학만의 노력으로 벽에 부닥쳤던 많은 과제들이 대학 간 공유경제라는 틀을 통해 해결될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대학 간 공유경제 모델로 '고비용 구조 탈피', '높은 교육 질 유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확신이 참석 총장들 사이에 확산됐다.

우리 시대 대학간 '개방'과 '공유', '협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되고 있다. 우리는 이런 대학 간 공유경제 모델을 '지식공유형 모빌

러티 캠퍼스(Mobility Campus)'라 부르고자 한다.

'지식공유형 모빌러티 캠퍼스'는 한마디로 '움직이는 대학'이다. 대학의 인적·물적 자원들이 '특정대학'이라는 물리적인 장소를 뛰어넘어 함께 공유하고 지식과 콘텐츠를 개발해 공동으로 운영, 성과를 내는 플랫폼으로서의 대학인 것이다.

'지식공유형 모빌러티 캠퍼스'는 '연결성, 이동성, 학생경험 및 데이터 분석'을 특성으로 한 '대학자산 유동화'(Liquidity for Campus Resources)'를 전제(前提)로 한다. 여기에서 '대학자산 유동화'란 현재 폐쇄적·경쟁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대학의 인적·물적 자산을 공동 플랫폼 기반 하에서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드는 과정이다.

대학자산 유동화는 시계열적으로 엄밀하게 구분되는 것은 아니지만 편의상 3단계로 추진될 수 있다.

1단계는 물적 자산 유동화 단계이다. 대학, 지자체, 기업, 법인이 수요 자가 되어 물적 자원의 유동화를 통해 경비를 절약하고 부가 수익원 을 확보하는 단계를 말한다. 이 단계에서는 물적 자산 유동화를 위한 플랫폼인 'Campus Space Cloud' 시스템 구축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 2단계는 인적 자산 유동화 단계이다. 대학, 기업이 수요자이고 교수 및 직원 등의 상호교류가 중심이다. 인적자원 유동화는 교차, 교환, 교류 3교(三交) 방식이 가능하다. 학제교환, Upskill&Reskill교육, 공 동학위 등의 형태를 취할 수 있다.

3단계는 초융합 전방위대학으로 가는 단계이다. 대학, 기업이 수요 자로 마이크로러닝, xAPI (Experience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 AI기반의 개인학습, 창업캠퍼스생태계 조성 등으로 확대 해 나가는 과정이다.

대학 간 공유는 한계 비용에 처한 대학의 자구 노력적 측면도 있지만 지속가능성 고양이라는 새로운 가치 창출이 근저에 깔려 있다. 그러 기에 대학 상호간 미래에 대한 공동의 비전을 공유하고 자산의 유동 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 또한 대학 구성원 간에 신뢰뿐 만 아니라 참여대학 간 이해관계가 어느 정도 일치될 수 있도록 유동 화과정과 3교 과정을 설계해야 한다.

전략적 접근도 필요하다. 이해관계가 첨예한 분야에서 공유를 강제 하기보다는 상호 보완 및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의 공유를 먼저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 원활한 협의와 추진을 위해서는 기계적 결합보다는 각 대학의 구성원들이 왕래하며 목표의식을 공유하고 시너지를 노 리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 이미 '지식공유형 모빌러티 캠퍼스'를 향한 움직임은 시작됐다. 서울, 부산, 경인 지역 등에서 교육, 연구, 봉 사, 시설이용 등 다양한 공유협력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프레지던트 서밋에서는 대학 간 공유가 개별 대학, 개별 지역에 국한 되는 이슈가 아니라 국가·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파급력을 미치게 될 것이란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제 대학마다 벽을 쌓고 경쟁을 할 것이 아니라 같이 공유를 하면서 공동의 발전을 추구한다면 대학이 훨씬 발전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가져본다.





The age of Industry 4.0 is undeniably here and now. The world's leading automobile and IT industries are rushing to develop new products through convergence over the boundary of each field and collaboration beyond their hostile competition of the past. The rise of hyper convergence and the fall of excessive competition in the industrial sector demonstrate that Professor Michael Porter's corporate strategy which focuses more on competitive advantage rather than on competition itself is now going through a remarkable turning point.

This change has affected not only industries, but also universities. In the age of unlimited competition among universities, each school was hanging onto its specialization in order to further differentiate itself from competitors. However, universities are now seeking an alternative measure to develop themselves in a network platform based on sharing and collaborating in order to increase their sustainability.

As President Mun Jae In began his term in Korea, his administration proposed its measure to develop higher education by introducing public management of private universities and by promoting the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 (K-NU10) in the regions outside the metropolitan Seoul (OMS) area. Consequently, this proposal further heated the discussion on developing universities by sharing and collaborating.

Since July of 2017, a full-scale discussion on forming a network of the national universities was started by nine K-NU10. For a while, their effort seemed to receive strong support thanks to Mun's policy to promote the K-NU10. However, this discussion is now at a standstill due to the usual core arguments of the opposition, including abolition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downward standardization, and uniformity.

In the meantime, some private universities have also begun to give shape to their discussion on sharing and collaborating. At the 2018 UCN President Summit among private universities, the University News Network (UNN) pointed out a need for private universities to be open to and share with one another. As UNN unreservedly addressed this issue, the discussion among the presidents of participating universities went into full swing.

In a relative sense, a private university tends to be more of a closed community with many obstacles that cannot be overcome by itself. Yet, through this discussion, the participating private universities could reach a common awareness acknowledging that a platform of sharing economy could help them overcome their obstacles. The presidents of these private universities seemed to become confident together that this model could help achieve their two main objectives: breaking away from the high cost structure and maintaining quality education.

메인 기획 · 총장칼럼 MAIN PROPOSAL · PRESIDENT'S COLUMN

In this day and age, sharing and collaborating among universities by opening their doors are now becoming mandatory, not optional. This model of sharing economy among universities is called a knowledge sharing mobility campus.

In two words, this knowledge sharing mobility campus can be described as a "moving university." In this model, human and material resources of universities are no longer bound within their physical location. The mobility campus is a new platform jointly managed by universities who collaboratively develop and share knowledge and contents to produce their desirable outcome.

The knowledge sharing mobility campus operates under the premise of "Liquidity for Campus Resources" (LCR) whose unique qualities are connectivity, mobility, student experience, and data analysis. Although universities currently manage their human and material resources exclusively and competitively, LCR here refers to a process that will allow universities to share their resources in a basis of joint platform.

LCR cannot be categorized chronologically into distinctive stages of time. However, for the sake of convenience, its process can be proceeded in the following three phases.

The first phase is to liquefy material resources. In this phase, universities, local self-governing bodies, industries, and corporations become consumers. By liquefying their material resources, universities can reduce their expenditures and secure their supplementary income sources. To make this possible, the base for this phase should be solidified first. After that, universities can create the "Campus Space Cloud" system, the platform where these resources can be liquefied.

The second phase is to liquefy human resources. In this phase, universities and industries are consumers, while the core of this process becomes mutual interaction among faculty and staff members of participating universities. Liquefying human resources is possible in three interactive methods of crossing, exchanging, and alternating. These methods can take various forms such as those of school system exchange, upskill & reskill education, and joint degrees.

The third phase is to move toward the model of omnidirectionally hyper convergent universities. Like the second phrase, universities and industries are also consumers at this stage. And, the scope of higher education is expanded in this phase by creating individual learning systems and venture campus ecosystems in various bases such as those of microlearning, xAPI (Experience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and AI.

Although sharing among universities is an inevitable aspect of self-help to overcome their own limited budget, creating new values to enhance their sustainability is also fundamentally at its root. Therefore, universities must have a common awareness of their future need to share visions and liquefy resources among themselves. Also, the above three interactive methods of LCR should be designed to gain trust among university personnel and their counterparts as well as to match interests of participating schools to a certain extent.

Strategic approaches are also necessary. Instead of mandatory sharing in the fields with evident conflicts of interest, universities should first seek to share in the fields where they could completement and improve one another. Also, for smooth progress via clear communication, mechanically forming a network should be discouraged. To be more effective, universities should consider the methods allowing their representatives to freely visit and invite their counterparts in order to aim for synergy by sharing their sense of purpose. The first step toward the knowledge sharing mobility campus has been taken already. Various programs to share and collaborate in education, research, volunteerism, and facility use are currently being operated in the metropolitan areas of Seoul, Busan, and Incheon as well as in the province of Gyeonggi.

At the above President Summit, the participating universities could reach a common awareness that the issue of sharing among universities would not be restricted within a physical boundary of a particular school or a region. They are now aware that influences of such sharing and collaborating will make positive changes throughout the Korean Society. Universities are no longer able to hide in their ivory tower and to perceive their counterparts solely as their competitors. If universities could pursue their mutual development by collaboratively sharing, their future would be far more optimistic and productive.



총장칼럼 President's Colum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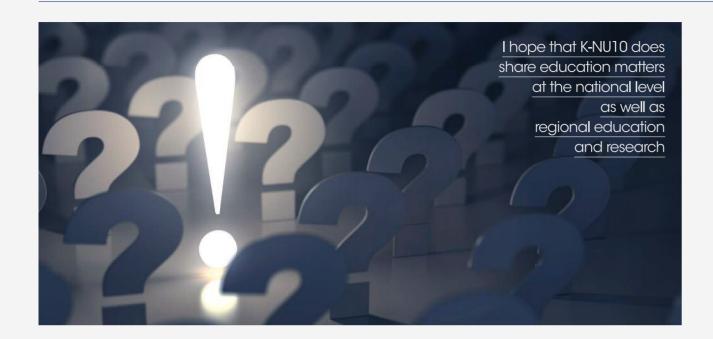
김수갑 충북대학교 총장 **Kim Sukab** President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일반적인 국립대학의 역할과 달리 지역의 대표적 국립대학으로서 거점 국립대학은 어떠한 역할과 기능을 담당해야 하는가?

최근 고등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적·재정적 지원이 증가됨에 따라 사회적 책무성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한 거점 국립대학과 지역 국립대학의 역할 재정립 및 기능 차별화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대학의 소재지, 규모, 학문구조 등의 특성으로 볼 때 거점국립대학만의 강점이 존재하며, 이를 토대로 발전방향 및 역할을 재정립하고 그 기능을 차별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Unlike other national universities, What kind of roles and aims does a Flagship National University(K-NU10) in a region have?

Recently, as the political and financial support has increased in order to strengthen publicness of higher education, demands for reestablishment of the roles and differentiation of functions between K-NU10 and the other local national universities are increasing in order to strengthen social responsibility and publicness. Considering characteristics of their place of location, size, learning system, etc., K-NU10 have their own strengths. So based on them, they need to try to reestablish their roles and aims and differentiate functions from the others.





지역 거점 국립대의 미래 역할에는 네 가지 키 워드가 포함되어 있다. '지역', '거점', '국립대', '미래'가 그것이다. 개념 하나하나가 만만치 않 은 함축성을 갖고 있다. 거점 국립대는 대부분 지역(지방)에 있다. 현 시대에 지역은 차별을 의 미한다. 재정 수입, 교육문화 수준, 진학 인구, 의료서비스의 수도권과의 격차가 위험수위에 도달하고 있다. 수도권과 지역의 소득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는 건 물론이고, 인구절벽 쇼크 로 지역이 고사 직전이다. 30년 내, 지역의 시 군구 중 37%가 소멸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한 다. 인력과 기술의 부족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 한 대비도 미흡하여 미래 전망도 불투명하다. '지방소멸'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진단도 있다. '거점(據點)'은 지역의 교육, 연구, 산학협력의 본거지, 선도라는 의미를 갖는다. 지역거점대 학은 지역에서 섬처럼 고립되어 자폐적인 대학 이 되면 안 된다. 지역 교육과 문화, 산업의 본 거지로서 지역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지역 전체를 이끌어 가야 한다. 거점 대학은 지 역 교육기관의 맏형, 문화와 산업의 창출과 전 파자, 지역사회 네트워크와의 긴밀한 협조자로 서 지역발전에 앞장서야 한다.

국립대는 사립대와 대비된다. 사립대는 주인 (owner)이 있지만 국립대는 국민이 주인이다. 국민과 함께 가야 한다. 사립대가 이윤, 경쟁, 효율성으로 운영된다면 국립대는 근본(기본), 배려, 공동체, 사회적 책무라는 가치로 운영해 야 한다. 이와 같은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기초—보호학문 및 인문학 보호 육성, 학문후 속세대 양성 및 배려,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와 교육 기회 제공 등의 역할을 떠맡아야

'미래'는 혁신을 의미한다. 바뀌어야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다. 거점 대학이 지 능형 로봇, 스마트 자동차, 에너지 산업, 빅 데이 터와 스마트 헬스 케어 같은 정보 통신 기술 (ICT), 전문 서비스(PS), 미디어(MEI) 분야의 R&D 고도화 등과 같은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할 준비 가 완벽하게 되어 있을까? 거점 국립대학은 지 역 산업체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할 수 있는 연 구 인프라를 제공하고 리드해 나가야 하는데, 그럴 만한 역량이 갖춰져 있는지는 의문이다. 거점 국립대가 떠맡은 과제들은 사회의 공익적 가치와 연관해서 혁신 선도와 사회적 책무로 정리할 수 있다. 거점 국립대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최첨단의 기술을 연구·육성하여 지역 산 업계에 보급해야 한다. 지역의 산업이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게 선제적으로 이끌어가야 할 의 무를 갖는다. 이와 아울러 지역의 교육, 연구, 문 화, 산학협력의 기반 기구로서 지역의 대학과 기관들을 선도해야 한다.

사회적 책무는 거점 국립대가 구현해야 할 공 익적 가치와 보다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국 립대의 사회적 책무는 차별 철폐와 약자 보호 로 요약할 수 있다. 수도권에 대한 지역의 차별 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 균형발전에 앞장서야 한다.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학-관-산 컨소시 엄 구성을 통한 지역발전 시도도 해볼 만하다. 거점 국립대는 약자 보호라는 사회적 책무를 떠맡아야 한다. 거점 대학은 국립대학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면 사회적 책무를 다할 수 있다. 대학은 진리 탐구를 핵심적 사명으로 한다. 인 구 절벽 시대에 대학은 심각한 구조 조정 요구 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기초학문, 보호학문, 인 문학, 희귀학문이 철퇴를 맞게 될 것이다. 거점 국립대는 학문적 약자인 이들 분야를 보존, 유 지, 발전시켜 진리탐구라는 본연의 사명을 다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더 나아가 거점 국립대학은 학문 공동체를 유지하고 발전시킬 책무를 갖는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적 약자라고 할 수 있는 학문 후속세대를 보호 육성해야 한다. 특히 기초학문 분야의 대학원을 유지 발전시켜 학문의 맥이 끊이지 않도록 포스트 닥, 학문 후속세대 양성을 위한 인큐베이션, 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TA 제도확대 등을 통해 우수 학문 후속 세대를 양성하여 대학에 자리 잡도록 해야 한다.

이 외에도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장애인 보호, 다문화 가정 학생들에 대학 교육기회 확대 등에 힘씀으로써 사회적 약자 보호에 앞장서야 한다. 국립대학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대학 이기 주의를 벗어나야 한다는 걸 강조하고 싶다. 자 기 대학만이 살겠다고 하면 다른 대학도 그런 자세를 가질 것이고 그러면 정해진 파이를 놓 고 싸울 수밖에 없다.

국가균형발전,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국가의 전략적 목표 앞에서는 모두가 함께 동참하는 것이 좋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고, 혼자 싸우는 것보다는 여럿이 같이 싸워야 성과를 올릴 수 있다. 각 대학이 각자도생하기보다는 거점 국 립대 연합 공동체를 구성하여 매사에 공동보조 를 취했으면 한다. 지역의 교육과 연구만이 아 니라 국가 차원의 교육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 는 K-NU10이 되기를 바라다.

There exist four key words in a future role of K-NU10: 'Region,' 'Flagship,' 'National University,' and 'Future.' Each key word has significant implied meanings.

Most of the K-NU10 are located in a region. Today, a region means discrimination. The gap between the capital area and the other regions, such as financial income, level of education and culture, proportion of students, medical service, etc., is reaching alarming rates. An income gap is more and more exacerbated and many regional areas face shock of demographic cliff. It is said that 37% of the regions will have been disappeared within 30 years. For the lack of workforce and technology, many regional areas cannot prepare for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very well. Their future prospect is uncertain. There already exists a diagnosis, that is, realization of 'local extinction'.

'Flagship' means the university has to become a base camp of education, research,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 and be a leader of the region. K-NU10 should not be isolated and alienated like an island. As the base of regional education, culture, and industry, they have to lead the whole region with a strong network. As a leader of local education institutes, a creator and distributor of culture and industry, a close supporter of a local society network, they have to take the head in developing the area.

A national university is different from a private one. While a private university has its owner, a national one is owned by the nation, so it has to be with them. While a private university tends to be operated and managed by its profits, competition, and efficiency, a national one has to be managed by some values like basis (basics), solicitude, community, and social responsibility. To realize these values, a national university has to take over various roles like protecting and developing basic sciences and humanities, fostering next-generation academic researchers, caring socially disadvantaged class and offering them a chance to learn, etc.

'Future' means innovation. To survive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era, we need to change.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era includes 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ntelligent robots, smart cars, energy industry, big data, smart health care, ect.), PS (Professional Services), R&D Advancement in MEI (Media, Entertainment & Information). K-NU10 have been prepared enough to face the new era? They need to supply research infrastructure to the local industries so that they can prepare for the era, and also lead them. However, it is doubtful for them to have enough capability to do that.

Considering public value, tasks of K-NU10 can be classified into two: innovational lead and social responsibilities. They have to research and develop state-of-the-art technology and supply them to the local industries. They also have a duty to lead local industries not to be outdated. In addition, they have to lead other local universities and institutions as a base of local education, research, culture, and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

Social responsibilities are more closely related to public value, which K-NU10 have to realize. Their social responsibilities consist of abolishing discrimination and protecting the weak. To overcome discrimination against local areas, they should lead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And it's worth trying regional development by establishing university-government-industry consortium.

K-NU10 have to take care for the weak and they can do it when they are faithful to their duties. The important mission of a university is pursuing the truth. In demographic cliff era, universities can not help facing severe restructuring and some basic sciences, humanities, or rare studies might run into difficulties. Therefore, K-NU10 should protect, preserve, and develop these fields to complete their duty, pursuit of truth.

Furthermore, K-NU10 have a responsibility to maintain and develop a scholastic community. For this goal, they have to protect and foster next-generation academic researchers. So, they need to maintain and develop graduate schools in the field of basic sciences, and expand post-doctoral system, incubation system, TA system, etc., which help the next-generation academic researchers take their place at a university.

Meanwhile, they should take the initiative in protecting the socially disadvantaged by providing support for a low-income group, protecting the disabled, expanding the chances to learn at a university for student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etc.

We need to avoid selfishness to carry out responsibilities faithfully as a national university. If we decide to survive alone, other universities are easy to take the same attitude. Then, we have no choice but to fight over a limited amount of pie.

We need to cooperate in front of the strategic purpose of the country, that is,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and protection of the socially disadvantaged. Many hands make a light work. We can achieve better results when we work together. Therefore, K-NU10 need to establish a K-NU10 coalition and stand shoulder to shoulder in every matter, rather than try to survive individually. I hope that K-NU10 does share education matters at the national level as well as regional education and research.



"함께하는 제전, 상생하는 거점 국립대!"

"The Festival of Togetherness, Coexistence of the Korea NU10!" 세계적 평화의 섬이자 우리나라 최고의 관광지인 제주도에 거점 국립대학교 총장협의회 회원교 교직원과 학생 500여 명이 모였다. 올해 네 번째 맞이하는 거점 국립대학교 제전이 열린 제주대에는 화합과 우정의 꽃이 유채꽃보다 더 아름답게 피어났다. 승부를 떠나 축제의 한마당으로 승화된 2019년 거점 국립대 제전을 돌아보았다. 또한 거점 국립대 제전과 때를 맞춰 2019학년도 제2차 거점 국립대학교 총장협의회가 10개 회원교 총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총장협의회는 또한 세계전기차협의회(GEAN)와 업무협력 협약을 체결하는 성과도 거두었다.

Jeju Island is renowned worldwide as an island of peace as well as the best tourist destination in Korea. On this island, more than 500 faculty, staff, and students of the members of the Council of the Presidents of the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 (CP K-NU10) gathered together. At Jeju National University who hosted the fourth annual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 (K-NU10) festival this year, the unity and friendship of the participants were harmoniously in full bloom even more beautifully than Jeju's canola flowers. Looking back on the 2019 annual K-NU10 festival, the participants could feel that the festival's sports competition was sublimated into joyful celebration regardless of victory or defeat. Along with this K-NU10 festival, the CP K-NU10 held its second 2019 meeting in which the presidents of ten member schools were present CP K-NU10 also successfully accomplished the MOU execution of business cooperation with the Global Electric Vehicle Association Network (GEAN).





'소통·연대의 장' 넓힌 2019 거점 국립대 제전

The 2019 K-NU10 Festival Expands the Space for 'Communication and Solidarity'











'2019년 거점 국립대학교 제전'이 5월 10일 제 주대학교에서 열렸다. 제주대 주관으로 열린 이번 제전에는 거점 국립대 10개교 교직원 500여 명이 참가해 체육 문화 체험행사와 소 통의 시간을 가졌다. 거점 국립대 제전은 대학 간 협력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기 위해 2016년 에 시작돼 올해로 4회째 개최됐다.

행사 주관교인 제주대는 이번 제전 슬로건을

함께하는 제전, 상생하는 거점 국립대'로 정했다. '이기는 경쟁'보다는 대학 가족들 간에 즐겁게 소통하며 보다 더 끈끈한 연대의 장을 열어보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이번 대회에선 대학간 과열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종합우승 제도를 폐지했다.

따라서 이번 행사는 거점 국립대로서의 책무와 역할을 높이고 인적자원 교류 및 물적 자원의 개방과 공유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가 균형발 전을 선도하는 거점 국립대의 위상을 강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됐다.

한편 이날 체육행사에서 ▲족구(제주대, 경상대) ▲발야구(충남대, 전북대) ▲농구자유투(전남대, 충남대) ▲단체줄넘기(전북대, 경상대) ▲ 600m계주(전남대, 경북대) 부문에서 각각 1위와 2위를 차지했다.

거점 국립대학교 총장협의회 이상경 회장은 대회사에서 "경기에서 드러나는 승패는 서로 이해하고 협력하는 밑거름이요, 함께하는 응원과만세 소리는 거점 국립대학교의 미래를 비추는밖은 등불이다."라고 말하고 "함께하는 제전, 상생하는 거점 국립대'라는 캐치프레이즈에 걸맞게 맞잡은 손 놓지 말고 마주한 얼굴 잊지 않으며 다함께 거점 국립대학교 깃발 아래 모여달라."고 강조했다.

The annual festival of the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 (K-NU10) was held at Jeju National University on May 10th.

In this festival hosted by Jeju National University, more than 500 faculty, staff, and students of ten K-NU10 came together to create their own space where they could freely communicate with one another through athletic, cultural, and experiencing events.

The K-NU10 festival began in 2016 to vitalize the cooperative network among the K-NU10s, marking its fourth annual event this year.

Jeju National University hosting this event put forth the slogan 'The Festival of Togetherness, Coexistence of the K-NU10s' for this festival. This was to provide a chance for the K-NU10 families to band together more closely and to communicate more joyfully with one another rather than focusing too much on winning the sports competition. Accordingly, to prevent excessive competitiveness among the schools,

the system of awarding the overall winners was abolished in this festival.

By doing so, the event provided a base to openly exchange and share human and material resources and to enhance the role and responsibilities of the K-NU10. Consequently, this also provided a chance to strengthen the status of the K-NU10 who have been leading the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To recap, the respective winner and the runner up of each game in this friendly sports competition are as listed below: ▲Foot volleyball: Jeju and Gyeongsang ▲Kickball: Chungnam and Chonbuk ▲Basketball free throw: Chonnam and Chungnam ▲Group jump-rope: Chonbuk and Gyeongsang ▲600m relay race: Chonnam and Kyungpook.

In his opening speech, President Lee Sanggyeong who is also the Chairman of the Council of the Presidents of the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 (CP K-NU10) said that "the mere victory or defeat

of each game can better serve as the base of mutual understanding and cooperation along with the sound of triumphant shouts and cheers that could be a torch lighting the future of the K-NU10." He also emphasized that "we should continue to remind ourselves of the mutual needs and to provide mutual support befitting the catch phrase 'The Festival of Togetherness, Coexistence of the K-NU10'. All of us should gather together as one under the flag of the K-NU10 community."



거점 국립대 총장협의회 2019학년도 제2차 회의 제주대에서 개최

The 2nd Meeting of the 2019 CP K-NU10 Held at Jeju National University



거점 국립대 총장협의회(회장 이상경 경상대학교 총장)는 5월 10일 제 주대학교에서 2019학년도 제2차 회의를 열어 협의 안건 등을 심의했다. 협의회는 이날 국제화 역량 인증제 학위대학 선정 등에 반영하는 유학 생 불법체류율 산정 기준에 문제 발생 우려가 있어 현행 법무부 불법체 류율 산정 기준의 합리적 개선을 요청했다. 또한 거점 국립대 국제화와 학생교류 활성회를 위해 계절학기 영어강의 공동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또 협의회는 기초학문 분야의 학생 중도 탈락률 증가와 우수 학생의 수 도권 편중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초학문 분야 중점 육성방안을 협의 했다. 이 외에도 국립대 직장어린이집 운영 정부지원을 건의했다.

협의회에는 강원대 김헌영, 경북대 김상동, 경상대 이상경, 부산대 전호 환, 서울대 오세정, 전남대 정병석, 전북대 김동원, 제주대 송석언, 충남대 오덕성, 충북대 김수갑 총장이 참석했다.

이에 앞서 협의회는 5월 9일 제6회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가 열린 제주 국제컨벤션센터에서 한반도 전기차 발전 방향과 협력 포럼에 참석하고 세계전기차협의회(GEAN)와의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업무협약서에서 양측은 전기차 산업 발전을 위해 추진 중인 세계전기차협의회, 국제전기 자동차엑스포, 평양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 등의 사업에 대해 상호 협력 하기로 했다. On May 10th, the Council of the Presidents of the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 (CP K-NU10) led by Chairman Lee Sanggyeong was convened at Jeju National University to discuss and review the agendas of its second meeting in the academic year 2019.

During this meeting, the CP K-NU10 requested a reasonable improvement of the standard currently used by the Ministry of Justice to compute the rate of international students illegally staying in Korea. This is due to the concerns that problems could be arisen from this computation standard impacting the selection criteria of the certification system on globalization capabilities of degree granting universities.

The council also discussed ways to jointly provide seasonal English

courses in order to vitalize student exchange programs and globalization of the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 (K-NU10).

The CP K-NU10 discussed the fostering method to focus on the basic academic fields in order to respond to the increasing dropout rate among students of these fields. Also, this is to resolve the deepening problem that quality students are excessively concentrated in the metropolitan area of the nation's capital city. In addition, the CP K-NU10 suggested the government support for operating the workplace daycare centers at national universities.

The attendees of CP K-NU10 meeting in alphabetical order by school name are as follows: Presidents Kim Heonyoung of Kangwon, Kim Sangdong of Kyungpook, Lee Sanggyeong of Gyeongsang, Chun Hohwan of Pusan, Oh Sejung of Seoul, Jeong Byungseok of Chonnam, Kim Dongwon of Chonbuk, Song Seokeon of Jeju, Oh Deogseong of Chungnam and Kim Sukab of Chungbuk National Universities.

Prior to this meeting, the CP K-NU10 participated in the forum on May 9th for the direction of cooperatively developing electric vehicles on the Korean peninsula at the Jeju International Convention Center where the 6th International Electric Vehicle Expo was being held concurrently. In this event, the CP K-NU10 executed the MOU of business cooperation with the Global Electric Vehicle Association Network (GEAN). In this MOU, the both parties agreed to mutually cooperate in the currently progressing business to develop the electric vehicle industry, such as those of GEAN and of the International Electric Vehicle Expos including the one in Pyongyang.





거점 국립대 총장협의회 2019학년도 제2차 회의 회의 내용

세계전기차 협의회(GEAN)와의 업무협약 현행 법무부 불법체류율 산정 기준의 합리적 개선 국립대 직장어린이집 운영 정부지원 건의

기초학문 분야 중점 육성 방안 협의 계절학기 영어강의 공동운영 방안 논의



기본에 충실한 대학, 미래를 준비하는 대학 **제주대학교**

To the Basic, For the Future

Jeju National University



MAJOR NEWS

JNU 주요 소식

LINC+사업단, 호남·제주권 최우수 선정

제주대학교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LINC+) 육성사업단(단장 강철웅, 이하 LINC+사업단)이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실시한 LINC+사업 2차년도 단계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매우 우수'를 받아, 호남·제주권 최우수 사업단으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제주대 LINC+사업단은 사업운영을 위한 전국 최대 사업비인 43억 8,000만 원을 배정받았다.

이번 평가에서 제주대는 대학의 발전계획과 산학협력 중장기 발전계획 간의 연계 강화를 위한 노력과 지역사회 문제해결 프로젝트인 'LINC+' 뿐만 아니라 '학생 아이디어 제품 판매 장' 설치를 통한 창업도전 환경 구축 및 타 지 역 대학 학생의 현장실습 교류를 통해 대학 간 연계 활동에도 주도적 역할을 담당했다는 평 가를 받았다.

제주대 LINC+사업단은 2012년 LINC사업에 선정된 이후 233억 원의 국고를 지원받아 대학의 체질을 산업계 친화형으로 변모시키고 지속가능한 산학협력 기반을 구축해 오고 있다. 또한 현장실습ㆍ캡스톤디자인 등 산업체 연계교육과정 운영과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기업기술지원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수요 맞춤형 인재양성과 제주형 강소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고있다.

LINC+Project Honam-Jeju Zone selected for superior performance

Jeju National University Community Taylormade Industry Academy Cooperation Leading University (LINC+) Development Project (Kang Cheolwoong, Director) earned the top mark of "Very Superior" rating for the Honam-Jeju Zone program as a result of the 2nd step evaluations conduc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Accordingly, the JNU LINC+Project received a renewal grant of the maximum allowed 4.38 billion won.

In the evaluations, Jeju National University earned a superior performance rating for its tying efforts with the institutional and mid/long term developmental plans as well as for the regional problem solving "LINC+Flagship Project" in terms of its planning/management model. Furthermore, the JNU project received a meritorious evaluation for its leading role in exercising the entrepreneurship, inter-

university exchange activities, and practical training through "the student idea-generated products market." The Jeju National University LINC+Project has accomplished the transformation of the university to an industry-friendly institution and has been building the foundation for a sustainable industry academy cooperation. In addition, the project has successfully provided for practical on-site training, Capstone design and other industry-affiliated education program to forge the industry's technological support, community taylor-made training and Jeju's enterprising champions' competitiveness.









SCHOLARSHIPS BY UNIVERSITY

JNU 장학제도, 현황소개

장학금으로 반값 등록금 실현

제주대학교는 다양하고 풍부한 교외 및 교내 장학금 지원으로 학부모와 학생들의 경제적 부 담을 덜고 학생들의 학습 의욕을 북돋우고 있 다. 학부기준 2018학년도 재학생 1인에 지급된 평균 장학금은 276만 8,500원, 당해 연도 재학 생 1인당 평균 등록금은 378만 2,900원. 등록 금 대비 장학금 수혜율이 73.2%다.

제주대는 학생들에게 많은 장학혜택을 주면서 장학금으로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고 있다. 특히 2018년도부터는 소득분위 8분위 이하 학생 에게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장학금 내역을 보면 교외장학금으로 국가, 지방자치단 체, 발전기금, 장학단체 등이 지원하는 장학제 도가 마련돼 있다. 67개 단체가 장학금을 지원 하고 있고 발전기금으로 출연되는 장학제도도 29개에 이른다.

교내장학금은 성적우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복지장학, 근로장학 등이 있다. 성적 향상 장학금에는 성적 경고자가 성적을 일정 수준 높였을 때 지급하는 장학금도 있다. 성적관리 위기자의 대학생활 설계를 돕고 체계적인 학습 프로그램 유도를 통해 학교생활 적응 및 학습동기를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다.한편 2018학년도 장학금 규모는 교외장학금 212억 8,840만 3,000원, 교내장학금 60억 3,896만 7,000원 등 총 273억 2,737만 원에이른다.



Halving Tuition Payment with Scholarship Fund

Jeju National University has been able to boost students' desire to learn by reducing their own and families' economic burdens through a variety of intramural and extramural scholarship supports. On the average, an undergraduate student was paid a scholarship stipend of 2,768,500 won in the 2018 academic year, while his/her tuition was 3,782,900 won, i.e. 73.2% in tuition:scholarship. Jeju National University has succeeded essentially in halving each student's tuition payment. In particular, tuition has been fully waived for a student from the family with an 8 percentile income since 2018.

In terms of scholarship breakdown, a financial system of extramural scholarships has made the funding possible through the government, regional autonomous organization, development fund, and scholarship foundations. Sixty seven organizations have provided scholarships, and the institutional

development fund has supported 29 scholarship systems. Intramural scholarships have been available to award the students of superior scholastic achievements, social welfare needs, and part-time works, etc. We also have scholarships for students who have been on probational status but have subsequently been able to raise his/her grade point average. This scholarship was established to help those students in academic difficulties and support their learning. The 2018 academic year scholarship fund amounted to 21,288,403,000 (extramural) and 6,038,967,00 won (intramural), totaling 27,327,370,000 won.

세계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표대학

충남대학교

A Leading University of Korea Leaping onto the World Stage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TIPS 및 산학협력에 관한 국제포럼 개최

충남대학교는 4월 25일, 26일 양일간 대학본 부 별관 강당에서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TIPS 및 산학협력에 관한 국제포럼' 을 개최하고 TIPS타운 및 스타트업 타운과 관련한 해외 선진사례와 활성화를 위한 지혜 를 모았다.

이번 국제포럼은 '스타트업 생태계 건설', '스타 트업 기업의 엑셀러레이션', '스타트업과 지역 혁신' 등 3개 세션의 발표가 진행됐으며 창업, 스타트업과 관련한 국내외 전문가 10명의 주 제발표를 통해 각 기관들의 성공적인 모델을 설명하고 토론을 이어갔다. 또한, 주제 발표자 들은 오덕성 총장과의 특별 대담을 통해 서로 가 나아갈 길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오덕성 총장은 대전의 4차 산업혁명 도시 프로젝트의 비전을 비춰주는 'CNU TIPS(스타 트업)도시' 주제의 기조연설을 통해 기존 대학

의 틀에서 벗어나 기업가 대학의 모델을 제시 하고 R&D로부터 사회적·경제적 가치를 창조 하는 방법을 설명했다.

오덕성 총장은 스타트업 생태계의 성장과 혁 신, 충남대-스타트업 타운을 중심으로 한 3중-나선형 모델제시, 또한 그에 따른 R&D 활동 등 의 내용들을 언급하면서 'CNU TIPS 도시 프로 젝트'의 준비와 성장 및 발전에 대한 거시적 로 드맵을 제시했다.

CNU Hosted 'International Forum of TIPS & Academia-Industry Collaboration'

CNU hosted 'International Forum of TIPS & Academia-Industry Collaboration' in the annex auditorium located at the administration building last April 25th and 26th with presenting domestic and international experts. This forum was a time for brainstorming advanced examples from overseas and ideas for implementing.

This international forum had three sessions on 'Ecosystem Construction for Startups', 'Acceleration for Startups' and 'Startups and Regional Innovation' with topic presentations from 10 domestic and international experts. They presented successful models from their organizations and institutes and had discussion on each topic. Presenters also had a special talk on further strategies with the president of CNU, Oh Deogseong afterwards.

Oh Deogseong, the president of CNU gave a keynote speech on 'CNU TIPS City' which suggests ideal models for universities out of the conventional framework and strategies for social and economic value from R&D by explicating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of Daejeon city.

He also mentioned a wide range of activities for a macro roadmap in terms of fostering and developing 'CNU TIPS City Project' along with suggesting a triple-spiral model oriented with CNU-Startup town, growth and innovation of









SCHOLARSHIPS BY UNIVERSITY

CNU 장학제도, 현황소개

대한민국 기부의 효시 '김밥 할머니' 정신 이어받은 '정심화장학회'

충남대학교는 대한민국 기부문화의 효시가 된 정심화 이복순 여사의 뜻을 받들어 1991년부터 '정심화장학회'를 운영하고 있다.

'김밥 할머니'로 잘 알려져 있는 故 정심화(正心 華) 이복순(李福順) 여사는 김밥 판매와 여관 경 영으로 평생 근검절약해 모은 현금 1억 원과 50 여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1990년 충남대에 기 부했다. 이복순 여사의 행동은 '평범한 사람의 위대한 기부'로 불리며 당시 사회에 커다란 반 향을 일으켰으며, 대한민국 기부문화의 효시로 평가받고 있다.

충남대는 이 기부금을 토대로 1991년 1월 '충남 대학교정심화장학회'를 만들었고, 이복순 여사 는 92년 8월 7일 향년 79세의 일기로 별세했다. 충남대는 이복순 여사의 기부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2000년 '정심화국제문화회관'을 건립했 으며, 지난 27년간 402명에게 6억 6,000여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해 오고 있다.

'김밥 할머니'의 기부정신은 이복순 여사와 생 전 각별한 인연이 있었던 '포목점 주인' 성옥심 여사(2015년 12월), 삶이 다할 때까지 학생들의 뒷바라지를 약속한 '말단 공무원' 함정옥 선생 (2010년 3월), 기구한 삶의 마지막에 전 재산을 기부한 '식당 아줌마' 故 이영숙 여사(2018년 2 월)로 계승되고 있다.

Jeong·Sim·Hwa Scholarship Foundation in the spirit of Gimbap Grandma who was the pioneer in donation in South Korea

CNU has run Jeong·Sim·Hwa Scholarship Foundation since 1991 taking over a good will of Jeong Sim Hwa Lee Bokssun who was the pioneer in donation of South Korea.

The late, Mrs. Jeong Sim Hwa, Lee Bokssun who was well known as Gimbap (Korean rice roll) grandma donated KRW 100 million (USD 85,000) in cash and real estate worth KRW 5 billion (USD 4.250.000) which she had saved her lifetime to CNU in 1990. Her donation had

caused great repercussions in society so called 'great donation of an ordinary person and was considered as the beginning of the culture of donation in Korea.

CNU established CNU Jeong·Sim·Hwa Scholarship Foundation in January 1991 with her donation. The late Mrs. Lee Bokssun passed away on August 7th, 1992 at the age of 79.

CNU had constructed Jeong·Sim·Hwa International Cultural Center in the year of 2000 to inherit the spirit of Mrs. Lee Bokssun and provided scholarship to 402 students with KRW 660 million (USD 550,000) for last 27 years.

The donation spirit of Gimbap (Korean rice roll) grandma has been succeeded to Mrs. Seong Okssim (2015, December) who was an owner of a linen shop with a special bond with Mrs. Lee Bokssun and Mr. Ham Jeongok (March, 2010), the minor government official who made a lifetime commitment for taking care of students until life is over and the late Mrs. Lee Youngsuk (February, 2018) who donated all of her whole fortune at the end of her unfortunate life.











28 29

함께 여는 역동적 미래 **충북대학교**

A Dynamic Future that We Will Open Together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MAJOR NEWS

CBNU 주요 소식

가정의 달 반려동물과 함께 즐기는 연휴! '반려동물 한마당' 개최

충북대학교가 가정의 달을 맞아 5월 5일 반려 동물 한마당을 개최했다. 동물의료센터가 주 최하고 수의대 'AND YOU' 학생회가 주관한 올해 반려동물 한마당에서는 반려동물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개 좋은 콘서트', 동물행동 교 정 펫티켓 강연, 일일 수의사체험, 반려견 달리 기 대회, 행운의 빙고, 반려견과 미니게임 등 다 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뿐만 아니라 동물의료센터 의료진의 반려동물 무료 건강검진과 무료 미용 서비스, 페이스페 인팅, 반려동물과 함께 사진 찍기, 동물 목걸이 만들기, 동물부채 만들기 등 다양한 부스 행사 도 함께 운영됐다.

1991년 이래로 매년 개최돼 올해로 29회째를 맞이한 이번 행사에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많 은 지역주민들의 참여로 성황리에 마무리됐 다. 특히, 수의과대학 설립 30주년을 맞아 동 문 홈커밍데이 및 어울림 한마당 행사 등 동문 및 수의과대학 전 구성원이 즐길 수 있는 축제 의 마당으로 구성됐다. 한편, 수의대는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동물의료센터 학교기업지원 사업, BK21 플러스 사업, 동물의학연구소 중점연구소 후속과제, 특성화 사업 및 해외우수기관 유치사업 선정 등주요 국책과제를 수행하며 교수의 연구역량강화는 물론, 학생들의 교육여건 개선 등에 눈부신 발전을 이룩해 왔으며, 2016년부터 4년간 수의사국가시험 100% 합격은 물론, 전국최상위 취업률 등명실상부한 중부권최고의대학으로 거듭나고 있다.

Holiday with Pets in Family Month at CBNU! 'Hdd Companion Animal Festival'

To celebrate family month, CBNU held a companion animal festival on May 5th. It was hosted by CBNU Veterinary Medical Center and run by 'AND YOU,' a student council of the Veterinary Medical College. There were many programs like a 'Gaejoeun' (Great) Concert, a lecture on petiquette: animal behavior modification, an one-day vet experience, a pet race, lucky bingo, mini games with pets, etc.

In addition, there were various kinds of booths like free health checks from medical staff of

CBNU Veterinary Medical Center, free pet beauty treatment, face painting, taking pictures with pets, making collars for pets, making animal-printed fans, etc.

This festival has been held for 29 years since 1991 and many local people really enjoyed it with their pets. Especially, this year Veterinary Medicine College celebrated its 30th anniversary. So the festival added special events like Alumni Homecoming Day and 'Oulim Hanmadang,' which could be enjoyed by all members of the vet college as well as its alumni.

Although CBNU Veterinary Medicine College has a little short history, it has carried out major nationally-funded projects such as School-Based Enterprise Support program of Veterinary Medical Center, BK21 plus project, Priority Research Center Program, CK (University for Creative Korea) project, Overseas excellent institution inducement project, etc. Thus, it has successfully strengthened research capability of professors and improved the educational environment of learning. Moreover, as the best college in the middle area, 100 % of the students have passed the state examination to work as a veterinarian and also got the highest employment rate around the country since 2016.









SCHOLARSHIPS BY UNIVERSITY

CBNU 장학제도, 현황소개

너의 끼를 펼쳐봐! 호기심·끼 장학금으로 학생들의 열정 지원

충북대학교에서는 미래사회를 대비해 다양한 분야의 재능을 겸비한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호기심·끼 장학생'을 지원하고 있다.

호기심·끼 장학생 제도는 학생들을 꾸준히 지원해 개인의 꿈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 미래사회를 대비해 다양한 분야의 재능을 겸비한인재를 개발하고, 더 나아가 사회를 이끄는 리더로 육성시키기 위한 제도다.

학생들은 문화 예술분야 뿐만 아니라 로봇, 드론, 무인 자동차, 앱 개발 등 미래 4차 산업분야를 선도하는 분야에서 1년간 지원받으며, 자신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자유롭게 연구하고, 도전한다.

학생들은 호기심·끼 장학금을 기반으로 온라인 문화콘텐츠 개발, 유튜브 1인 크리에이터 모임 운영, 청춘토크쇼 진행, 자동 냉난방 기능이 작 동하는 프로그래밍 코딩, 스마트카의 사고방지 프로그램 개발, 로봇 개발 등 다양한 콘텐츠 개 발을 통해 자신의 끼를 발산하고 있다.

전자공학부의 한 학생은 스마트카의 안전성을 위해 실제 사고 상황을 모델링해 시뮬레이션을 하고, 이를 기반으로 스마트카 실험 경진대회 설계 프로젝트에 출전, 논문을 쓰는 등 본인이 배우고 싶은 분야에서 경험을 쌓고, 더 나아가 졸업 작품으로 발전시켜 우수한 작품을 선보이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관련 분야의 자격증까지 취득해 자신의 경력을 쌓기도 했다.

로봇 연구에 대한 열정을 불태운 팀도 있었다. 이 번 장학금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시뮬레이션하 고, 이전 경기에서 생긴 문제점들을 보완한 결과 로봇 경진대회에서도 점차 좋은 성적을 거뒀다. 한편, 호기심·끼 장학금은 지난 2017년부터 대신정기화물자동차 오흥배 대표이사가 지속 적으로 장학기금을 기탁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호기심장학생'들을 선발해 운영해오고 있다. 이번 2019학년도 호기심·끼 장학생에는 10명의 학생을 선발해 한 해 동안 지원하며, 현재까지 20명의 학생들이 지원을 받아자신의 꿈을 키우고 있다.

Show Your Talent at CBNU! supports Students'Passion with Curiosity & Talent Scholarship

CBNU has chosen and supported "curiosity & talent scholarship students" to find men of talent in various fields and thus make them prepare for the future.

Curiosity & Talent Scholarship helps students to achieve their dream with steady support, making them men of talent in various fields and even leaders in the next generation.

Students can be supported for a year in the leading fields of the 4th future industry, such as robotics, drone, self-driving car, application development as well as the fields of culture and arts. They will research and challenge freely to achieve their 'dream.'

With this scholarship, students have carried out so many things, like developing online cultural contents, managing a Youtube individual creator club, hosting a youth talk show, coding automatic air conditioning and heating programming, developing the accident prevention program of a smart car, developing robots, etc.

For example, a student in School of Electronics Engineering did simulate by modeling various situations of real car accidents to acquire safety of a smart car. With the results, he attended the smart car experimental competition and made proposals for a design project. He also wrote a paper and got a license in a related field. Like these, he could get a lot of experiences in the fields that he wanted to learn. Therefore, he was able to submit an excellent graduation work.

There was a team dedicated to robot research. With this scholarship, they could keep simulating and compensating the problems from previous competitions. So, the team was able to get gradually improved results at robot competitions.

Meanwhile, Curiosity & Talent Scholarship has been operated with scholarship fund that has been donated by 0h Heungbae, CEO of Dae-shin Regular Freight Service since 2017. In 2019, a total of 10 students will be able to receive the scholarship for a year. And so far, 20 students are trying to make their dreams come true with it.



통일한국의 중심대학 **강원대학교**

The Hub University of the Unified Korea

Kangwon National University





강원대, 군장병 취·창업 지원 '강원 열린군대' 사업 추진

강원대학교는 강원도, 육군 2군단과 손잡고 제대 장병의 취·창업과 지역 정착을 돕는 '강원열린군대' 사업에 나섰다. 이들 3개 기관은 지난5월 2일 강원대캠퍼스 산학단지 내 'KNU스타트업 큐브'에서 군장병취·창업 지원프로그램인 「강원열린군대」 출정식을 갖고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사업은 세기관이 상호 협력해 강원도 내역량 있는 군장병들에게 취 창업 관련 교육 기회를 제 공하고,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오는 11월 까지 육군 2군단 소속 장병 70명을 대상으로 ▲ 드론 ▲앱(App) 개발 ▲3D 프린터 ▲AR(증강현 실) 및 VR(가상현실) 등의 교육을 진행한다.

특히, 강원도와 2군단은 군장병 교육생들이 전역 후취업할 수 있도록 일자리 정보 및 지역기업과의 매칭 서비스를 제공하고, 복무경험과전문성을 발휘해 창업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강원대는 'KNU 스타트업 큐브'를 교육 및 창업공간으로 제공하고 진로 컨설팅, 첨단지식산업 맞춤형 직업교육 훈련, 창업 강좌 및 창업 아이템 사업화 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또한 오는 2024년까지 춘천 도심 내 군부대 유 휴부지(약 2만 6,000㎡)에 '군 취·창업 클러스터'도 조성하기로 했다. 이곳에는 군 창업실험실과 BI(창업보육)센터, 아파트형 공장인 Post-BI센터 등이 들어선다.

이와 함께, '스타트업·벤처투자펀드 조성', 'BTL 창업사관학교 운영' 등의 입주기업 지원 프로 그램, '강원도 제대군인정착 지원센터 학내 이 전'을 통한 군장병 교육훈련·진료교육에 나설 예정이며, 내년부터는 해군과 공군을 비롯하 여 전국적으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KNU's 'Gangwon Open Military' Program Supports Soldiers in Employment Searches and Business Startups

Kangwon National University (KNU), in cooperation with Gangwon Province and the Army Second Corps, is implementing a program called 'Gangwon Open Military.' The aim of the program is to support discharged military personnel in finding employment or starting up businesses, and assisting them in settling in the region.

On May 2nd, the three organizations held the opening ceremony of 'Gangwon Open Military' at the KNU Startup Cube, which is located in the industrial-academic complex of KNU. They officially signed off on a business agreement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gram during the ceremony.

The program provides educational opportunities related to recruitment and startup ventures for qualified soldiers within Gangwon Province. The purpose of the program is to help them settle in Gangwon.

Programs in the following areas are available: ▲Drone; ▲App Development; ▲3D Printing; and ▲Augmented Reality (AR) and Virtual Reality (VR). These programs will be open for 70 soldiers at the Army Second Corps until November.

Specifically, Gangwon province and the Army Second Corps offer job opportunities and matching services with local enterprises, in order that military personnel can be hired after they are discharged. Additionally, they are planning to provide startup support

services based on applicant's military experience and expertise.

To help achieve this, KNU developed the 'KNU Startup Cube,'an educational space that offers the following: career consulting,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customized for advanced-tech and the knowledge industry, startup lectures, and support for business startups.

Furthermore, KNU is planning to build a 'Military Employment-Startup Cluster' at an idle site (with an approximate area of about 26,000m²) on the military camp within the Chuncheon downtown area by 2024. Here, a startup research center, business incubator (BI) and Post-BI center, and a factory will be constructed.

Finally, support programs for moved-in firms including 'Startup-Venture Investment Funding' and 'Operation of BTL Startup Military Academy' as well as education/training and vocational training for military personnel such as 'Relocation of Gangwon Veteran Support Center' will be organized.

The program will be expanded throughout the nation next year. The navy and air force will also participate in the program from next year.









SCHOLARSHIPS BY UNIVERSITY

KNU 장학제도, 현황소개

강원대, 실사구시형 인재 양성을 위한 차별화된 장학제도 운영

강원대학교는 학생 친화적이며 수혜자 중심의 다양한 장학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재학생 의 장학금 수혜 비율은 2017년 기준 91.8%이 며, 1인당 장학금 수혜액은 294만 원에 이른다. 특히, '실사구시형 인재' 양성에 요구되는 핵심 역량인 '실천·미래·창의·인성·협동'을 배양하기 위한 차별화된 장학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KNU 핵심역량 장학금 ▲미래석사 장학금 ▲ 학부연구생 장학금 ▲백송 장학금 ▲정범구 호 국장학금이 대표적이다.

'KNU 핵심역량 장학금'은 학생들의 역량 개발을 지원하는 맞춤형 장학금이다. ▲연속 2회학사경고자 중 성적향상자 ▲국가고시 합격자 ▲한자·컴퓨터·한국어 자격 취득자(비전장학금) ▲ 어학성적 우수자 ▲대회 입상자 ▲봉사 및 현혈 우수자 등에게 지급하고 있다. 이 가운데 '비전장학금'은 강원대 학생이 직접 설계하고 고안한 제도로, 2017년 '개교 70주년 기념 장학금 공모전'을 통해 최우수로 선정된 장학금이다.

'미래석사 장학금'과 '학부연구생 장학금'은 대학원을 준비하는 학부생에게 생활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대학원 진학을 장려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학생들은 등록금 부담 없이 학업을계속할 수 있고, 대학은 대학원 우수 인재를 유치함으로써 교육역량을 강화하는 시너지 효과를 얻고 있다.

'백송 장학금'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학업에 정 진하는 우수인재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으로 향 토기업가의 기부금으로 조성됐다.

'정범구 호국장학금'은 천안함 사고로 순직한 故 정범구 병장의 모친이 정부 보상금 전액을 기부금으로 기탁해 조성된 장학금이다. 국가유 공자 또는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해 고인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학교 사랑의 정신을 이어 나가고 있다.

KNU Runs Differentiated Scholarship Programs to Nurture Talent of Empirical Tradition

Kangwon National University (KNU) has a wide range of student-friendly and beneficiaryoriented scholarship programs. 91.8% of the enrolled students received a scholarship as of 2017, with the amount of scholarship awarded per student being 2.94 million won. In particular, KNU operates differentiated scholarship programs for development of 'practice/future/creativity/personality/cooperati on' which are core competencies required to nurture talent of empirical tradition. KNU is pleased to offer the following scholarship programs: A KNU Core Competence Scholarship A Future Master Scholarship ▲ Undergraduate & Research Student Scholarship

Baeksong Scholarship and the ▲ Jeong Beomgu Memorial Scholarship.

'KNU Core Competence Scholarship' is a customized scholarship program that supports the skills building of our students. The scholarship is granted to those ▲ with improved GPA scores among those with academic probation two times in a row; ▲ who passed the national exams; ▲ qualified with certificates of Chinese characters, computer and/or Korean language (Vision Scholarship); ▲ listed in the dean's list of language fluency; ▲ who have received awards in contests; and ▲ those engaged in volunteering and blood

donation activities. Among these is the 'Vision

Scholarship, a program in which KNU students

are involved in designing. This was awarded a prize for excellence at the 'Scholarship Contest Celebrating KNU's 70th Anniversary' in 2017.

The 'Future Master Scholarship' and 'Undergraduate and Research Student Scholarship' are meant to support the cost of living of undergraduate students preparing to apply for graduate school. Without having to worry about tuition fees, students will be encouraged to continue studying and KNU can attract competent students to strengthen its educational capacity.

The 'Baeksong Scholarship' is a scholarship program for the talented who devote themselves to study under difficult surroundings, and is funded by entrepreneurs from rural areas.

The 'Jeong Beomgu Memorial Scholarship' is a scholarship program funded entirely by the mother of Sergeant Jeong Beomgu, who died in the Cheonan warship incident. She has graciously donated all of the government's compensation in her son's memory. The scholarship is awarded to a person of national merit or his/her children in order to pay tribute to the spirit of patriots and express love for their school.

세계를 주도하는 첨성인, 미래를 선도하는 **경북대학교**

Creating New Trends and Setting New Standard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KNU 주요 소식

인문한국플러스 사업 최종 선정 최대 7년간 87억 5.000만 원 지원

경북대학교가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2019 년 상반기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인 '인문한국플러스(HK+1유형) 사업'에 최종 선정 됐다. 이번 사업 선정으로 경북대 인문학술원 은 '동아시아 기록문화의 원류와 지적 네트워 크 연구' 사업을 추진하며, 연간 12억 5,000만 원씩 최대 7년간 총 87억 5,000만 원의 사업비 를 지원받는다.

종이가 보편화되기 이전 동아시아 지역의 기록 자료인 죽간(竹簡) 또는 목간(木簡) 자료에 대 한 종합적 연구로, 지금까지 동아시아 죽·목간 전체를 아우르는 종합적 연구가 시도된 점이 없다는 점에서 이번 연구는 학술사적으로 각별 한 의미를 갖는다. '동아시아 기록문화의 원류 와 지적 네트워크 연구'는 역사학, 한국어문학, 고고인류학, 철학, 고문자학, 서지학, 사전학 등 분과학문 전문연구자 간 경계를 넘는 학제적 연구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인문한국플러스사업'은 대구경북 지역에 서 진행되는 최초의, 그리고 최대 규모의 인문 학 연구 사업이라는 점에서 영남지역 인문학맥 의 불씨를 일구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 대된다.

한편 경북대는 인문학 연구 성과를 일반 대중에게 환원하기 위해 '지역인문학센터'를 설치하고, 대구·경북 지역민 대상으로 인문학 강의를 비롯한 다양한 인문학 관련 프로그램을 실시할 계획이다.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KNU) Selected for HK+ Project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hereafter KNU) has been selected for the Humanities Korea+1(HK+1) project, which is an academic research support project established by the Korean Ministry of Education and the Korea Research Foundation.

As part of this project, the *KNU Institute of Humanities Studies* will instigate a 'Study on the Origin of Archival Culture in East Asia and Its Intelligent Network', and will be funded 1.25 billion Korean won yearly for a maximum of 7 years (totaling 8.75 billion won). This research holds significant importance as it is an unprecedented, comprehensive study focusing on bamboo and wood-based archives that existed before paper became a universal means of recording information in the East Asian region.

The Study will be conducted as an interdisciplinary research project with no borders between academic researchers who specialize in various branches of academics including history, Korean literature, archaeology, philosophy, paleography, bibliography and lexicography.

As the first and largest scale research program of its kind in the field of humanities in the Yeungnam area, the 'HK+ Project' is expected to kindle further academic studies of liberal arts in the area.

In order to share the findings of the research with the general public, KNU will establish the *Regional Humanities Research Center*, and provide various liberal arts programs including special lectures on humanities.









SCHOLARSHIPS BY UNIVERSITY

KNU 장학제도, 현황소개

능력 있는 경대인을 위한 다채로운 장학제도 마련

경북대학교가 해마다 765억 원이 넘는 장학금 을 재학생에게 지급하고 있다.

경북대는 매학기당 500만 원의 학업지원비가 지원되는 KNU+인재장학금부터 도전 장학금, 성적우수장학금을 비롯한 다양한 기준의 등록 금 감면 장학제도는 물론 재학생 개개인의 능력과 장기를 평가한 KNU 국가고시 장학금과 우수 연구장학금 등을 지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학부 졸업 후 해외 명문 대학의 대학원에 진학하는 졸업생에게 '글로벌 100 진학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재학생들에게 도전의식을 자극하는 다채로운 방식의 장학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다양한 능력을 갖춘 재학생들을 위한 교외장학 금도 많다. 특히 계약학과인 모바일공학 장학 금, LG디스플레이와 함께 하는 Track 장학금 등 기업과 함께하며 취업과 연계한 장학제도가 눈 에 띈다.

경북대는 자기계발 못지않게 이웃사랑을 실천 하며 인류애를 체득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장학금 지급에도 적극적이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기업과 함께 진행하는 '삼성드림클래스' 와 'H-JUMP 스쿨멘토링'. 경북대 재학생들은 방학기간 혹은 학기 중에 정해진 시간만큼 청소년에게 맞춤형 학습 지도 및 정서적 멘토링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장학금을 지원받는다. 재학생들은 이 장학제도 프로그램에 참가해 경제적 지원을 받는 것은 물론 자신의 재능을 나누고, 더불어 사는 삶의 가치를 배우는 기회를 가진다.



Various Scholarships for KNU Student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hereafter KNU) provides a wide range of scholarships to KNU students, amounting to over 76.5 billion won in financial aid every year.

In order to stimulate the spirit of challenge among students, KNU provides a wide range of scholarships, from KNU+ Super Star Scholarships, Challenge Scholarships, and academic achievement scholarships, to differential tuition exemption (applied by various criterial, KNU national exam preparation scholarships, and scholarships for excellence in research. In addition, undergraduate students who advance to top graduate schools overseas are awarded the Global 100 Advancement Scholarship.

A number of external scholarships are also available in connection with supporting student employability, including the Mobile Engineering Scholarship given to students in the Mobile Engineering contract department and LG Track Scholarships offered by LG Displays.

Not only focusing on self-development, scholarships are also available for those who serve in various communities. Good examples are the Samsung Dream Class and 'H–JUMP' School Mentoring scholarships, which are run in cooperation with private enterprises. In this program, students participate in customized study and student mentoring programs and receive scholarships in return. Participants say that they find joy by sharing their talents and learn life values through living together with their neighbors while receiving financial aid.

미래가 있는 대학, 다 함께 행복한 대학 SMART GNU 경상대학교

The University with a Promising Future and Full of Happiness! SMART GNU







대학원생의 학문 축제 젊은 개척연구자의 날 전국 대학 중에서 유일 우수연구자 72명 수상

경상대학교는 5월 16일 '제19회 젊은 개척연구 자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5월 13일부터 17일 까지 1주일간은 경상대의 젊은 개척연구자 주 간으로, 그중 5월 16일은 젊은 개척연구자의 날이다.

이 행사는 대학원생의 연구의식을 고취하고 우수한 연구성과를 격려하며 다양한 학술행사 를 개최함으로써 연구중심대학으로 성장하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2010년 처음 개최했다. 이후 해마다 1, 2학기에 전체 대학원생이 함께 하는 한마당 축제를 펼쳐 왔다. 전국에서 대학 원생을 위한 학술 행사를 개최하는 대학은 경 상대가 유일하다.

경상대는 이 행사를 통하여 '진리를 향한 열정', '기존의 관점과 방식을 벗어난 비판정신', '고난 과 역경을 견뎌내는 인내', '과정의 적합성과 결 과에 대한 겸손함'을 가르친다.

젊은 개척연구자의 날 행사에서는 국내외 학술지에 우수논문을 게재한 대학원생 72명이 상을 받았다. 나노신소재융합공학과 석박사통합과정을 수료한 박광훈 씨, 응용생명과학부박사과정을수료한사예드이브라알람(SAYED IBRAR ALAM) 씨, 교육학과 박사과정 조정미씨 등 3명은 최우수상을 받았다.

이상경 총장은 대학원생들에게 "비록 학문은 이루기 어렵지만, 좌고우면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면 오르지 못할 나무도 아니라는 사실 을 기억하라."고 당부했다.

Academic Festival of Graduate Students Young Pioneer Researchers' Day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GNU) held the events of the 19th Young Pioneer Researchers' Day on May 16th.

GNU designated the Young Pioneer Researchers' Week from May 13th to 17th, and the Young Pioneer Researchers' Day on May 16th during this week.

This event was first held in 2010 to provide the base frame from which GNU could grow into a research-oriented university. In order to do so, GNU has tried to inspire graduate students' passion for research, encourage quality research achievements, and hold various academic events. Since then, GNU has held a semiannual festival in each semester, where all graduate students can come together. In Korea, GNU is the only university who holds an academic festival for graduate students.

Through this event, GNU teaches 'passion for the truth; spirit challenging the existing views

and methods; perseverance overcoming hardship and adversity; as well as appropriateness of processes and modesty regarding outcomes:

On the Young Pioneer Researchers' Day, 72 graduate students received the awards for publishing their excellent papers in domestic and foreign academic journals. Among them, three individuals received the best paper award: Park Gwanghun who completed his combined master and doctoral program of the nano material convergence engineering department; Sayed Ibrar Alam who completed his doctoral program of the applied life science department; and Jo Jeongmi who is in her doctoral program of the education department.

President Lee Sanggyeong sincerely asked graduate students to remember the fact that "although one's academic goal is not easy to achieve, if he persistently puts his effort into it without losing his focus, no goal is too high to reach."









SCHOLARSHIPS BY UNIVERSITY

GNU 장학제도, 현황소개

등록금의 72% 이상 장학금으로 되돌려준다 110여 종의 교내외 장학금… 탄탄한 디딤돌

경상대학교는 학생들의 꿈을 실현시켜 주기 위한 탄탄한 디딤돌인 장학제도를 체계적으로 운영하다.

교내 장학금 26종(GNU 리더스 장학금 등), 교 내 장학재단 장학금 6종(김순금 장학재단 장학 금 등), 교외 장학금 83종(농어촌희망재단 장학 금 등), 기타 국가장학금 등 100여 종을 운영 중 이다.

학생 1인당 장학금은 275여만 원으로 학생들이 낸 등록금의 72.3%를 장학금으로 되돌려준다. 학생들이 받는 장학금 총 금액은 379억 3,700 여만 원이나 된다.(2017학년도 기준)

장학금의 원칙은, 가정 경제가 어려운 학생을 돕고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혜택을 부여하여 교육의 내실화 선진화를 기한다는 것이다.

교육 내실화와 선진화에 대비하여 인문 100년 장학금, 우수 신입생 특별장학금, 재학생 영어 능력 향상 장학금을 지급했는데 2018년에는 4 억 5,300원이다. 소수집단 재학생(장애학생, 외 국인 유학생, 북한이탈학생)에게는 1억 7,300여 만 원을 지원했다. 비교과 활동을 성실하게 이 수하는 학생에게도 장학혜택을 부여한다. 2018 년 2학기에만 489명이 2억 1,000여만 원의 혜 택을 받았다.

독지가가 설립한 장학재단도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 가령, 김순금 장학재단은 2007년부터 12년 동안 305명에게 5억 1,36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해 '근면 성실한 학생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데 기여했다.

More than 72% of Tuition Reimbursed as a Scholarship Steppingstone Solidified by More than 110 GNU and Outside Scholarships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GNU) systematically offers more than 100 scholarships as a solid steppingstone that can help students actualize their dreams.

This includes 26 campus scholarships such as GNU Leaders; 6 from GNU's scholarship foundations such as the Kim Sungeum Foundation; 83 outside scholarships such as the Hope Foundation for Farming and Fishing Villages; as well as other national scholarships.

The amount of scholarship is about 2.8 million Won per student. This means 72.3% of the tuition a student paid can be reimbursed in a form of scholarship. In the academic year 2017, a total scholarship amount granted to GNU students was about 38 billion Won.

In principle, a scholarship is designed to advance and reinforce education by helping students whose family has a financial difficulty and by providing benefits for those demonstrate their academic excellence.

To respond to advancement and reinforcement of education, GNU granted a total scholarship amount of more than 453 million Won in 2018, including its '100 Years of Humanities' scholarship; special scholarship for academically qualified freshmen; and scholarship for the current students to improve their English skills. A scholarship amount of 173 million Won was also given to the currently enrolled students of minority groups such as the disabled, North Korean defectors, and international students. Students with outstanding extracurricular activities also received a scholarship. Just in the second semester of 2018, about 489 students benefited from this scholarship of more than 210 million Won.

Charitable foundations established by philanthropists have also been a great help to students. For example, the Kim Sungeum Scholarship Foundation has granted about 514 million Won to 305 students over the past 12 years starting from 2007. This foundation has certainly contributed to GNU so that "diligent and earnest students would not have to give up their university education due to a financial difficulty."



학생의 미래가 있는 대학,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대학 부산대학교

A University Guided by the Future of Students, A University Loved by the People **Pusan National University**





개교 73주년 부산대 롯데 프로야구 매치데이 학생·교직원과 시민 등 1만 명 대규모 개최

2019년 개교 73주년을 맞은 부산대학교가 구성원 화합과 대학-도시의 상생발전을 위한 롯데 프로야구 응원전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번째로 마련해 또 한 번 뜨거운 젊음의 함성을 울렸다.

「2019 효원한마당: 부산대-롯데자이언츠 매치데이」 행사는 5월 14일 오후 부산 사직야구장에서 열린 롯데자이언츠와 LG트윈스 팀의 2019 KBO리그 홈경기에서 진행됐다. 지난해참가인원 5,000여 명의 2배 규모인 1만 석을가득 메운 부산대 구성원들은 시민들과 한데어우러져 소통의 장을 만들었다.

전호환 부산대 총장은 "73년을 이어 온 우리 대학의 뜨거운 열정과 노력, 시민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에 힘입어 부산대는 더욱 많은 발전과 성장을 이뤄갈 것"이라며 "부·울·경 동남권이 힘을 합쳐 수도권에 상응하는 또 하나의지역 거점이자 지역균형발전의 허브가 되도록부산대가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에 앞서 부산대 합창단 45명과 다문화 가정 멘토링 프로그램으로 운영돼 온 부산대 효원 레인보우 오케스트라 단원 5명이 함께 무대에 올라 애국가를 부르는 뜻깊은 하모니가 연출됐다. 시구와 시타는 전호환 부산대 총장과 조한수 부산대 총학생회장이 했다.

부산대는 총학생회와 함께한 응원문구 공모전을 통해 '개교 73주년 기념'으로 73명에게 야구장 간 식을 제공하고, 기념티셔츠를 제작해 야구장 현 장에서 나눠주는 등 축제 분위기를 더했다.

10,000 members of PNU Celebrated the University's 73rd Anniversary at a Cheering Event for Lotte Giants

Pusan National University (PNU) held "the 2019 Hyowon Hanmadang: PNU-Lotte Giants Match Day" to celebrate its 73rd foundation anniversary. This event promoted member unity and the win-win development of PNU and the city Busan for the second time following the last year.

The cheering event for the professional baseball club Lotte Giants based in Busan was held at the May 14th KBO League game between the Lotte Giants and LG Twins at Sajik Baseball Stadium, Busan. Members of PNU filled 10,000 seats. This was twice the attendance of the event last year. PNU members had the chance to communicate with the public at this venue.

"PNU will achieve more development and growth with the cumulative enthusiasm and

effort of 73 years, and the constant interest and love of the citizens," said Chun Hohwan, president of PNU. "PNU will play a role in the mission to ensure that universities in the southeastern region– Busan, Ulsan, and Gyeongsang Province –become another regional base corresponding to the metropolitan area and a hub for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Prior to the game, 45 members of the PNU Choir and 5 members of the PNU Hyowon Rainbow Orchestra, which operates as a multicultural family mentoring program, created beautiful harmonies by singing the national anthem. The 1st ceremonial pitch was thrown by the president of PNU, and the 1st atbat by Cho Hansoo, student council leader of PNU.

The university added to the festive atmosphere by offering free snacks to 73 fans selected in a cheering competition held by the Student Union to commemorate its 73rd anniversary. Also, participants were given commemorative red T-shirts at the venue.









SCHOLARSHIPS BY UNIVERSITY PNU 장학제도, 현황소개

등록금 반값, 10명 중 8명 장학생 입학우수 4년 등록금 면제 학업장려금 지원

부산대학교는 2009년 이후 11년째 등록금을 동결해 오고 있다. 2019년 현재 부산대 등록금 은 평균 218만 원으로, 400만 원을 상회하는 서울 사립대 등록금의 절반 수준이다.

지난해 학생 장학금 수혜율은 82%로, 10명 중 8명이 장학금을 받았다. 연간 재학생 1인당 장학금액은 281만 원을 넘어섰다.

등록금재원 장학금, 국가장학금과 더불어 장학 법인·동문회 등 외부장학금과 삼성복지재단 등 130여 개 재단장학금이 마련돼 있다.

등록금재원 장학금은 입학성적우수특별장학 금, 성적우수장학금, 학업지원자학금, 근로봉사 장학금, 형제자매장학금 등이 있다. 이 중 부산 대의 대표적인 신입생 입학성적 장학금인 'Premier 장학금'은 수능성적 우수 학생들을 대상으 로 매 학기 등록금 전액을 면제해 주고, 학업장 려금 300만 원을 지원하는 큰 혜택이 있다. 대 학생활원(기숙사) 우선 배정, 해외 장·단기 파 견, 해외봉사·체험프로그램 선발 시 우대 혜택 도 받을 수 있다. 학부과정을 마치고 일반대학 원에 진학할 경우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또 부산대는 (재)부산대학교발전기금을 운영 하며 남안장학금 등 46개 장학금과 기부자가 지정한 학과의 재학생을 지원하는 기관지정목 적장학금 등 다양한 장학제도를 갖추고, 개인 별 특성과 상황에 맞는 장학혜택을 제공하고 자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PNU Tuition Fees are Half of Private Colleges, Offers Scholarships for 8 out of 10 Students, Waives 4-year Tuition for Excellent New Comers, and Offers Academic Subsidies to Those in Need

Since 2009, PNU has had an 11-year freeze on tuition fees. As of 2019, PNU tuition fees average cost is 2.18 million Korean won. This is half of Seoul private college tuition fees which typically exceed 4 million won.

Last year, the scholarship beneficiary rate was 82 percent, so more than eight out of ten students received scholarships. The annual average amount exceeded 2.81 million won per student.

In addition to scholarships for tuition fees and national scholarships, there are more than 130 other scholarships, including scholarships offered by the Korea Student Aid Foundation, alumni associations, and the Samsung Welfare Foundation.

Scholarship funding for tuition fees include special scholarships for excellent admission, excellent grades, academic support, working service, and students with siblings. For example, the Premier Scholarship, is offered to freshmen at PNU. This scholarship benefits recipients by exempting all tuition fees for each semester and a further 3 million won in academic incentives. They are also given priority for dormitory places, overseas short-term dispatches, and overseas service and experience programs.

PNU also runs the PNU Development Fund and has 46 scholarships, including the Naman Scholarship, and scholarships supporting students in specific departments designated by donors. PNU is making continuous efforts to improve the quality of administrative services in order to provide scholarship benefits tailored to individual characteristics and circumstances.

세계사적 소명을 실천하는 창의적 지식공동체

서울대학교

A Community of Knowledge and Creativity

Seoul National University



MAJOR NEWS SNU 주요 소식

천 명의 한 목소리, 'Sing, SNU! 천인만창' 개최

서울대학교 봄 축제의 마지막 날인 5월 2일 오 후 6시, 교수, 학생, 직원 등의 학내 구성원 1,000 여 명이 한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공동체 의 미를 되새기는 자리가 마련됐다.

관악캠퍼스 학생 잔디에는 참가자들이 보라색 반소매 옷을 맞춰 입고 중앙 무대에 오른 서울 대합창단과 교수합창단, 교직원합창단 등 10 개 단체 소속 연합합창단 200여 명과 함께 무 한궤도의 '그대에게',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 계' 등 대중가요 6곡을 합창했다.

이날 행사는 방송사 오디션프로그램인 팬텀싱 어 우승자 김현수 동문(성악과)의 사회로 해당 프로그램에 함께 출연했던 서울대 동문들이 특별 출연 했으며, 오세정 총장, 도정근 서울대 총학생회장, 조철원 서울대 교수협의회장, 박 종석 서울대노조 위원장 등 학내 단체 대표들 도 함께했다.

현장 참여가 어려운 구성원들을 위해서는 실 시간 유튜브 스트리밍 채널도 운영했으며 온 라인을 통해 관악캠퍼스 구성원뿐만 아니라 평창캠퍼스, 연건캠퍼스, 멀티캠퍼스 등에서 다양한 구성원이 참가했다.

가수 김연자의 트로트 곡 '아모르 파티'가 시작 되자 학생들이 춤을 추며 교수들도 박자에 맞 춰 어깨를 들썩이기도 했고, 마지막 곡이었던 '홀로아리랑'에서는 옆 사람과 자연스럽게 어 깨동무를 하며 연주자도 관객도 모두가 하나 가 되어 가슴 뭉클한 이색 장면을 연출하기도

'Sing, SNU! 천인만창'은 서울대 학내 구성원들 간 공동체 의식을 높이고 국가 및 사회 공동체 에 대한 헌신과 공헌의 의미를 되새기자는 취 지로 개최됐으며 이번 행사에서 조성된 후원 금과 추가 모금으로 1억 원을 마련한 뒤 서울대 글로벌사회공헌단을 통해 장애인 자립을 후원 할 계획이다.



Sing! SNU Gathers 1000 Voices

On May 2, the last day of SNU's Spring Festival, more than 1000 members of the school's faculty, staff, and student body came together to sing as one voice at "Sing! SNU."They gathered at the SNU presidential lawn for a sixsong flash mob performance. A total of 10 groups partook in the event including the University Choir, the Faculty Choir, and the Staff Choir.

Sing, SNU! was organized by SNU alumnus Kim Hyunsoo (Department of Vocal Music), a former contestant on singing competition program Phantom Singer, student council president Do Junggeun, President of the Faculty Choir Cho Chulwon (Department of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and SNU union leader Park Jongseok. Professor Kim Youngyul (College of Music) conducted the orchestral accompaniment. Those who could not make it could participate by live streaming the event on YouTube.

The songs included in the program were chosen by a survey of the SNU student body. The six songs were: "Don't You Worry" by Wild Camomile, "To You" by Shin Haechul, "Into the New World" by Girls' Generation, "We Are the Champions" by Queen, "Amor Fati" by Kim Yeon ja, and "My Arirang" by The Immortal. Participants danced to the lively trot song "Amor Fati" and put their arms around each other and swayed for "My Arirang."

Sing! SNU was held to raise the sense of community among SNU members and encourage them to reflect on the meaning of contribution to the nation and its diverse communities. Through this event, the SNU Institute for Global Social Responsibility (IGSR) raised 100 million won, which was donated to the Seoul Center for Independent Living, an organization that helps empower people with disabilities become self-sufficient.







SCHOLARSHIPS BY UNIVERSITY

SNU 장학제도, 현황소개

서울대학교 장학제도

서울대학교의 장학금은 재원을 기준으로 교내 장학금과 교외장학금으로 나누어진다. 연간 전 체 장학금액 중, 교외장학금이 차지하는 비중 이 70% 이상으로, 한정된 예산이라는 교내 장 학금의 한계점을 보완해주고 있다.

교외장학금 중 국가장학금을 제외하고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장학금은 (재)서울대학 교발전기금 장학금과 관악회 장학금이다. (재) 서울대학교발전기금 장학금이란 외부 기업, 단 체 혹은 기타 재단 등에서 서울대학교 발전기 금재단으로 기부한 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장학 금이다. 한 부모 가정, 외국인, 특정 전공자와 같 이 상세한 조건을 제시한 장학금, 서울대에 전 적으로 위임하는 장학금 등 사회 각계각층에서 학생들의 학업을 응원하는 같은 마음으로 다양 한 형태의 기부로 이루어지고 있다.

서울대학교발전기금 장학금 중 가장 대표적인 장학금은 '선한인재 장학금'이다. 선한인재 장 학금은 저소득층 학생들(가계소득 1분위 이하) 에게 매월 생활비 30만 원을 지원하는 장학금 이다. 한해 26억 원 가량이 학생들에게 지급되 고 있으며 등록금 면제가 대부분인 장학금 유 형 중에 가장 특별하고, 의미가 있는 장학금이 라할수있다.

관악회 장학금은 서울대 총동창회에서 지원하 는 장학금으로 동문들이 후배들을 생각하는 따 뜻한 마음으로 기부를 하고 있어 의미가 있는 장학금이다. 주위의 도움으로 어렵지만 학업을 무사히 마친 선배들이 본인의 젊은 시절을 되 돌아보며 지원이 필요한 후배들에게 응원을 보 내주는 '나눔의 선순환'이 되는 장학금이다. 관 악회 장학금에도 '결연장학금'은 경제적으로 어 려운 학생들에게 매달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어

등록금 면제와 같은 일시적인 장학금에서 한 발짝 더 나가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보조해 주고 있다.

서울대의 장학금은 약 2만 7,000명의 서울대 학생들에게는 성장의 원동력이 되고, 가정에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우리 사회가 건강 한 발전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밑거름이 되 고 있다.

SNU (Seoul National University) Scholarship

SNU scholarships are divided into internal and external scholarships based on the source of the funding. External scholarships account for more than 70% of the total scholarships awarded annually, supplementing the limited budget of internal scholarships.

Excluding national scholarships, the SNU Development Fund scholarship and Gwanak Club scholarship account for the greatest percentage of external scholarships.

The SNU Development Fund consists of funds donated by companies, organizations, and other foundations. These scholarships are offered to a wide range of students, such as students from

single-parent families, foreign students, and students majoring in specific areas.

Scholarship for Outstanding Talent is the most common type of scholarship offered through the SNU Development Fund. The Scholarship for Outstanding Talent supports 300,000 won per month for low-income students (below the first level of household income), and approximately 2.6 billion won is awarded annually. This sets the Scholarship for Outstanding Talent apart from other scholarship types, most of which only offer tuition waivers.

The Gwanak Club Scholarship is supported by the SNU Alumni Association. This scholarship holds special meaning for the SNU community because it consists of donations from SNU alumni. It creates a "virtuous circle of sharing" alumni offer support to their juniors in need of assistance.

In addition to the Gwanak Club Scholarship the "Sisterhood Scholarship" helps economically disadvantaged students to continue their studies by supporting them beyond their tuition fees by providing monthly living expenses.

The SNU scholarships serve as an engine for growth for 27,000 SNU students and contribute to the healthy development of the Korean society by reducing the economic burden of the families of SNU students.

학사과정 장학금 UNDERGRADUATE



록금면제장학금 Tuition-waiver scholarships

nal merit and North Korean defectors), etc

등록금 외 장학금 Non-tuition-waiver scholarships

근로장학금 / 선한인재장학금 (학업장려금) / 해외수학장학금 cholarship for Working Students / Scholarship for Outstanding Tal it (support for studies) / Scholarship for Students Studying Abroad

국가장학금 National scholarships

가우수, 국가장학1,11유형, 정부 지자체, 국가근로 cholarship Type I and II,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Scholship. National Scholarship for Working Students

사설 및 기타 Organizations

반악회, 발전기금, 단과대 자체, 장학단체 Awanak Club, Development Fund, College Scholarship, etc

석·박사과정 장학금 MASTER'S AND DOCTORAL



록금면제장학금 Tuition-waiver scholarships

우등, 강의연구지원, 맞춤형장학, 유학생, 핵심TA shin for Academic Excellence, Scholarshin for Lectur

등록금 외 장학금 Non-tuition-waiver scholarships 로장학금 / 강의연구지원(월정) / BK장학금

nolarship for Working Students / Scholarship for Lecture and Rearch Support (monthly fixed) / BK Scholarship

우수.정부·지자체.국가근로 ional Scholarship for Outstanding Performers. Central and cal Government Scholarship, National Scholarship for Working

사설 및 기타 Organizations

막회, 발전기금, 단과대 자체, 장학단체 anak Club, Development Fund, College Scholarship, etc.

긍지와 희망, 진리로 행복한 세상을 밝힌다 전남대학교

Pride & Hope, Cherish the Truth, Enlighten the World

Chonnam National University



MAJOR NEWS

CNU 주요 소식

기념홀 개관 2題 최후의 5.18시민군 윤상원 열사 반독재 민주화운동 김남주 시인

전남대학교에 민주열사 윤상원과 저항시인 김 남주를 기리는 기념홀이 지난 5월 2일과 3일에 잇따라 문을 열었다.

윤상원 열사는 1978년 전남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주택은행에 근무하던 중 전남대 교 육지표 사건에 대한 소식을 듣고 광주로 내려 와 노동운동과 들불야학 강학으로 활동했다.

1980년 5.18 당시에는 지하신문인 '투사회보' 를 제작·배포하고, 항쟁지도부 대변인을 맡아 외신기자들에게 광주의 참상을 알리며 전남도 청에서 마지막까지 항전하다 계엄군에 의해 사 망했다.

윤상원 열사와 들불야학 동료였던 박기순 열사 간의 영혼결혼식에서 불린 노래가 그 유명한 '임을 위한 행진곡'이다.

김남주 시인은 1969년 전남대 영문학과에 입 학했으나, 1972년 반유신투쟁 지하신문(유인 물) 「함성」과 「고발」을 제작・배포하다 구속과 함께 제적당한 뒤 '창작과 비평'을 통해 시인으 로 등단했다

1979년 남민전 사건으로 15년형을 선고받아 수 감 중에도 종이가 없어 화장지에 「바람에 지는 풀잎으로 오월을 노래하지 말아라」라는 시를 쓰고, 펜이 없어 칫솔을 갈아 우유갑 안쪽면에 꾹꾹 눌러 쓴 「다산이여 다산이여」 등 의 육필 원고를 남긴 것으로 유명하다.

Two Memorial Halls Open at CNU - one for Yoon Sangwon, a Martyr of the May 18 Democracy movement; and the other for Kim Namju, the anti-dictatorship. prodemocracy poet

On May 2nd and 3rd, two commemoration halls were opened on the CNU campus to honor two historical figures of CNU: Yoon Sangwon, a Martyr for democracy; and Kim Namju, a poet of the resistance movement for

Yoon graduated from the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and International Relations at CNU in 1978. While working for the Housing & Commercial Bank in Seoul, he received news of the 'Our Aims of Education' an antidictatorship movement organized by several professors at CNU. He quit his job at the bank and came back to Gwangju to join the labor movement. He joined the Deulbul Night School for workers as a teacher.

During the May 18 Democratization Movement, he published and distributed the "Journal of Resistance". He also communicated with foreign correspondents to spread the truth about the Uprising in Gwangju as the spokesperson for the Gwangju citizen army. He fought against the martial law forces until the last day of the Uprising and was shot dead at the former Jeonnam Province Hall.

The song, synonymous with the Uprising, "March for the Beloved" was written for Yoon's "spiritual wedding" to Park Gisun, a labor







Kim Namiu

Yoon Sangwon

activist and fellow teacher at the Deulbul Night

Poet Kim entered the Department of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of CNU in 1969, but was expelled as he was arrested for publishing and distributing 'subversive' anti-martial law iournals, entitled "Outcry" and "Accusation." Later, he made his debut as a poet in the publication 'Chang-bi'.

In 1979, he was sentenced to 15 years in prison for his involvement in 'Namminjeon' and during his imprisonment, he penned poems such as "Do not Sing for the May with Leaves that Shed before the Wind". He inscribed this famous poem on toilet paper. He wrote "Ode to Dasan" on a milk carton with a sharpened tooth brush.







SCHOLARSHIPS BY UNIVERSITY

CNU 장학제도, 현황소개

아낌없이 나누는 장학 혜택

전남대학교는 학생들이 학업에 충실해 자신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고 있 다. 전남대는 지난해 기부금을 포함한 교내외 장학금 600여억 원을 전체 학생의 80%에 달 하는 1만 9,000여 명에게 평균 250여만 원씩 지급했다.

특히 지난해 10월부터는 학생들의 생활비 지 원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생활지원형 장학 금' 제도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이 장학금은 수혜 대상을 넓히면서도, 성적을 우선하는 것 이 아니라 심층면접을 통해 선발해 학업수행과 생활비 조달이란 '이중고'에 시달리는 학생들 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 '열정', '동행', '도전'의 세 유형으로 나눠 한 학기 당 120만 원에서 200 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열정' 장학금은 교내 부속기관과 생활협동조 합 등에서 일하며 공부하는 학생에게 120만 원 까지 지급하는 장학금이다. 특히 생활협동조합 은 재학생을 우선하되 졸업 유보생까지 선발하 여, 취업 준비를 위해 졸업을 유보한 학생의 안 정된 생활을 조금이라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 었다.

'동행' 장학금은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개척 하고자 하는 저소득층 학생에게 180만 원을 지 원하는 장학금이다.

'도전' 장학금은 소득분위와 상관없이 모든 재 학생을 대상으로 미래에 대한 도전정신을 고려 해 최소 180만 원을 지원한다.

Various Scholarship Benefits

CNU has dedicated funds for its students to focus on their studies and to fulfill their dreams. For instance, CNU provided 19,000 students, or 80 % of the total number of students with scholarships of 2.5 million KRW on average in 2018. This was made possible by 60 billion KRW from donations and on/off campus scholarship funds.

CNU also introduced the 'Life Support Scholarship' in October 2018 to provide practical support to cover students' living expenses. This is a non-merit-based scholarship that expands the number of assessed criteria and selects beneficiary students through in-depth interviews, not solely on their academic performances in order to relieve the students of the 'double burden' of balancing studies and part-time jobs. The scholarship grants 1.2 to 2 million

KRW per semester to students who are selected for three types: 'Passion,' 'Companion,' and 'Challenge.'

The 'Passion Scholarship' provides a maximum of 1.2 million KRW per semester for those who work for university institutes and the CNU Coop. Especially, the CNU Coop selects recipients from CNU students including those who chose to delay graduation for career preparation so as to help them to have a regular, stable source of income.

The 'Companion Scholarship' grants 1.8 million KRW to students from low-income backgrounds, to support them as they strive to gain independent lives.

The 'Challenge Scholarship' provides a minimum of 1.8 million KRW to students who demonstrate the spirit of challenge and prepare for the future regardless of their financial conditions.



알찬 대학, 따뜻한 동행

전북대학교

The Best Glocal University

Chonbuk National University



MAJOR NEWS

CBNU 주요 소식

학생 손으로 키운 모종 나눔 '지역민 호응'

HRC 학생들 손수 재배한 모종 6만 본 무료 나눔

5월 15일 오후 전북대학교에는 모종을 나누는 학생들과 이를 받아가는 지역민들의 화기애애 한 웃음꽃이 가득했다. 전북대 우수 학생 기숙 형대학(Honors Residential College, HRC) 프로 그램 참여 학생들이 지난 수개월 동안 재배한 채소와 화훼 모종 6만 본을 나누는 행사가 열 렸기 때문이다.

이날 나눈 모종들은 전북대가 학생들에게 도전 정신을 키울 수 있도록 도입한 우수학생 기숙 형 대학 프로그램 중 에코플로어 활동 학생들 이 비교과 영역의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재배 한 것이다. 고추와 가지, 비트, 신선초, 케일, 방 울토마토 등의 채소와 화훼인 공작초 등 다양 했다.

학생들은 1학기 시작과 함께 식물자원을 통한 바른 인성을 함양하고, 건강한 생활을 도모하 기 위해 박병모 교수(생명자원융합학과)의 지 도를 받아 다양한 모종을 재배해왔고, 그 성과 의 기쁨을 지역민과 나누기 위해 나눔 행사를 열었다. 행사장에는 500여 명의 구성원과 지 역민들이 참여해 시작 전부터 긴 줄이 생길 정 도로 큰 호응이 있었다.

정기석 학생(생물산업기계공학과 2년)은 "HRC에코플로어 활동을 통해 파종부터 새싹이 자라나는 모습을 볼 수 있어 즐거움을 느꼈다"며 "학생들이 직접 재배한 모종을 지역사회에 뜻깊은목적으로 나눌 수 있어 기쁘다"고 밝혔다.

CBNU Students Share Seedlings with Residents HRC students distributes 60,000 seedlings to local society

On the afternoon of May 15, CBNU campus was full of gratifying laughs among the students sharing the seedlings and the people who took them. The students in 'Honors Residential College (HRC) Eco Floor Program' distributed 60,000

varieties of vegetables and flower seedlings cultivated over the past several months.

With the start of the first semester, the students have cultivated various seedlings such as red-pepper, eggplant, beet, kale, cherry tomatoes and flowers, under the guidance of Professor Park Byungmo in the Department of Bio Science & Rural Resources. It was an activity to foster the right personality of students and to help raise their challenge spirits through the experiential program of the comparative area in HRC program.

The giveaway event was to share the joy of young citizens' achievements with the local society. About 500 people including students and local residents participated, and there was such a big response and a long line even before it started.

"We found it enjoyable to see the plants growing from seed through HRC Eco Floor activities," said Jeong Kiseok, a student in the Department of BioIndustrial Machinery Engineering. "I'm happy to share the seedlings raised by ourselves for a meaningful purpose in the community."











SCHOLARSHIPS BY UNIVERSITY

CBNU 장학제도, 현황소개

학생 도전역량 키우는 특별한 장학금 결과보단 노력 지원하는 '도전역량 장학금'

전북대학교에는 다른 대학에선 찾아보기 힘든 장학금이 있다. 단순히 성적이 좋다고 주는 것 이 아니라 스스로 도전하고 싶은 분야를 실제 해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도전역량강화 장학 금'이다.

이 장학제도는 2017년 시작됐다. 지원 대상도 학기 당 400명 정도 된다. 스스로 설계한 도전 활동을 대학에 제시하면 1인당 100만 원의 장 학금을 준다. 특수목적으로 이렇게 많은 학생들 에게 동시에 지원되는 장학금은 매우 드물다. 올 3월 전북대는 이번 학기 장학금 수혜 학생을 선발했다. 1학기에만 384명이 장학금을 받았 다. 이 장학금으로 학생들은 자신이 원하는 공 모전을 준비하기도 하고, 해외 활동이나 극한 체험, 연구, 서적 출판 등 다양한 활동을 한다. 8 월이면 결과 발표회를 통해 다양한 활동 등을 공유해 학생들의 도전활동을 확산시키기도 한 다. 대학이 학생들이 스스로 꿈을 설정할 수 있 도록 하고, 구체적으로 이행하는 발걸음에 대 학이 힘을 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특히 실비 형태의 지원이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활동에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이 밖에도 전북대는 매년 10월 개교기념일 즈 음에 대학이 설정한 도전과 소통, 창의 인성, 실 무, 문화 등 6대 핵심역량 분야에서 다양한 활 동을 한 학생에게도 장학금을 준다.



CBNU's Special Scholarship to Boost Student's Challenge 'Challenge Boost Scholarship' values efforts over results

CBNU has a unique scholarship which is hard to find in other universities. It is the 'Challenge Boost Scholarship' not for the students with good grade but for those who want to challenge some area themselves.

Since 2017, around 400 students have benefited from this scholarship per semester. It is also very rare for a special-purpose scholarship to be offered to such a big number of students. Each of the successful candidates is given one million won for presenting their self-designed challenge to the university, and share experiences afterwards.

In March this year, CBNU selected 384 students to receive scholarships this semester. With the scholarship, students prepare for the contests they want, or perform various activities such as overseas field trips, extreme

experiences, research and book publishing. In August, they will promote other students' challenging activities by sharing their experiences through presentation of results.

In this way, CBNU helps students to set their dreams on their own, by empowering them to take concrete steps to implement goals. In particular, since the support is in the form of real money, it also has the advantage of being able to use it freely for activities that one wants

In addition, CBNU grants scholarships to students who engaged in various activities in 'the Six Key Competences' such as challenge, communication, creativity, personality, practicality and culture to celebrate the university's opening anniversary in October every year





총장 김수갑 President Kim Sukab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충대로 1

Chungdae-ro 1, Seowon-Gu, Cheongju, Chungbuk 28644, Korea

- 1951년 초급농과대학으로 시작, 2018년 신수도권 중심대학으로 도약 원년
- 2014~2018 학생만족도 1위(NCSI 조사), 세종국가정책대학원 설립 운영
- 조화, 품격, 미래를 바탕으로 함께 여는 역동적 미래를 그리는 충북대학교
- · Beginning as a junior agriculture college in 1951, CBNU has leapt to its current status as a major university in the new capital area
- Standing as the No. 1 university in Student Satisfaction (NCSI Survey), from 2014 to 2018, CBNU has established and ran the Sejong Graduate School of
- ·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draws a Dynamic future based on the three core values of Harmony, Dignity and Future



총장 김동원 President Kim Dongwon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567 Baekje-daero, deokjin-gu, Jeonju-si, Jeollabuk-do 54896 Korea

- 1947년 인가된 도립 이리농과대학과 전주 명륜대학, 군산대학관을 모태로 개교
- 모험인재, 한국적 캠퍼스, 둘레길, 월드클래스 학문 분야 등 4대 브랜드 육성
- 가장 잘 가르치는 대학… 2012, 2015, 2017년 학생 서비스 만족도 전국 1위
- · Founded as Iri Provincial College of Agriculture (1947), consolidated with Myeongnyun College (Jeonju) and Gunsan College (1952)
- · Nurturing adventurous students, creating the most Korean-styled campus, sharing campus trail with local society, supporting world-class research (4 objectives)
- Selected as the best university for student service satisfaction by KS-SQI (2012, 2015, 2017)



총장 송석언 President Song Seokeon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Jeju National University, 102 Jejudaehak-ro, Jeju-si,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63243, Korea

- 1952년 도립 초급대학으로 시작, 도립 제주대학 승격 후 국립대학 이관
- 2008년 제주교육대학교 통합,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국제 교육기관 발돋움
- 경쟁력 있는 지식창출로 국가발전 선도
- In 1952, Jeju Provincial Junior College was founded. It became the four-year Jeju Provincial College in 1955 and designated as a National University in 1962
- Merged with the Je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in 2008. Become a world-class university alongside Jeju, a free international city
- · Leading national development with competitive knowledge creation



총장 오세정 President Oh Sejung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1 Gwanak-ro, Gwanak-gu, Seoul 08826 Korea

- 1946년 9개 단과대학과 1개 대학원을 갖춘 국내 최초의 종합 국립대학교로 출범
- 1975년 관악캠퍼스 설립으로 캠퍼스 종합화 달성
- 교육과 연구를 통해 대한민국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선도
- Established as the first national university with 9 Colleges and 1 Graduate
- · Centralized dispersed campuses in Gwanak
- · Played central role in economic development and democratization of Korea



- Established through the rice donation campaign by every resident in 1952 in Daedeok Science Town
- The goal is to be the leading university of Korea spreading toward the world together with the residents
- · Construction of Sejong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started. The campus will be constructed in Sejong Special Self-Governing City

• Since its foundation in 1952 upon the desire of the local citizens for higher education, CNU has become the top flagship national university

· CNU has led the development of Korean democracy, safeguarding

• CNU recently promulgated and announced 'Agenda 2021' with the goal of

leading innovative convergence with a focus on creativity in education.

the nation's freedom, peace, democracy, and human rights

in southwestern region of Korea



충청남도

제주도



총장 김헌영 President Kim Heonyoung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길 1

강원도

춘천

충청북도

경상남도

청주

1 Kangwondaehak-gil, Chuncheon-si, Gangwon-do, 24341 Korea

- 1947년 춘천농업대학 출범, '실사구시(實事求是)'의 건학 이념
- 춘천·삼척·도계 3곳의 멀티캠퍼스 체제 구축
- 거점 국립대 취업률 1위(2018년 1월 정보공시 기준)
- Established Chuncheon Agricultural College in 1947, with the founding spirit of the quest for truth based on practical science
- Integrated three campuses in Chuncheon, Samcheok and Dogye into a multi-campus system
- · Achieved No.1 employment rate among local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 (Based on the information notice in January 2018)



총장 김상동 President Kim Sangdong

대구광역시 북구 대학로 80

경상북도

80 Daehakro, Bukgu, Daegu 41566 Korea

- 1946년 9월 국립대학 승격(대구사범대학, 대구의과대학, 대구농과대학)
- '진리·긍지·봉사' 교시로 글로벌창의인재 '첨성인(瞻星人)' 양성
- QS 세계 대학 취업능력 랭킹 국내 6위
- Upgraded to National College in September 1946 (comprised of the Colleges of Education, Medicine, and Agriculture)
- · KNU established the concept of the talented, globally creative student, or 'Cheomseong-in' (瞻星人), under KNU's Educational philosophy of 'Truth, Pride, Service'
- KNU ranks 6th in Korea in the QS World University Employability Rankings



총장 전호환 President Chun Hohwan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로63번길 2

2, Busandaehak-ro 63beon-gil, Geumjeong-gu, Busan, 46241, Korea

- 1946년 5월 15일 국내 최초 종합 국립대학으로 출범
- 진리·자유·봉사의 건학 이념,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 6개 학문분야 QS평가 세계 101-200위권, 융합과 통섭형 엘리트교육
- The nation's first comprehensive national university, established on May 15th, 1946
- Guided by the university's founding values of truth-freedom-service to become a global research-oriented university
- Six departments are ranked in the top 101~200th by the QS World University Rankings. Elite education through the fusion and convergence of disciplines



총장 이상경 President Lee Sanggyeong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대로 501

501, Jinju-daero, Jinju, Gyeongnam, 52828 Korea

- 1948년 경남 도립 진주농과대학 개교, 1972년 '경상대학'으로 교명 변경
- 식물생명과학, 항공기계시스템, 나노·신소재 분야 국내 최고 경쟁력
- 중국 상하이자이퉁대학 발표 '세계대학 학술순위' 국내 11위(2018)
- Founded in 1948 as Jinju Agricultural College, it was accredited as a national
- university and renamed as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in 1972
- GNU has been recognized as one of the top-tier universities in three academic fields in Korea such as life science, aerospace and mechanical systems, and nano and advanced materials
- · According to the 2018 Academic Ranking of World Universities(ARWU), GNU was ranked within the 11 top universities in Korea

제주도에서 거점 국립대의 상생과 미래를 보았습니다

이상경 경상대학교 총장 (2019년 거점 국립대학교 총장협의회 회장)

'함께하는 제전, 상생하는 거점 국립대!', '평화의 섬에 서 울려퍼진 화합과 우정의 한마당' 5월 10일 제주대 학교에서 열린 거점 국립대학교 제전은 이 두 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10개 거점 국립대학교 교직원과 학생 5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각자 자기 대학의 명 예를 위해 땀을 쏟으면서도 전체 거점 국립대의 성장 과 공동 발전을 위해 화합하고 협력한 날이었습니다. 우리 거점 국립대에 부여된 소명을 상기하고 공동으 로과제를 해결해 나갈 방안도 모색했습니다.

그러한 바람은 이날 함께 열린 거점 국립대학교 총장 협의회에서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대 학 국제화 역량 인증제와 관련해 유학생 불법체류율 산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거점 국립대로서 고등교육 발전을 위해 인문·사회· 자연 계열 기초학문분야에 대한 등록금면제 건의 등 에 관해서도 생산적으로 논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5월 9일 열린 제6회 국제전기자동차엑 스포는 우리 협의회가 공동으로 주관한 행사로서, 하 나의 섹션에서 '한반도 전기차 발전 방향과 협력'이 라는 주제의 포럼도 마련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거 점 국립대가 남북의 환경과 에너지문제 등에 관하여 미래를 생각하며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은 제주대 송석언 총장님을 비 롯해 교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거점 국립 대 모든 교직원 여러분이 계시기에 가능한 일이었기 에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거점 국립대학교 총장협의회의 10개 회원교는 우리 나라 고등교육을 대표합니다. 우리 회원교들은 현재 당면한 우수인재양성, 지역사회발전과 같은 소명과 목표에 충실하면서도 100년 후의 대학의 모습도 그 려봅니다.

미래의 대학이 지녀야 할 올바른 가치는 무엇일까 요? 그것은 대학 본래의 설립 목적을 되돌아보는 것 이기도 합니다. 인문·사회·자연 등 기초학문분야를 강화하고 대학원생으로 대표되는 학문후속세대를 육성하며 지식 공유형 모빌러티 캠퍼스를 구축해 나 가는 것이 미래 대학의 참다운 모습이라고 봅니다. 미 래의 대학이 추구해야 할 공익적 가치에 대한 논의는 이제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호에서 이 문제에 대한 고민의 일단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 Future Envisioned on Jeju Island about Mutually Coexisting K-NU10

Lee Sanggyeong Ph.D.

President,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Chairman 2019, The Council of the Presidents of the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



'The Festival of Togetherness, Coexistence of the K-NU10!' and 'Celebration of Unity and Friendship Resonating throughout the Island of Peace.'

The festival of the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 (K-NU10) held at Jeju National University on May 10th can be summarized in the above two slogans. More than 500 faculty, staff, and students of our K-NU10 gathered together in one place. I could see how much every one of us was committed to attaining victory for the honor of a respective university. Still, this was the day for us to harmoniously come together as one for mutual growth and development of all K-NU10. This festival also reminded us of our calling as K-NU10 to collaboratively seek for the measures to solve our issues.

Such hope was clearly apparent in the meeting of the Council of the Presidents of the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 (CP K-NU10) which was concurrently held on that day. At this meeting, in-depth discussions were proceeded on various agendas such as requesting the government to reasonably improve its criteria to compute the rate of international students illegally staying in Korea, which impacts the certification system on globalization capabilities of universities. These productive discussions also covered the suggestion of tuition wavier for the basic academic areas of humanities as well as social and natural sciences in order to further develop higher education as the K-

Moreover, our CP K-NU10 cohosted the 6th International Electric Vehicle Expo held on May 9th. In one of the expos segments, CP K-NU10 also provided a forum of 'Direction of Cooperatively Developing Electric Vehicles on the Korean Peninsula. All this demonstrates how much our K-NU10 are pondering on energy crises of North and South Koreas pushing forward the future environmental protection of two

I would like to extend our gratitude to President Song Seokeon of Jeju National University and its faculty and staff who have spared no effort for this event. In addition, I would also like to thank all faculty and staff of the K-NU10, who made this festival possible

The schools of ten CP K-NU10 members represent higher education of our nation. The ten schools have faithfully devoted themselves to the K-NU10' calling and current goals such as fostering talented individuals and developing the community in a respective region. At the same time, we also envision a big picture as to how the role of a university will be transformed over the next 100 years. What would be the right value that a university should carry on in the future? In a way, this would eventually ask each university to look back on the initial objectives of its establishment. I believe the right role of a university in the future would be to strengthen the basic academic areas including humanities as well as social and natural sciences.

Also, it would be to foster the next academic generation. namely graduate students, and to build the knowledgesharing mobility campus. I believe our discussion on what value of public service a university should pursue in the future has just begun. Hopefully, this 6th issue of Korea NU10 Magazine can help confirm how we have taken our first step to face such future challenges. Thank you.





정순기 경북대학교 교수 전 기획처장 **Jung Soonki** Professor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Former Planning Director

지역대학 간 협력을 통한 기초보호학문 분야 강화 방안

Measures to Strengthen Basic Academic Disciplines Requiring Protection through Cooperation among Regional Universities



2019년 국립대학 육성사업은 국립대학이 지역의 교육·연구·혁신의 거점으로서 지역 상생 및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적 역할을 강화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기초보호학문의 육성은 거점 국립대학의 책임이자 사명이기에 국립대학 육성사업의 필수 세부 사업 중의 하나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기초학문은 공학이나 의학 등 응용학문의 밑바탕이 되는 순수학

기초학문은 공학이나 의학 등 응용학문의 밑바탕이 되는 순수학 문으로 기초 원리와 이론에 대한 학문을 뜻한다. 통상적으로 기초 학문은 영리 활동을 목적에 두지 않은 순수한 지적 호기심에서 나 오는 학문의 진리 탐구 자체를 목적으로 한다는 뜻에서 순수학문 이라고도 한다. '자연과 인간에 대한 기본적 성찰을 다루는 학문'과 '여러 응용 학문의 기초적 도구가 되는 학문'을 포함한다. 문학, 사 학, 고고학, 철학, 예술학 등의 인문사회과학과 물리, 화학, 생물학, 지구과학, 기상학, 수학 등의 자연과학이 기초학문에 해당된다. 기초학문은 응용학문과는 달리 사회의 직접적인 수요가 적어 기초보호학문의 진흥 정책을 통해 보호하지 않으면 유지되기 어렵다. 기초보호학문의 진흥은 대학 내 학문의 다양성 유지와 학문의 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하다. 응용과학의 발전에는 반드시 기초과학의 발전이 선행되어야만 하며,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사고를 가진 인 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인문사회와 과학기술의 융합 교육 및 연구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따라서 대학이 기초보호학문을 진흥하는 것은 국립대학에 부여된 사회적 책무로서뿐만 아니라 모든 대학이 그자체로도 충분한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어떠한가? 지난 10년간의 등록금 동결과 학령인구 감소 및 수도권 대학 선호 현상으로 지역 대학의 재정적 악화와 더불어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예상된다. 교육부의 대학재정지원사업 및 부실 대학 선정 평가 등에서 사용되는 신입생 충원율, 취업률 등의 지표들은 경쟁력이 없는 학과를 정리해야만 대학이 생존할 수 있다는 인식을 더욱 확고히 한다. 대학의 생존경쟁이 치열한 현 상황에서 인문학, 예술, 기초과학 등 기초보호학문을 다루는 학과들이 통폐합의 주된 대상이 될 것이며, 이로 인해 기초학문이 고사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현실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지난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이후 입학정원 현황을 보면, 대학 정원의 전체 감소 인원 대비 사회계열이 40.2%, 인문계열이 35.2%의 비중을 차지하였고, 자연계열 및 예체능계열 순으로 입학정원이 감축되었다. 취업난으로 인한 실용적인 학과에 대한 수요 증가에 따라 대학들이 기초보호학문 계열의 입학정원을 감축한 것이다.

앞으로 이러한 상황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특히 지역의 소규모 사립 대학 및 전문대학은 국립대학이나 대규모 사립대학보다 사회 수요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으며 학령인구감소에 따른 영향 또한 가장 먼저 받게 될 것이다. 그 결과 기초보호학문 관련 학과의 유지가 더욱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며, 관련 교양교육 교과목을 외부 강사에 의존하거나 대학재정의 악화로 교과목 개설조차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해당 대학의 기초보호학문 분야 기초 교육 및 타 분야와의 융합교육이 부실해짐과 동시에 기초보호학문 분야 학문후속세대의 고학력 실업사태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지역 대학의 기초보호학문 분야 교육을 강화하고 동시에 학문후속세대의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 거점 국립대학과 지역대학의 연계·협력 및 역할 분담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기존대학협력형 사업인 지역선도대학육성사업을 기초보호학문 분야에 적용하여 거점 국립대학의 기초보호학문 분야에 대한 우수한 인적·물적교육 자원을 효과적으로 공동활용하고, 그 운영 재원을 국가에서 보조하는 방안이 그것이다. 예를 들어, 인문학분야 전공교육과정을 운영하지 않거나 축소 운영하고 있는 소규모 대학, 전문대학 및 과학기술특성

화대학은 거점 국립대학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컨소시엄 내 참여 대학의 인문교양교육과정 및 타 전공과의 연계 융합교육과정을 거점국립대학이 주도하여 공동운영할 수 있다. 또한 컨소시엄 내 참여 대학간 교수 및 학생교류, 상호 학점인정, 온·오프라인 교과목 공동개발 등을 지원하고, 필요한 소요 예산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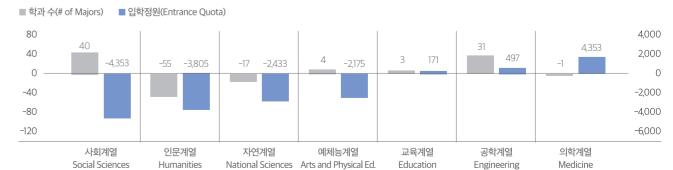
기초보호학문 분야의 열악한 여건은 각 지역 대학별로 상황이 다르며, 이에 대한 해결 방안 역시 대학 상황에 의존적이다. 따라서 일괄적으로 소규모 대학 및 전문대학의 기초보호학문 분야를 거점 국립대학에 의 존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많은 부작용이 발생될 것이다. 국가의 기초보 호학문 분야 지원 정책을 장기 사업화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기초보호학문 분야 진흥에 대한 국가의 의지를 표명하고 거점 국립대 학의 지역사회 기여 역할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다. 또한 거점 국립대 학의 기초보호학문 분야 진흥에 대한 열매를 지역 대학들과 연계·협력 하여 활용함으로써 지역 대학들이 상생하도록 유도하며, 국립대학의 공공성 및 지역협력 네트워크가 자연스럽게 강화될 것이다.

The Korean government's 2019 National University development programs (NUDPs) aim to help them play their role more significantly as the official hub of education, research, and innovation in their regions. It also aims to help them contribute to their coevolution in the regions and to the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Additionally, since protecting and fostering the basic academic disciplines is the mission and responsibility of the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K-NU10), nurturing the basic academic disciplines is being pushed forward as one of the mandatory sub-programs within that of NUDPs.

Generally, the basic academic disciplines are also called "pure studies," since their objective is to explore scholarly truth itself out of sheer intellectual curiosity without concerning profitability of their end-result. Pure studies lay the foundation of other applied fields such as engineering and medicine by focusing on the basic academic principles and theories. Such pure studies include academic disciplines concerning "the basic introspection on nature and humans" and those used as "basic scholarly tools in

2015년 계열별 학과 수 및 정원 증감(2012년 대비)

Change in the Number of Majors and Entrance Quota by Field, 2012 vs 2015



메인 기획 MAIN PROPOSAL

various applied academic fields." One of the two main categories in the basic disciplines is the field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including literature, history, archeology, philosophy, and arts. And, the other is the field of natural sciences such as physics, chemistry, biology, earth science, meteorology, and mathematics. Unlike the demand for applied academic fields, that for the basic studies is inevitably lower since it has less of a direct impact on society. This means that pure studies cannot sustain themselves without any protection under specific government policy.

It is necessary to promote the basic disciplines to maintain diverse and balanced academic development within higher education. The development of basic sciences must precede that of applied sciences. Also, universities should invigorate convergent education and research among humanities, social studies, sciences, and technologies to foster talents with creative and convergent thinking. Therefore, promoting the basic disciplines is not only required by the National Universities as their job duty but also sufficiently needed by all other universities for the sake of the basic disciplines themselves.

On the contrary, the reality is quite different. Regional universities are expected to suffer from drastic restructuring caused by their escalating financial obstacles. This is due to the tuition freeze over the past decade, a decrease in the size of the student population, and excessive university application focusing solely on the metropolitan Seoul area. Yet, the Ministry of Education in Korea uses the index of recruitment and employment rates as its criteria to determine which universities to receive financial assistance and which ones to be identified as substandard. These selection criteria further confirm the notion that the only way for a university to survive is to restructure its departments of less competitive academic majors. In this current state where universities have to compete for one another just to survive, the main target of such merge or elimination will inevitably be the academic majors of the basic disciplines including humanities, arts, and basic sciences. Thus, the concerns that the basic academic disciplines to wither away may as well become a real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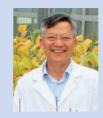
This trend is statistically demonstrated by the actual changes in universities' entrance quota after the first phase evaluation of their restructuring. Within the total decrease of the overall university entrance quota, 40.2% were of social sciences, 35.2% humanities followed by natural sciences and then by the fields of arts and physical education in that order. This is because universities reduced their entrance quota of the basic academic fields in response to the increasing demand for practical academic majors due to the ongoing unemployment crisis.

This trend is expected to further escalate in subsequent years. Especially, regional small private universities or two-year colleges are bound to react to this social demand more sensitively than National universities or large private universities. The decreasing size of the student population will also impact these small private universities or two-year colleges first. As a result, it will be more difficult for them to maintain academic majors related to basic academic disciplines. Some of them might have to depend on

outside instructors for their general requirement courses related to the basic academic disciplines. It might become difficult for some schools to even offer such courses due to their shrinking budget. This will eventually lower the quality of basic education of the basic academic fields and convergent education with other fields. At the same time, this will significantly worsen the unemployment crisis of advanced degree holders in the basic academic fields among the next generation of academia.

This raises the question of whether it is possible to find a measure to strengthen the basic disciplines education of regional universities while maintaining available jobs for the next generation of academia. An answer to this question can be found in collaboratively sharing their duties among the K-NU10 and other regional universities. Since the program to promote the K-NU10 was already launched to encourage cooperation among the K-NU10, this existing model can also be applied to the basic academic fields, in which quality human and material resources of the K-NU10 can be shared effectively with financial assistance from the national government. For example, since some small private universities, two-year colleges, as well as science and technical institutes have partially or fully eliminated their programs of academic majors in the humanities fields, they can create a consortium led by the K-NU10s in their respective region. Through this consortium, participating schools can jointly offer general requirement courses of humanities as well as collaborative and convergent programs with other majors. At the same time, they can jointly develop and offer among themselves their student and faculty exchange programs as well as on- and off-line courses. In addition, they can mutually accept academic credits while requesting the national government to provide the necessary

Inadequate conditions of the basic academic fields depend on the circumstances each university is facing in its respective region, and so do possible solutions of the basic academic fields. Therefore, expecting the basic academic disciplines education of small private universities or two-year colleges to uniformly depend on the K-NU10 in their respective region may cause a lot of side effects. Thus, the national government should have a sustainable policy to continuously support long-term programs for basic academic disciplines to clearly express its will to promote the basic academic fields. It should also effectively expand the role of K-NU10 so that they could contribute more to their respective community in their regions. By doing so, the K-NU10 can collaboratively share and jointly use the fruits of their efforts to promote the basic academic fields with other universities in their regions. In addition, the K-NU10 can lead other universities in their regions to mutually survive, thus naturally strengthening their cooperative network to promote public interests of their respective regional community.



저조인

경상대학교 연구부총장 겸 산학협력단장

Chung Jongi

Vice President of Research at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Director of the Office of Academy and Industry Collaboration

학문후속세대를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3가지 방법

Three Effective Measures to Support the Next Generation of Academia



'학문후속세대'란 석사과정 학생부터 대학에 전임교원으로 채용 되기 전의 박사학위자 등 연구자들을 일컫는다. 독립적으로 연구 를 수행할 수 있는 박사학위 취득자가 학문후속세대의 주류를 이 루고 있다.

세계 각국은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 창의적인 학문후속세대의 양성 및 확보를 국가적 과업으로 삼고 있다. 1980년 우리나라에서 배출된 박사 수는 724명이었다. 1990년대 초부터 지식, 정보의 생산이 갈수록 중요해지는 시대에 그 생산을 담당하는 학문후속세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1999년부터 BK21사업이 시작되어 2000년에는 7,569명의 박사가 배출됐다.

이후 매년 박사학위 취득자는 증가하여 2017년에는 두 배에 달하

는 1만 4,316명의 박사가 배출되었다. 최근 몇 년 간 배출된 국내 박사학위 취득자 수는 아래 표와 같다.

표 1. 국내 박사학위 취득자 수(2012-1217년)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취득자 수(명)	12,243	12,625	12,931	13,077	13,882	14,316

한국은 특히 고급 인력이 중요한 나라인데 박사학위 취득자가 많아지는 건 아주 좋은 현상이다. 하지만, 오랫동안 시간과 재정을 투입하면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학문후속세대가 일자리 걱정, 장래걱정 등으로 사회 및 국가발전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학문후속세대위기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메인 기획 MAIN PROPOSAL



신규 박사 졸업자의 대학 재직 비율이 2017년 488%에서 2018년 54.8% 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 중 비정규직 비율이 68.1% 정도로 나타나고 있 다. 향후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하고 그 위치를 장기간 안정적으 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학문후속세대의 양성이 기본적으로 뒷 받침되어야된다고 본다.

학문후속세대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3 가지의 방법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첫째, 박사학위 취득자가 중소기업의 연구를 담당하는 범부처적 프로 그램이 필요하다고 본다. 현재 중소기업들은 만성적인 연구인력 부족 을 호소하고 있다. 신규 직원에 대한 지원자 부족보다 적합한 연구인력 부족이 더 큰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연구공간, 예산, 인력고용 등 3가지를 동시에 해결하는 형태가 되어야 된다고 본다. 연구공간은 정부의 예산으로 대학(대학 입학자원의 감소로 대학에서는 여유 있는 공간의 리모델링 지원), 지자체, 정부기관에서 제공하고 연구예산은 정부와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부담할수 있다고 본다. 고용 형태는 중소기업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일정 부분 역할 분담하여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으로 보며 청년 실업률 해소 등 많은 장점이 있을 것으로 본다. 둘째, 학문의 전 분야에서 박사학위 취득자에 대한 안정적인 연구공간 및 재정의 지원이 대폭 확대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동안 국가에서는 박사학위 취득자를 대상으로 안정적인 연구환경을 제공하는 정책을 실시해 왔다. 대표적인 예로 한국연구재단에서는 리서치펠로우, 박사후국내외 연수, 시간강사 지원, 학술연구교수 등 학문후속세대 지원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 최근 5년간 한국연구재단의 학문후속세대 지원 사업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2. 최근 5년간 학문후속세대지원사업 현황(한국연구재단)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지원액(백만 원)	39,335	72,062	63,118	62,214	63,248
과제 수(개)	1,944	2,538	2,430	2,393	2,380

이 외에도 BK21 사업, 국립대학육성사업에서의 학문후속세대 지원, 대학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학문후속세대 지원사업 등 다양하게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해 가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러나 매년 전체 박사학위 취득자의 20% 정도가 학문후속세대 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과학기술의 다양성 을 인정하고 학문의 전 분야에서 학문후속세대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 해야 된다고 본다. 대학 입학자원의 감소로 대학에서는 여유 있는 공간 을 학문후속세대의 독립적인 연구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셋째, 향후 분야별 장기간 박사 인력의 수요를 고려한 박사학위 취득에 대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현재 수요보다는 공급이 훨씬 초과된 박사학위 취득자의 증가가 학문후속세대 위기의 원인이 된 측면이 있다고 본다. 교수 수의 증가에 비해 박사과정 대학원생 수만 대폭들어날 경우 연구 공간 부족, 박사과정 1인당 교수의 지도 시간 부족 등으로 박사학위의 질적 수준 향상은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학문 전 분야를 대상으로 박사학위 취득자 수요 공급을 철저히 분석하여 박사과정 입학생 수를 조절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본다. 4차 산업 혁명과 관련된 분야에서는 박사과정 입학생의 대폭적인 증원이 필요하고, 증원할 경우 질적으로 우수한 박사학위 취득자가 배출될 수 있는 장치가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다.

The term "next generation of academia" (NGA) refers to any researcher ranging from a student in a master's program to a doctoral degree holder (DDH) who has not yet been hired by a university as a full-time faculty. The majority of NGA are DDHs able to independently perform their research.

To enhance its competitiveness in the global community, each country is pushing forward a program to foster and secure creative NGA as its national-level priority. In Korea, although only 724 doctoral degrees were conferred in 1980, creating knowledge and information became increasingly imperative starting from the early 1990s. In this rapidly changing age, a need to systemically support NGA capable of fulfilling this duty came to the fore in the Korean society. This led its national government to launch the BK21 program in 1999, which soon helped produce 7,569 DDHs in 2000.

Since then, this figure continued to grow annually, doubling itself to $14{,}316$ in 2017. The increasing number of DDHs who obtained their degrees in Korea from 2012 to 2017 is as follows.

Table-1. DDHs who obtained their degrees in Korea, 2012~2017

Year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No. of DDHs	12,243	12,625	12,931	13,077	13,882	14,316

Since Korea especially emphasizes on highly educated workforce, some may interpret the rapidly increasing number of DDHs as a positive trend. However, this trend has inevitably caused an excessive supply of doctoral degrees. Despite their hefty investment of time and money, DDHs of NGA now have to face the unemployment crisis and the uncertain future without being able to help contribute to the Korean society.

On the surface, the rate of employment at university among recent DDHs increased from 48.8% in 2017 to 54.8% in 2018. Yet, about 68.1% of them were hired as non-regular employees. In order for Korea to subsequently become an advanced nation as well as stabilize and sustain its status accordingly,0 fostering quality NGA must be fundamentally supported.

Although there could be various ways to effectively support NGA, three measures will be discussed here.

First, it is necessary to have inter-agency programs where DDHs can be in charge of research on 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s (SMEs). Currently, these SMEs are pleading with the government to relieve their chronic shortage of researchers. To be more specific, the lack of qualified staff for their research is a bigger problem among SMEs than the lack of job applicants for their new openings.

These inter-agency programs should be in a platform that can concurrently resolve three issues of research space, budget, and employment. Due to their decreasing entrance quota, universities can now remodel and utilize their unused physical space for research. While the national government can fund this remodeling, such space can also be provided by a local self-governing bodies or pubic agencies in the regions outside the metropolitan Seoul (OMS) area. Just as the research budget itself can be provided jointly by the national government and SMEs, the research employment issues can also be addressed in various ways. For example, the responsibilities to hire DDHs as regular employees can be shared by SMEs and the Ministry of SMEs, simultaneously resulting in many advantages including reduction of the youth unemployment rate.

Second, the stable research space and financial assistance for DDHs should be increased significantly in all academic fields. Until now, the national government has implemented a policy to provide a stable research environment for DDHs. For example,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 has implemented various NGA support programs, including those of research fellow, domestic and foreign post-doctoral training, part-time lecturer support, as well as research professor. The NRF's support programs for NGA over the past five years is shown in Table-B below.

Table-2. Support programs of NRF for NGA, 2015-2019

Year	2015	2016	2017	2018	2019
Unit: Million Won	39,335	72,062	63,118	62,214	63,248
No. of Projects	1,944	2,538	2,430	2,393	2,380

In addition, various other support programs have been expanded in a positive direction. This includes BK21, subprograms to support NGA within the program of promoting the national universities, and NGA support programs independently provided by universities themselves.

However, the data show that only about 20% of all DDHs have actually benefitted from the NGA support programs each year. Therefore, the need for diversity in the field of science and technology should be recognized, and the budget to support NGA should be increased substantially in all academic fields. Due to their decreasing entrance quota, universities can now utilize their unused physical space for NGA to independently conduct research. To make this possible, financial assistance from the government is also needed.

Third, it is necessary to restructure the doctoral programs by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subsequent long-term demand for DDHs in each field. One of the aspects causing this NGA crisis is the current supply of DDHs far surpassing the demand for them. If the number of students in doctoral programs grows at a much higher rate than that of professors, it will be difficult to expect universities to improve quality of their doctoral degree programs due to insufficient research space and time each professor can provide per student.

Therefore, it is also necessary to thoroughly analyze supply and demand of DDHs to adjust the number of students entering doctoral programs in all academic fields. Especially, in the fields related to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e number of students entering doctoral programs should be increased substantially along with a safety device to ensure the quality of workforce with doctoral degrees.

11

Korea NU10 MAGAZINE



화용업 한국대학신문 발행인 한국대학경쟁력연구원장

Choi Yongseob

Publisher, University News Network
President, Institute of Korean University Competitiveness

지식공유형 모빌러티 캠퍼스

Knowledge Sharing Mobility Campus



우리는 지금 부정할 수 없는 Industry 4.0의 시대에 살고 있다. 세계 굴지의 자동차,IT기업들이 어제의 경쟁관계 또는 분야 간 경계를 넘어 융합과 협력을 통해 새로운 제품 개발에 앞 다투어 나서고 있다. 산업계에서 일고 있는 극한 경쟁의 종식, 초융합의 부상은 경쟁기업보다 비교우위 전략을 집중하는 마이클 포터 교수의 기업 경쟁전략이 일대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런 변화는 기업뿐만 아니라 대학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학 간의 무한경쟁 시대에 차별화, 집중화에 매달렸던 대학들이 대학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공유·협업 속에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플랫폼 형태로의 발전을 대안으로 모색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 거점 국립대학 육성과 공영형 사립대학 제도 도입을 고등 교육 발전 방안으로 내놓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 공유와 협력에 입각한 대학발전 논의가 또 다시 급물살을 탔다.

국립대 차원에서는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7월 9개 지역 거점 국립대학이 모여 네트워크화를 본격적으로 논의한 것이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거점 국립대 육성 정책과 맞물려 힘이 실리는 듯했으나 현재는 정체 상태에 머물 러 있다. 여전히 반대론의 핵심인 서울대 폐지, 하향평준화, 획일 화 등의 주장이 발목을 잡은 결과이다.

사립대 차원에서는 일부 지역대학들이 공유와 협력 논의를 구체 화하는 가운데 한국대학신문사가 2018 UCN 사립대 프레지던트 서밋을 통해 대학 간 '개방'과 '공유'의 필요성을 전면적으로 제 기하자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

비교적 폐쇄성이 높은 사립대학들이 개별 대학만의 노력으로 벽에 부닥쳤던 많은 과제들이 대학 간 공유경제라는 틀을 통해 해결될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대학 간 공유경제 모델로 '고비용 구조 탈피', '높은 교육 질 유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확신이 참석 총장들 사이에 확산됐다.

우리 시대 대학간 '개방'과 '공유', '협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되고 있다. 우리는 이런 대학 간 공유경제 모델을 '지식공유형 모빌

러티 캠퍼스(Mobility Campus)'라 부르고자 한다.

'지식공유형 모빌러티 캠퍼스'는 한마디로 '움직이는 대학'이다. 대학의 인적·물적 자원들이 '특정대학'이라는 물리적인 장소를 뛰어넘어 함께 공유하고 지식과 콘텐츠를 개발해 공동으로 운영, 성과를 내는 플랫폼으로서의 대학인 것이다.

'지식공유형 모빌러티 캠퍼스'는 '연결성, 이동성, 학생경험 및 데이터 분석'을 특성으로 한 '대학자산 유동화'(Liquidity for Campus Resources)'를 전제(前提)로 한다. 여기에서 '대학자산 유동화'란 현재 폐쇄적·경쟁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대학의 인적·물적 자산을 공동 플랫폼 기반 하에서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드는 과정이다.

대학자산 유동화는 시계열적으로 엄밀하게 구분되는 것은 아니지만 편의상 3단계로 추진될 수 있다.

1단계는 물적 자산 유동화 단계이다. 대학, 지자체, 기업, 법인이 수요 자가 되어 물적 자원의 유동화를 통해 경비를 절약하고 부가 수익원 을 확보하는 단계를 말한다. 이 단계에서는 물적 자산 유동화를 위한 플랫폼인 'Campus Space Cloud' 시스템 구축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 2단계는 인적 자산 유동화 단계이다. 대학, 기업이 수요자이고 교수 및 직원 등의 상호교류가 중심이다. 인적자원 유동화는 교차, 교환, 교류 3교(三交) 방식이 가능하다. 학제교환, Upskill&Reskill교육, 공 동학위 등의 형태를 취할 수 있다.

3단계는 초융합 전방위대학으로 가는 단계이다. 대학, 기업이 수요 자로 마이크로러닝, xAPI (Experience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 AI기반의 개인학습, 창업캠퍼스생태계 조성 등으로 확대해 나가는 과정이다.

대학 간 공유는 한계 비용에 처한 대학의 자구 노력적 측면도 있지만 지속가능성 고양이라는 새로운 가치 창출이 근저에 깔려 있다. 그러 기에 대학 상호간 미래에 대한 공동의 비전을 공유하고 자산의 유동 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 또한 대학 구성원 간에 신뢰뿐 만 아니라 참여대학 간 이해관계가 어느 정도 일치될 수 있도록 유동 화과정과 3교 과정을 설계해야 한다.

전략적 접근도 필요하다. 이해관계가 첨예한 분야에서 공유를 강제 하기보다는 상호 보완 및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의 공유를 먼저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 원활한 협의와 추진을 위해서는 기계적 결합보다는 각 대학의 구성원들이 왕래하며 목표의식을 공유하고 시너지를 노 리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 이미 '지식공유형 모빌러티 캠퍼스'를 향한 움직임은 시작됐다. 서울, 부산, 경인 지역 등에서 교육, 연구, 봉 사, 시설이용 등 다양한 공유협력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프레지던트 서밋에서는 대학 간 공유가 개별 대학, 개별 지역에 국한 되는 이슈가 아니라 국가·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파급력을 미치게 될 것이란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제 대학마다 벽을 쌓고 경쟁을 할 것이 아니라 같이 공유를 하면서 공동의 발전을 추구한다면 대학이 훨씬 발전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가져본다.





The age of Industry 4.0 is undeniably here and now. The world's leading automobile and IT industries are rushing to develop new products through convergence over the boundary of each field and collaboration beyond their hostile competition of the past. The rise of hyper convergence and the fall of excessive competition in the industrial sector demonstrate that Professor Michael Porter's corporate strategy which focuses more on competitive advantage rather than on competition itself is now going through a remarkable turning point.

This change has affected not only industries, but also universities. In the age of unlimited competition among universities, each school was hanging onto its specialization in order to further differentiate itself from competitors. However, universities are now seeking an alternative measure to develop themselves in a network platform based on sharing and collaborating in order to increase their sustainability.

As President Mun Jae In began his term in Korea, his administration proposed its measure to develop higher education by introducing public management of private universities and by promoting the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 (K-NU10) in the regions outside the metropolitan Seoul (OMS) area. Consequently, this proposal further heated the discussion on developing universities by sharing and collaborating.

Since July of 2017, a full-scale discussion on forming a network of the national universities was started by nine K-NU10. For a while, their effort seemed to receive strong support thanks to Mun's policy to promote the K-NU10. However, this discussion is now at a standstill due to the usual core arguments of the opposition, including abolition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downward standardization, and uniformity.

In the meantime, some private universities have also begun to give shape to their discussion on sharing and collaborating. At the 2018 UCN President Summit among private universities, the University News Network (UNN) pointed out a need for private universities to be open to and share with one another. As UNN unreservedly addressed this issue, the discussion among the presidents of participating universities went into full swing.

In a relative sense, a private university tends to be more of a closed community with many obstacles that cannot be overcome by itself. Yet, through this discussion, the participating private universities could reach a common awareness acknowledging that a platform of sharing economy could help them overcome their obstacles. The presidents of these private universities seemed to become confident together that this model could help achieve their two main objectives: breaking away from the high cost structure and maintaining quality education.

메인 기획 · 총장칼럼 MAIN PROPOSAL · PRESIDENT'S COLUMN

In this day and age, sharing and collaborating among universities by opening their doors are now becoming mandatory, not optional. This model of sharing economy among universities is called a knowledge sharing mobility campus.

In two words, this knowledge sharing mobility campus can be described as a "moving university." In this model, human and material resources of universities are no longer bound within their physical location. The mobility campus is a new platform jointly managed by universities who collaboratively develop and share knowledge and contents to produce their desirable outcome.

The knowledge sharing mobility campus operates under the premise of "Liquidity for Campus Resources" (LCR) whose unique qualities are connectivity, mobility, student experience, and data analysis. Although universities currently manage their human and material resources exclusively and competitively, LCR here refers to a process that will allow universities to share their resources in a basis of joint platform.

LCR cannot be categorized chronologically into distinctive stages of time. However, for the sake of convenience, its process can be proceeded in the following three phases.

The first phase is to liquefy material resources. In this phase, universities, local self-governing bodies, industries, and corporations become consumers. By liquefying their material resources, universities can reduce their expenditures and secure their supplementary income sources. To make this possible, the base for this phase should be solidified first. After that, universities can create the "Campus Space Cloud" system, the platform where these resources can be liquefied.

The second phase is to liquefy human resources. In this phase, universities and industries are consumers, while the core of this process becomes mutual interaction among faculty and staff members of participating universities. Liquefying human resources is possible in three interactive methods of crossing, exchanging, and alternating. These methods can take various forms such as those of school system exchange, upskill & reskill education, and joint degrees.

The third phase is to move toward the model of omnidirectionally hyper convergent universities. Like the second phrase, universities and industries are also consumers at this stage. And, the scope of higher education is expanded in this phase by creating individual learning systems and venture campus ecosystems in various bases such as those of microlearning, xAPI (Experience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and AI.

Although sharing among universities is an inevitable aspect of self-help to overcome their own limited budget, creating new values to enhance their sustainability is also fundamentally at its root. Therefore, universities must have a common awareness of their future need to share visions and liquefy resources among themselves. Also, the above three interactive methods of LCR should be designed to gain trust among university personnel and their counterparts as well as to match interests of participating schools to a certain extent.

Strategic approaches are also necessary. Instead of mandatory sharing in the fields with evident conflicts of interest, universities should first seek to share in the fields where they could completement and improve one another. Also, for smooth progress via clear communication, mechanically forming a network should be discouraged. To be more effective, universities should consider the methods allowing their representatives to freely visit and invite their counterparts in order to aim for synergy by sharing their sense of purpose. The first step toward the knowledge sharing mobility campus has been taken already. Various programs to share and collaborate in education, research, volunteerism, and facility use are currently being operated in the metropolitan areas of Seoul, Busan, and Incheon as well as in the province of Gyeonggi.

At the above President Summit, the participating universities could reach a common awareness that the issue of sharing among universities would not be restricted within a physical boundary of a particular school or a region. They are now aware that influences of such sharing and collaborating will make positive changes throughout the Korean Society. Universities are no longer able to hide in their ivory tower and to perceive their counterparts solely as their competitors. If universities could pursue their mutual development by collaboratively sharing, their future would be far more optimistic and productive.



총장칼럼 President's Column

김수갑 충북대학교 총장 **Kim Sukab** President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일반적인 국립대학의 역할과 달리 지역의 대표적 국립대학으로서 거점 국립대학은 어떠한 역할과 기능을 담당해야 하는가?

최근 고등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적·재정적 지원이 증가됨에 따라 사회적 책무성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한 거점 국립대학과 지역 국립대학의 역할 재정립 및 기능 차별화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대학의 소재지, 규모, 학문구조 등의 특성으로 볼 때 거점국립대학만의 강점이 존재하며, 이를 토대로 발전방향 및 역할을 재정립하고 그 기능을 차별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Unlike other national universities, What kind of roles and aims does a Flagship National University(K-NU10) in a region have?

Recently, as the political and financial support has increased in order to strengthen publicness of higher education, demands for reestablishment of the roles and differentiation of functions between K-NU10 and the other local national universities are increasing in order to strengthen social responsibility and publicness. Considering characteristics of their place of location, size, learning system, etc., K-NU10 have their own strengths. So based on them, they need to try to reestablish their roles and aims and differentiate functions from the others.





지역 거점 국립대의 미래 역할에는 네 가지 키 워드가 포함되어 있다. '지역', '거점', '국립대', '미래'가 그것이다. 개념 하나하나가 만만치 않 은 함축성을 갖고 있다. 거점 국립대는 대부분 지역(지방)에 있다. 현 시대에 지역은 차별을 의 미한다. 재정 수입, 교육문화 수준, 진학 인구, 의료서비스의 수도권과의 격차가 위험수위에 도달하고 있다. 수도권과 지역의 소득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는 건 물론이고, 인구절벽 쇼크 로 지역이 고사 직전이다. 30년 내, 지역의 시 군구 중 37%가 소멸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한 다. 인력과 기술의 부족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 한 대비도 미흡하여 미래 전망도 불투명하다. '지방소멸'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진단도 있다. '거점(據點)'은 지역의 교육, 연구, 산학협력의 본거지, 선도라는 의미를 갖는다. 지역거점대 학은 지역에서 섬처럼 고립되어 자폐적인 대학 이 되면 안 된다. 지역 교육과 문화, 산업의 본 거지로서 지역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지역 전체를 이끌어 가야 한다. 거점 대학은 지 역 교육기관의 맏형, 문화와 산업의 창출과 전 파자, 지역사회 네트워크와의 긴밀한 협조자로 서 지역발전에 앞장서야 한다.

국립대는 사립대와 대비된다. 사립대는 주인 (owner)이 있지만 국립대는 국민이 주인이다. 국민과 함께 가야 한다. 사립대가 이윤, 경쟁, 효율성으로 운영된다면 국립대는 근본(기본), 배려, 공동체, 사회적 책무라는 가치로 운영해 야 한다. 이와 같은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기초—보호학문 및 인문학 보호 육성, 학문후 속세대 양성 및 배려,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와 교육 기회 제공 등의 역할을 떠맡아야

'미래'는 혁신을 의미한다. 바뀌어야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다. 거점 대학이 지 능형 로봇, 스마트 자동차, 에너지 산업, 빅 데이 터와 스마트 헬스 케어 같은 정보 통신 기술 (ICT), 전문 서비스(PS), 미디어(MEI) 분야의 R&D 고도화 등과 같은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할 준비 가 완벽하게 되어 있을까? 거점 국립대학은 지 역 산업체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할 수 있는 연 구 인프라를 제공하고 리드해 나가야 하는데, 그럴 만한 역량이 갖춰져 있는지는 의문이다. 거점 국립대가 떠맡은 과제들은 사회의 공익적 가치와 연관해서 혁신 선도와 사회적 책무로 정리할 수 있다. 거점 국립대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최첨단의 기술을 연구·육성하여 지역 산 업계에 보급해야 한다. 지역의 산업이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게 선제적으로 이끌어가야 할 의 무를 갖는다. 이와 아울러 지역의 교육, 연구, 문 화, 산학협력의 기반 기구로서 지역의 대학과 기관들을 선도해야 한다.

사회적 책무는 거점 국립대가 구현해야 할 공 익적 가치와 보다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국 립대의 사회적 책무는 차별 철폐와 약자 보호 로 요약할 수 있다. 수도권에 대한 지역의 차별 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 균형발전에 앞장서야 한다.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학-관-산 컨소시 엄 구성을 통한 지역발전 시도도 해볼 만하다. 거점 국립대는 약자 보호라는 사회적 책무를 떠맡아야 한다. 거점 대학은 국립대학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면 사회적 책무를 다할 수 있다. 대학은 진리 탐구를 핵심적 사명으로 한다. 인 구 절벽 시대에 대학은 심각한 구조 조정 요구 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기초학문, 보호학문, 인 문학, 희귀학문이 철퇴를 맞게 될 것이다. 거점 국립대는 학문적 약자인 이들 분야를 보존, 유 지, 발전시켜 진리탐구라는 본연의 사명을 다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더 나아가 거점 국립대학은 학문 공동체를 유지하고 발전시킬 책무를 갖는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적 약자라고 할 수 있는 학문 후속세대를 보호 육성해야 한다. 특히 기초학문 분야의 대학원을 유지 발전시켜 학문의 맥이 끊이지 않도록 포스트 닥, 학문 후속세대 양성을 위한 인큐베이션, 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TA 제도확대 등을 통해 우수 학문 후속 세대를 양성하여 대학에 자리 잡도록 해야 한다.

이 외에도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장애인 보호, 다문화 가정 학생들에 대학 교육기회 확대 등에 힘씀으로써 사회적 약자 보호에 앞장서야 한다. 국립대학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대학 이기 주의를 벗어나야 한다는 걸 강조하고 싶다. 자 기 대학만이 살겠다고 하면 다른 대학도 그런 자세를 가질 것이고 그러면 정해진 파이를 놓 고 싸울 수밖에 없다.

국가균형발전,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국가의 전략적 목표 앞에서는 모두가 함께 동참하는 것이 좋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고, 혼자 싸우는 것보다는 여럿이 같이 싸워야 성과를 올릴 수 있다. 각 대학이 각자도생하기보다는 거점 국 립대 연합 공동체를 구성하여 매사에 공동보조 를 취했으면 한다. 지역의 교육과 연구만이 아 니라 국가 차원의 교육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 는 K-NU10이 되기를 바라다.

There exist four key words in a future role of K-NU10: 'Region,' 'Flagship,' 'National University,' and 'Future.' Each key word has significant implied meanings.

Most of the K-NU10 are located in a region. Today, a region means discrimination. The gap between the capital area and the other regions, such as financial income, level of education and culture, proportion of students, medical service, etc., is reaching alarming rates. An income gap is more and more exacerbated and many regional areas face shock of demographic cliff. It is said that 37% of the regions will have been disappeared within 30 years. For the lack of workforce and technology, many regional areas cannot prepare for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very well. Their future prospect is uncertain. There already exists a diagnosis, that is, realization of 'local extinction'.

'Flagship' means the university has to become a base camp of education, research,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 and be a leader of the region. K-NU10 should not be isolated and alienated like an island. As the base of regional education, culture, and industry, they have to lead the whole region with a strong network. As a leader of local education institutes, a creator and distributor of culture and industry, a close supporter of a local society network, they have to take the head in developing the area.

A national university is different from a private one. While a private university has its owner, a national one is owned by the nation, so it has to be with them. While a private university tends to be operated and managed by its profits, competition, and efficiency, a national one has to be managed by some values like basis (basics), solicitude, community, and social responsibility. To realize these values, a national university has to take over various roles like protecting and developing basic sciences and humanities, fostering next-generation academic researchers, caring socially disadvantaged class and offering them a chance to learn, etc.

'Future' means innovation. To survive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era, we need to change.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era includes 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ntelligent robots, smart cars, energy industry, big data, smart health care, ect.), PS (Professional Services), R&D Advancement in MEI (Media, Entertainment & Information). K-NU10 have been prepared enough to face the new era? They need to supply research infrastructure to the local industries so that they can prepare for the era, and also lead them. However, it is doubtful for them to have enough capability to do that.

Considering public value, tasks of K-NU10 can be classified into two: innovational lead and social responsibilities. They have to research and develop state-of-the-art technology and supply them to the local industries. They also have a duty to lead local industries not to be outdated. In addition, they have to lead other local universities and institutions as a base of local education, research, culture, and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

Social responsibilities are more closely related to public value, which K-NU10 have to realize. Their social responsibilities consist of abolishing discrimination and protecting the weak. To overcome discrimination against local areas, they should lead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And it's worth trying regional development by establishing university-government-industry consortium.

K-NU10 have to take care for the weak and they can do it when they are faithful to their duties. The important mission of a university is pursuing the truth. In demographic cliff era, universities can not help facing severe

restructuring and some basic sciences, humanities, or rare studies might run into difficulties. Therefore, K-NU10 should protect, preserve, and develop these fields to complete their duty, pursuit of truth.

Furthermore, K-NU10 have a responsibility to maintain and develop a scholastic community. For this goal, they have to protect and foster next-generation academic researchers. So, they need to maintain and develop graduate schools in the field of basic sciences, and expand post-doctoral system, incubation system, TA system, etc., which help the next-generation academic researchers take their place at a university.

Meanwhile, they should take the initiative in protecting the socially disadvantaged by providing support for a low-income group, protecting the disabled, expanding the chances to learn at a university for student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etc.

We need to avoid selfishness to carry out responsibilities faithfully as a national university. If we decide to survive alone, other universities are easy to take the same attitude. Then, we have no choice but to fight over a limited amount of pie.

We need to cooperate in front of the strategic purpose of the country, that is,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and protection of the socially disadvantaged. Many hands make a light work. We can achieve better results when we work together. Therefore, K-NU10 need to establish a K-NU10 coalition and stand shoulder to shoulder in every matter, rather than try to survive individually. I hope that K-NU10 does share education matters at the national level as well as regional education and research.



"함께하는 제전, 상생하는 거점 국립대!"

"The Festival of Togetherness, Coexistence of the Korea NU10!" 세계적 평화의 섬이자 우리나라 최고의 관광지인 제주도에 거점 국립대학교 총장협의회 회원교 교직원과 학생 500여 명이 모였다. 올해 네 번째 맞이하는 거점 국립대학교 제전이 열린 제주대에는 화합과 우정의 꽃이 유채꽃보다 더 아름답게 피어났다. 승부를 떠나 축제의 한마당으로 승화된 2019년 거점 국립대 제전을 돌아보았다. 또한 거점 국립대 제전과 때를 맞춰 2019학년도 제2차 거점 국립대학교 총장협의회가 10개 회원교 총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총장협의회는 또한 세계전기차협의회(GEAN)와 업무협력 협약을 체결하는 성과도 거두었다.

Jeju Island is renowned worldwide as an island of peace as well as the best tourist destination in Korea. On this island, more than 500 faculty, staff, and students of the members of the Council of the Presidents of the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 (CP K-NU10) gathered together. At Jeju National University who hosted the fourth annual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 (K-NU10) festival this year, the unity and friendship of the participants were harmoniously in full bloom even more beautifully than Jeju's canola flowers. Looking back on the 2019 annual K-NU10 festival, the participants could feel that the festival's sports competition was sublimated into joyful celebration regardless of victory or defeat. Along with this K-NU10 festival, the CP K-NU10 held its second 2019 meeting in which the presidents of ten member schools were present. CP K-NU10 also successfully accomplished the MOU execution of business cooperation with the Global Electric Vehicle Association Network (GEAN).





'소통·연대의 장' 넓힌 2019 거점 국립대 제전

The 2019 K-NU10 Festival Expands the Space for 'Communication and Solidarity'











'2019년 거점 국립대학교 제전'이 5월 10일 제 주대학교에서 열렸다. 제주대 주관으로 열린 이번 제전에는 거점 국립대 10개교 교직원 500여 명이 참가해 체육 문화 체험행사와 소 통의 시간을 가졌다. 거점 국립대 제전은 대학 간 협력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기 위해 2016년 에 시작돼 올해로 4회째 개최됐다.

행사 주관교인 제주대는 이번 제전 슬로건을

함께하는 제전, 상생하는 거점 국립대'로 정했다. '이기는 경쟁'보다는 대학 가족들 간에 즐겁게 소통하며 보다 더 끈끈한 연대의 장을 열어보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이번 대회에선 대학간 과열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종합우승 제도를 폐지했다.

따라서 이번 행사는 거점 국립대로서의 책무와 역할을 높이고 인적자원 교류 및 물적 자원의

국립대'로 정했 개방과 공유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가 균형발 독들 간에 즐겁 전을 선도하는 거점 국립대의 위상을 강화시킬 배의 장을 열어 수 있는 계기가 됐다.

한편 이날 체육행사에서 ▲족구(제주대, 경상대) ▲발야구(충남대, 전북대) ▲농구자유투(전남대, 충남대) ▲단체줄넘기(전북대, 경상대) ▲600m계주(전남대, 경북대) 부문에서 각각 1위와 2위를 차지했다.

거점 국립대학교 총장협의회 이상경 회장은 대회사에서 "경기에서 드러나는 승패는 서로 이해하고 협력하는 밑거름이요, 함께하는 응원과만세 소리는 거점 국립대학교의 미래를 비추는밖은 등불이다."라고 말하고 "함께하는 제전, 상생하는 거점 국립대라는 캐치프레이즈에 걸맞게 맞잡은 손 놓지 말고 마주한 얼굴 잊지 않으며 다함께 거점 국립대학교 깃발 아래 모여달라."고 강조했다.

The annual festival of the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 (K-NU10) was held at Jeju National University on May 10th.

In this festival hosted by Jeju National University, more than 500 faculty, staff, and students of ten K-NU10 came together to create their own space where they could freely communicate with one another through athletic, cultural, and experiencing events.

The K-NU10 festival began in 2016 to vitalize the cooperative network among the K-NU10s, marking its fourth annual event this year.

Jeju National University hosting this event put forth the slogan 'The Festival of Togetherness, Coexistence of the K-NU10s' for this festival. This was to provide a chance for the K-NU10 families to band together more closely and to communicate more joyfully with one another rather than focusing too much on winning the sports competition. Accordingly, to prevent excessive competitiveness among the schools,

the system of awarding the overall winners was abolished in this festival.

By doing so, the event provided a base to openly exchange and share human and material resources and to enhance the role and responsibilities of the K-NU10. Consequently, this also provided a chance to strengthen the status of the K-NU10 who have been leading the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To recap, the respective winner and the runner up of each game in this friendly sports competition are as listed below: ▲Foot volleyball: Jeju and Gyeongsang ▲Kickball: Chungnam and Chonbuk ▲Basketball free throw: Chonnam and Chungnam ▲Group jump-rope: Chonbuk and Gyeongsang ▲600m relay race: Chonnam and Kyungpook.

In his opening speech, President Lee Sanggyeong who is also the Chairman of the Council of the Presidents of the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 (CP K-NU10) said that "the mere victory or defeat of each game can better serve as the base of mutual understanding and cooperation along with the sound of triumphant shouts and cheers that could be a torch lighting the future of the K-NU10." He also emphasized that "we should continue to remind ourselves of the mutual needs and to provide mutual support befitting the catch phrase 'The Festival of Togetherness, Coexistence of the K-NU10'. All of us should gather together as one under the flag of the K-NU10 community."



20

거점 국립대 총장협의회 2019학년도 제2차 회의 제주대에서 개최

The 2nd Meeting of the 2019 CP K-NU10 Held at Jeju National University



거점 국립대 총장협의회(회장 이상경 경상대학교 총장)는 5월 10일 제주대학교에서 2019학년도 제2차 회의를 열어 협의 안건 등을 심의했다. 협의회는 이날 국제화 역량 인증제 학위대학 선정 등에 반영하는 유학생 불법체류율 산정 기준에 문제 발생 우려가 있어 현행 법무부 불법체류율 산정 기준의 합리적 개선을 요청했다. 또한 거점 국립대 국제화와학생교류 활성화를 위해 계절학기 영어강의 공동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또 협의회는 기초학문 분야의 학생 중도 탈락률 증가와 우수 학생의 수도권 편중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초학문 분야 중점 육성방안을 협의했다. 이 외에도 국립대 직장어린이집 운영 정부지원을 건의했다.

협의회에는 강원대 김헌영, 경북대 김상동, 경상대 이상경, 부산대 전호 환, 서울대 오세정, 전남대 정병석, 전북대 김동원, 제주대 송석언, 충남대 오덕성, 충북대 김수갑 총장이 참석했다.

이에 앞서 협의회는 5월 9일 제6회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가 열린 제주 국제컨벤션센터에서 한반도 전기차 발전 방향과 협력 포럼에 참석하고 세계전기차협의회(GEAN)와의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업무협약서에서 양측은 전기차 산업 발전을 위해 추진 중인 세계전기차협의회, 국제전기 자동차엑스포, 평양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 등의 사업에 대해 상호 협력 하기로 했다. On May 10th, the Council of the Presidents of the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 (CP K-NU10) led by Chairman Lee Sanggyeong was convened at Jeju National University to discuss and review the agendas of its second meeting in the academic year 2019.

During this meeting, the CP K-NU10 requested a reasonable improvement of the standard currently used by the Ministry of Justice to compute the rate of international students illegally staying in Korea. This is due to the concerns that problems could be arisen from this computation standard impacting the selection criteria of the certification system on globalization capabilities of degree granting universities.

The council also discussed ways to jointly provide seasonal English

courses in order to vitalize student exchange programs and globalization of the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 (K-NU10).

The CP K-NU10 discussed the fostering method to focus on the basic academic fields in order to respond to the increasing dropout rate among students of these fields. Also, this is to resolve the deepening problem that quality students are excessively concentrated in the metropolitan area of the nation's capital city. In addition, the CP K-NU10 suggested the government support for operating the workplace daycare centers at national universities.

The attendees of CP K-NU10 meeting in alphabetical order by school name are as follows: Presidents Kim Heonyoung of Kangwon, Kim Sangdong of Kyungpook, Lee Sanggyeong of Gyeongsang, Chun Hohwan of Pusan, Oh Sejung of Seoul, Jeong Byungseok of Chonnam, Kim Dongwon of Chonbuk, Song Seokeon of Jeju, Oh Deogseong of Chungnam and Kim Sukab of Chungbuk National Universities.

Prior to this meeting, the CP K-NU10 participated in the forum on May 9th for the direction of cooperatively developing electric vehicles on the Korean peninsula at the Jeju International Convention Center where the 6th International Electric Vehicle Expo was being held concurrently. In this event, the CP K-NU10 executed the MOU of business cooperation with the Global Electric Vehicle Association Network (GEAN). In this MOU, the both parties agreed to mutually cooperate in the currently progressing business to develop the electric vehicle industry, such as those of GEAN and of the International Electric Vehicle Expos including the one in Pyongyang.





거점 국립대 총장협의회 2019하년도

제2차 회의

회의 내용

세계전기차 협의회(GEAN)와의 업무협약 현행 법무부 불법체류율 산정 기준의 합리적 개선 국립대 직장어린이집 운영 정부지원 건의

기초학문 분야 중점 육성 방안 협의





기본에 충실한 대학, 미래를 준비하는 대학 **제주대학교**

To the Basic, For the Future

Jeju National University



MAJOR NEW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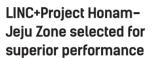
JNU 주요 소식

LINC+사업단, 호남·제주권 최우수 선정

제주대학교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LINC+) 육성사업단(단장 강철웅, 이하 LINC+사업단)이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실시한 LINC+사업 2차년도 단계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매우 우수'를 받아, 호남·제주권 최우수 사업단으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제주대 LINC+사업단은 사업운영을 위한 전국 최대 사업비인 43억 8,000만 원을 배정받았다.

이번 평가에서 제주대는 대학의 발전계획과 산학협력 중장기 발전계획 간의 연계 강화를 위한 노력과 지역사회 문제해결 프로젝트인 'LINC+' 뿐만 아니라 '학생 아이디어 제품 판매 장' 설치를 통한 창업도전 환경 구축 및 타 지 역 대학 학생의 현장실습 교류를 통해 대학 간 연계 활동에도 주도적 역할을 담당했다는 평 가를 받았다.

제주대 LINC+사업단은 2012년 LINC사업에 선정된 이후 233억 원의 국고를 지원받아 대학의 체질을 산업계 친화형으로 변모시키고 지속가능한 산학협력 기반을 구축해 오고 있다. 또한 현장실습ㆍ캡스톤디자인 등 산업체 연계교육과정 운영과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기업기술지원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수요 맞춤형 인재양성과 제주형 강소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고있다.



Jeju National University Community Taylor-made Industry Academy Cooperation Leading University (LINC+) Development Project (Kang Cheolwoong, Director) earned the top mark of "Very Superior" rating for the Honam-Jeju Zone program as a result of the 2nd step evaluations conduc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Accordingly, the JNU LINC+Project received a renewal grant of the maximum allowed 4.38 billion won.

In the evaluations, Jeju National University earned a superior performance rating for its tying efforts with the institutional and mid/long term developmental plans as well as for the regional problem solving "LINC+Flagship Project" in terms of its planning/management model. Furthermore, the JNU project received a meritorious evaluation for its leading role in exercising the entrepreneurship, inter-

university exchange activities, and practical training through "the student idea-generated products market." The Jeju National University LINC+Project has accomplished the transformation of the university to an industry-friendly institution and has been building the foundation for a sustainable industry academy cooperation. In addition, the project has successfully provided for practical on-site training, Capstone design and other industry-affiliated education program to forge the industry's technological support, community taylor-made training and Jeju's enterprising champions' competitiveness.









SCHOLARSHIPS BY UNIVERSITY

JNU 장학제도, 현황소개

장학금으로 반값 등록금 실현

제주대학교는 다양하고 풍부한 교외 및 교내 장학금 지원으로 학부모와 학생들의 경제적 부 담을 덜고 학생들의 학습 의욕을 북돋우고 있 다. 학부기준 2018학년도 재학생 1인에 지급된 평균 장학금은 276만 8,500원, 당해 연도 재학 생 1인당 평균 등록금은 378만 2,900원. 등록 금 대비 장학금 수혜율이 73.2%다.

제주대는 학생들에게 많은 장학혜택을 주면서 장학금으로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고 있다. 특히 2018년도부터는 소득분위 8분위 이하 학생 에게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장학금 내역을 보면 교외장학금으로 국가, 지방자치단 체, 발전기금, 장학단체 등이 지원하는 장학제 도가 마련돼 있다. 67개 단체가 장학금을 지원 하고 있고 발전기금으로 출연되는 장학제도도 29개에 이른다.

교내장학금은 성적우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복지장학, 근로장학 등이 있다. 성적 향상 장학금에는 성적 경고자가 성적을 일정 수준 높였을 때 지급하는 장학금도 있다. 성적관리 위기자의 대학생활 설계를 돕고 체계적인 학습 프로그램 유도를 통해 학교생활 적응 및 학습동기를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다.한편 2018학년도 장학금 규모는 교외장학금 212억 8,840만 3,000원, 교내장학금 60억 3,896만 7,000원 등 총 273억 2,737만 원에이른다.



Halving Tuition Payment with Scholarship Fund

Jeju National University has been able to boost students' desire to learn by reducing their own and families' economic burdens through a variety of intramural and extramural scholarship supports. On the average, an undergraduate student was paid a scholarship stipend of 2,768,500 won in the 2018 academic year, while his/her tuition was 3,782,900 won, i.e. 73.2% in tuition:scholarship. Jeju National University has succeeded essentially in halving each student's tuition payment. In particular, tuition has been fully waived for a student from the family with an 8 percentile income since 2018.

In terms of scholarship breakdown, a financial system of extramural scholarships has made the funding possible through the government, regional autonomous organization, development fund, and scholarship foundations. Sixty seven organizations have provided scholarships, and the institutional

development fund has supported 29 scholarship systems. Intramural scholarships have been available to award the students of superior scholastic achievements, social welfare needs, and part-time works, etc. We also have scholarships for students who have been on probational status but have subsequently been able to raise his/her grade point average. This scholarship was established to help those students in academic difficulties and support their learning. The 2018 academic year scholarship fund amounted to 21,288,403,000 (extramural) and 6,038,967,00 won (intramural), totaling 27,327,370,000 won.

세계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표대학

충남대학교

A Leading University of Korea Leaping onto the World Stage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TIPS 및 산학협력에 관한 국제포럼 개최

충남대학교는 4월 25일, 26일 양일간 대학본 부 별관 강당에서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TIPS 및 산학협력에 관한 국제포럼' 을 개최하고 TIPS타운 및 스타트업 타운과 관련한 해외 선진사례와 활성화를 위한 지혜 를 모았다.

이번 국제포럼은 '스타트업 생태계 건설', '스타트업 기업의 엑셀러레이션', '스타트업과 지역 혁신' 등 3개 세션의 발표가 진행됐으며 창업, 스타트업과 관련한 국내외 전문가 10명의 주제발표를 통해 각 기관들의 성공적인 모델을 설명하고 토론을 이어갔다. 또한, 주제 발표자들은 오덕성 총장과의 특별 대담을 통해 서로가 나아갈 길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오덕성 총장은 대전의 4차 산업혁명 도시 프로젝트의 비전을 비춰주는 'CNU TIPS(스타 트업)도시' 주제의 기조연설을 통해 기존 대학 의 틀에서 벗어나 기업가 대학의 모델을 제시 하고 R&D로부터 사회적·경제적 가치를 창조 하는 방법을 설명했다.

오덕성 총장은 스타트업 생태계의 성장과 혁신, 충남대-스타트업 타운을 중심으로 한 3중-나선형 모델제시, 또한 그에 따른 R&D 활동 등의 내용들을 언급하면서 'CNU TIPS 도시 프로젝트'의 준비와 성장 및 발전에 대한 거시적 로드맵을 제시했다.

CNU Hosted 'International Forum of TIPS & Academia-Industry Collaboration'

CNU hosted 'International Forum of TIPS & Academia-Industry Collaboration' in the annex auditorium located at the administration building last April 25th and 26th with presenting domestic and international experts. This forum was a time for brainstorming advanced examples from overseas and ideas for implementing.

This international forum had three sessions on 'Ecosystem Construction for Startups', 'Acceleration for Startups' and 'Startups and Regional Innovation' with topic presentations from 10 domestic and international experts. They presented successful models from their organizations and institutes and had discussion on each topic. Presenters also had a special talk on further strategies with the president of CNU, Oh Deogseong afterwards.

Oh Deogseong, the president of CNU gave a keynote speech on 'CNU TIPS City' which suggests ideal models for universities out of the conventional framework and strategies for social and economic value from R&D by explicating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of Daejeon city.

He also mentioned a wide range of activities for a macro roadmap in terms of fostering and developing 'CNU TIPS City Project' along with suggesting a triple-spiral model oriented with CNU-Startup town, growth and innovation of startup ecosystem.









SCHOLARSHIPS BY UNIVERSITY

CNU 장학제도, 현황소개

대한민국 기부의 효시 '김밥 할머니' 정신 이어받은 '정심화장학회'

충남대학교는 대한민국 기부문화의 효시가 된 정심화 이복순 여사의 뜻을 받들어 1991년부터 '정심화장학회'를 운영하고 있다.

'김밥 할머니'로 잘 알려져 있는 故 정심화(正心華) 이복순(李福順) 여사는 김밥 판매와 여관 경영으로 평생 근검절약해 모은 현금 1억 원과 50여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1990년 충남대에 기부했다. 이복순 여사의 행동은 '평범한 사람의위대한 기부'로 불리며 당시 사회에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으며, 대한민국 기부문화의 효시로평가받고 있다.

충남대는 이 기부금을 토대로 1991년 1월 '충남 대학교정심화장학회'를 만들었고, 이복순 여사 는 92년 8월 7일 향년 79세의 일기로 별세했다. 충남대는 이복순 여사의 기부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2000년 '정심화국제문화회관'을 건립했 으며, 지난 27년간 402명에게 6억 6,000여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해 오고 있다. '김밥 할머니'의 기부정신은 이복순 여사와 생전 각별한 인연이 있었던 '포목점 주인' 성옥심여사(2015년 12월), 삶이 다할 때까지 학생들의 뒷바라지를 약속한 '말단 공무원' 함정옥 선생(2010년 3월), 기구한 삶의 마지막에 전 재산을기부한 '식당 아줌마' 故이영숙 여사(2018년 2월)로 계승되고 있다.

Jeong·Sim·Hwa Scholarship Foundation in the spirit of Gimbap Grandma who was the pioneer in donation in South Korea

CNU has run Jeong Sim-Hwa Scholarship Foundation since 1991 taking over a good will of Jeong Sim Hwa Lee Bokssun who was the pioneer in donation of South Korea.

The late, Mrs. Jeong Sim Hwa, Lee Bokssun who was well known as Gimbap (Korean rice roll) grandma donated KRW 100 million (USD 85,000) in cash and real estate worth KRW 5 billion (USD 4,250,000) which she had saved her lifetime to CNU in 1990. Her donation had

caused great repercussions in society so called 'great donation of an ordinary person' and was considered as the beginning of the culture of donation in Korea.

CNU established CNU Jeong-Sim-Hwa Scholarship Foundation in January 1991 with her donation. The late Mrs. Lee Bokssun passed away on August 7th, 1992 at the age of 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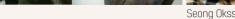
CNU had constructed Jeong-Sim-Hwa International Cultural Center in the year of 2000 to inherit the spirit of Mrs. Lee Bokssun and provided scholarship to 402 students with KRW 660 million (USD 550,000) for last 27 years.

The donation spirit of Gimbap (Korean rice roll) grandma has been succeeded to Mrs.

Seong Okssim (2015, December) who was an owner of a linen shop with a special bond with Mrs. Lee Bokssun and Mr. Ham Jeongok (March, 2010), the minor government official who made a lifetime commitment for taking care of students until life is over and the late Mrs.

Lee Youngsuk (February, 2018) who donated all of her whole fortune at the end of her unfortunate life.







Ham Jeongok



Lee Youngsu

함께 여는 역동적 미래 **충북대학교**

A Dynamic Future that We Will Open Together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MAJOR NEWS

CBNU 주요 소식

가정의 달 반려동물과 함께 즐기는 연휴! '반려동물 한마당' 개최

충북대학교가 가정의 달을 맞아 5월 5일 반려 동물 한마당을 개최했다. 동물의료센터가 주 최하고 수의대 'AND YOU' 학생회가 주관한 올해 반려동물 한마당에서는 반려동물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개 좋은 콘서트', 동물행동 교 정 펫티켓 강연, 일일 수의사체험, 반려견 달리 기 대회, 행운의 빙고, 반려견과 미니게임 등 다 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뿐만 아니라 동물의료센터 의료진의 반려동물 무료 건강검진과 무료 미용 서비스, 페이스페 인팅, 반려동물과 함께 사진 찍기, 동물 목걸이 만들기, 동물부채 만들기 등 다양한 부스 행사 도 함께 운영됐다.

1991년 이래로 매년 개최돼 올해로 29회째를 맞이한 이번 행사에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많 은 지역주민들의 참여로 성황리에 마무리됐 다. 특히, 수의과대학 설립 30주년을 맞아 동 문 홈커밍데이 및 어울림 한마당 행사 등 동문 및 수의과대학 전 구성원이 즐길 수 있는 축제 의 마당으로 구성됐다. 한편, 수의대는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동물 의료센터 학교기업지원 사업, BK21 플러스 사 업, 동물의학연구소 중점연구소 후속과제, 특 성화 사업 및 해외우수기관 유치사업 선정 등 주요 국책과제를 수행하며 교수의 연구역량 강화는 물론, 학생들의 교육여건 개선 등에 눈 부신 발전을 이룩해 왔으며, 2016년부터 4년 간 수의사국가시험 100% 합격은 물론, 전국 최상위 취업률 등 명실상부한 중부권 최고의 대학으로 거듭나고 있다.

Holiday with Pets in Family Month at CBNU! 'Hdd Companion Animal Festival'

To celebrate family month, CBNU held a companion animal festival on May 5th. It was hosted by CBNU Veterinary Medical Center and run by 'AND YOU,' a student council of the Veterinary Medical College. There were many programs like a 'Gaejoeun' (Great) Concert, a lecture on petiquette: animal behavior modification, an one-day vet experience, a pet race, lucky bingo, mini games with pets, etc.

In addition, there were various kinds of booths like free health checks from medical staff of

CBNU Veterinary Medical Center, free pet beauty treatment, face painting, taking pictures with pets, making collars for pets, making animal-printed fans, etc.

This festival has been held for 29 years since 1991 and many local people really enjoyed it with their pets. Especially, this year Veterinary Medicine College celebrated its 30th anniversary. So the festival added special events like Alumni Homecoming Day and 'Oulim Hanmadang,' which could be enjoyed by all members of the vet college as well as its alumni.

Although CBNU Veterinary Medicine College has a little short history, it has carried out major nationally-funded projects such as School-Based Enterprise Support program of Veterinary Medical Center, BK21 plus project, Priority Research Center Program, CK (University for Creative Korea) project, Overseas excellent institution inducement project, etc. Thus, it has successfully strengthened research capability of professors and improved the educational environment of learning. Moreover, as the best college in the middle area, 100 % of the students have passed the state examination to work as a veterinarian and also got the highest employment rate around the country since 2016.









SCHOLARSHIPS BY UNIVERSITY

CBNU 장학제도, 현황소개

너의 끼를 펼쳐봐! 호기심·끼 장학금으로 학생들의 열정 지원

충북대학교에서는 미래사회를 대비해 다양한 분야의 재능을 겸비한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호기심·끼 장학생'을 지원하고 있다.

호기심·끼 장학생 제도는 학생들을 꾸준히 지원해 개인의 꿈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 미래사회를 대비해 다양한 분야의 재능을 겸비한인재를 개발하고, 더 나아가 사회를 이끄는 리더로 육성시키기 위한 제도다.

학생들은 문화 예술분야 뿐만 아니라 로봇, 드론, 무인 자동차, 앱 개발 등 미래 4차 산업분야를 선도하는 분야에서 1년간 지원받으며, 자신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자유롭게 연구하고, 도전한다.

학생들은 호기심·끼 장학금을 기반으로 온라인 문화콘텐츠 개발, 유튜브 1인 크리에이터 모임 운영, 청춘토크쇼 진행, 자동 냉난방 기능이 작 동하는 프로그래밍 코딩, 스마트카의 사고방지 프로그램 개발, 로봇 개발 등 다양한 콘텐츠 개 발을 통해 자신의 끼를 발산하고 있다.

전자공학부의 한 학생은 스마트카의 안전성을 위해 실제 사고 상황을 모델링해 시뮬레이션을 하고, 이를 기반으로 스마트카 실험 경진대회 설계 프로젝트에 출전, 논문을 쓰는 등 본인이 배우고 싶은 분야에서 경험을 쌓고, 더 나아가 졸업 작품으로 발전시켜 우수한 작품을 선보이 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관련 분야의 자격증까 지 취득해 자신의 경력을 쌓기도 했다.

로봇 연구에 대한 열정을 불태운 팀도 있었다. 이 번 장학금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시뮬레이션하 고, 이전 경기에서 생긴 문제점들을 보완한 결과 로봇 경진대회에서도 점차 좋은 성적을 거뒀다. 한편, 호기심·끼 장학금은 지난 2017년부터 대신정기화물자동차 오흥배 대표이사가 지속 적으로 장학기금을 기탁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호기심장학생'들을 선발해 운영해오고 있다. 이번 2019학년도 호기심·끼 장학생에는 10명의 학생을 선발해 한 해 동안 지원하며, 현재까지 20명의 학생들이 지원을 받아자신의 꿈을 키우고 있다.

Show Your Talent at CBNU! supports Students'Passion with Curiosity & Talent Scholarship

CBNU has chosen and supported "curiosity & talent scholarship students" to find men of talent in various fields and thus make them prepare for the future.

Curiosity & Talent Scholarship helps students to achieve their dream with steady support, making them men of talent in various fields and even leaders in the next generation.

Students can be supported for a year in the leading fields of the 4th future industry, such as robotics, drone, self-driving car, application development as well as the fields of culture and arts. They will research and challenge freely to achieve their 'dream.'

With this scholarship, students have carried out so many things, like developing online cultural contents, managing a Youtube individual creator club, hosting a youth talk show, coding automatic air conditioning and heating programming, developing the accident prevention program of a smart car, developing robots, etc.

For example, a student in School of Electronics Engineering did simulate by modeling various situations of real car accidents to acquire safety of a smart car. With the results, he attended the smart car experimental competition and made proposals for a design project. He also wrote a paper and got a license in a related field. Like these, he could get a lot of experiences in the fields that he wanted to learn. Therefore, he was able to submit an excellent graduation work.

There was a team dedicated to robot research. With this scholarship, they could keep simulating and compensating the problems from previous competitions. So, the team was able to get gradually improved results at robot competitions.

Meanwhile, Curiosity & Talent Scholarship has been operated with scholarship fund that has been donated by Oh Heungbae, CEO of Dae-shin Regular Freight Service since 2017. In 2019, a total of 10 students will be able to receive the scholarship for a year. And so far, 20 students are trying to make their dreams come true with it.



통일한국의 중심대학 **강원대학교**

The Hub University of the Unified Korea

Kangwon National University





강원대, 군장병 취·창업 지원 '강원 열린군대' 사업 추진

강원대학교는 강원도, 육군 2군단과 손잡고 제대 장병의 취·창업과 지역 정착을 돕는 '강원열린군대' 사업에 나섰다. 이들 3개 기관은 지난5월 2일 강원대캠퍼스 산학단지 내 'KNU스타트업 큐브'에서 군장병취·창업 지원프로그램인 「강원열린군대」 출정식을 갖고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사업은 세기관이 상호 협력해 강원도 내역량 있는 군장병들에게 취 창업 관련 교육 기회를 제 공하고,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오는 11월 까지 육군 2군단 소속 장병 70명을 대상으로 ▲ 드론 ▲앱(App) 개발 ▲3D 프린터 ▲AR(증강현 실) 및 VR(가상현실) 등의 교육을 진행한다.

특히, 강원도와 2군단은 군장병 교육생들이 전역 후취업할 수 있도록 일자리 정보 및 지역기업과의 매칭 서비스를 제공하고, 복무경험과전문성을 발휘해 창업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강원대는 'KNU 스타트업 큐브'를 교육 및 창업공간으로 제공하고 진로 컨설팅, 첨단지식산업 맞춤형 직업교육 훈련, 창업 강좌 및 창업 아이템 사업화 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또한 오는 2024년까지 춘천 도심 내 군부대 유 휴부지(약 2만 6,000㎡)에 '군 취·창업 클러스터'도 조성하기로 했다. 이곳에는 군 창업실험실과 BI(창업보육)센터, 아파트형 공장인 Post-BI센터 등이 들어선다.

이와 함께, '스타트업·벤처투자펀드 조성', 'BTL 창업사관학교 운영' 등의 입주기업 지원 프로 그램, '강원도 제대군인정착 지원센터 학내 이 전'을 통한 군장병 교육훈련·진료교육에 나설 예정이며, 내년부터는 해군과 공군을 비롯하 여 전국적으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KNU's 'Gangwon Open Military' Program Supports Soldiers in Employment Searches and Business Startups

Kangwon National University (KNU), in cooperation with Gangwon Province and the Army Second Corps, is implementing a program called 'Gangwon Open Military.' The aim of the program is to support discharged military personnel in finding employment or starting up businesses, and assisting them in settling in the region.

On May 2nd, the three organizations held the opening ceremony of 'Gangwon Open Military' at the KNU Startup Cube, which is located in the industrial-academic complex of KNU. They officially signed off on a business agreement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gram during the ceremony.

The program provides educational opportunities related to recruitment and startup ventures for qualified soldiers within Gangwon Province. The purpose of the program is to help them settle in Gangwon.

Programs in the following areas are available: ▲Drone; ▲App Development; ▲3D Printing; and ▲Augmented Reality (AR) and Virtual Reality (VR). These programs will be open for 70 soldiers at the Army Second Corps until November.

Specifically, Gangwon province and the Army Second Corps offer job opportunities and matching services with local enterprises, in order that military personnel can be hired after they are discharged. Additionally, they are planning to provide startup support

services based on applicant's military experience and expertise.

To help achieve this, KNU developed the 'KNU Startup Cube,'an educational space that offers the following: career consulting,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customized for advanced-tech and the knowledge industry, startup lectures, and support for business startups.

Furthermore, KNU is planning to build a 'Military Employment-Startup Cluster' at an idle site (with an approximate area of about 26,000m²) on the military camp within the Chuncheon downtown area by 2024. Here, a startup research center, business incubator (BI) and Post-BI center, and a factory will be constructed.

Finally, support programs for moved-in firms including 'Startup-Venture Investment Funding' and 'Operation of BTL Startup Military Academy' as well as education/training and vocational training for military personnel such as 'Relocation of Gangwon Veteran Support Center' will be organized.

The program will be expanded throughout the nation next year. The navy and air force will also participate in the program from next year.









SCHOLARSHIPS BY UNIVERSITY

KNU 장학제도, 현황소개

강원대, 실사구시형 인재 양성을 위한 차별화된 장학제도 운영

강원대학교는 학생 친화적이며 수혜자 중심의 다양한 장학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재학생 의 장학금 수혜 비율은 2017년 기준 91.8%이 며, 1인당 장학금 수혜액은 294만 원에 이른다. 특히, '실사구시형 인재' 양성에 요구되는 핵심 역량인 '실천·미래·창의·인성·협동'을 배양하기 위한 차별화된 장학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KNU 핵심역량 장학금 ▲미래석사 장학금 ▲ 학부연구생 장학금 ▲백송 장학금 ▲정범구호 국장학금이 대표적이다.

'KNU 핵심역량 장학금'은 학생들의 역량 개발을 지원하는 맞춤형 장학금이다. ▲연속 2회학사경고자 중 성적향상자 ▲국가고시 합격자 ▲한자·컴퓨터·한국어 자격 취득자(비전장학금) ▲ 어학성적 우수자 ▲대회 입상자 ▲봉사 및 헌혈 우수자 등에게 지급하고 있다. 이 가운데 '비전장학금'은 강원대 학생이 직접 설계하고 고안한 제도로, 2017년 '개교 70주년 기념 장학금 공모전'을 통해 최우수로 선정된 장학금이다.

'미래석사 장학금'과 '학부연구생 장학금'은 대학원을 준비하는 학부생에게 생활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대학원 진학을 장려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학생들은 등록금 부담 없이 학업을계속할 수 있고, 대학은 대학원 우수 인재를 유치함으로써 교육역량을 강화하는 시너지 효과를 얻고 있다.

'백송 장학금'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학업에 정 진하는 우수인재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으로 향 토기업가의 기부금으로 조성됐다.

'정범구 호국장학금'은 천안함 사고로 순직한 故 정범구 병장의 모친이 정부 보상금 전액을 기부금으로 기탁해 조성된 장학금이다. 국가유 공자 또는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해 고인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학교 사랑의 정신을 이어 나가고 있다.

KNU Runs Differentiated Scholarship Programs to Nurture Talent of Empirical Tradition

Kangwon National University (KNU) has a wide range of student-friendly and beneficiaryoriented scholarship programs. 91.8% of the enrolled students received a scholarship as of 2017, with the amount of scholarship awarded per student being 2.94 million won. In particular, KNU operates differentiated scholarship programs for development of 'practice/future/creativity/personality/cooperati on' which are core competencies required to nurture talent of empirical tradition. KNU is pleased to offer the following scholarship programs: A KNU Core Competence Scholarship A Future Master Scholarship ▲ Undergraduate & Research Student Scholarship

Baeksong Scholarship and the ▲ Jeong Beomgu Memorial Scholarship.

'KNU Core Competence Scholarship' is a customized scholarship program that supports the skills building of our students. The scholarship is granted to those ▲ with improved GPA scores among those with academic probation two times in a row; ▲ who passed the national exams; ▲ qualified with certificates of Chinese characters, computer and/or Korean language (Vision Scholarship); ▲ listed in the dean's list of language fluency; ▲ who have received awards in contests; and ▲ those engaged in volunteering and blood

donation activities. Among these is the 'Vision

Scholarship, a program in which KNU students

are involved in designing. This was awarded a prize for excellence at the 'Scholarship Contest Celebrating KNU's 70th Anniversary' in 2017.

The 'Future Master Scholarship' and 'Undergraduate and Research Student Scholarship' are meant to support the cost of living of undergraduate students preparing to apply for graduate school. Without having to worry about tuition fees, students will be encouraged to continue studying and KNU can attract competent students to strengthen its educational capacity.

The 'Baeksong Scholarship' is a scholarship program for the talented who devote themselves to study under difficult surroundings, and is funded by entrepreneurs from rural areas.

The 'Jeong Beomgu Memorial Scholarship' is a scholarship program funded entirely by the mother of Sergeant Jeong Beomgu, who died in the Cheonan warship incident. She has graciously donated all of the government's compensation in her son's memory. The scholarship is awarded to a person of national merit or his/her children in order to pay tribute to the spirit of patriots and express love for their school.

세계를 주도하는 첨성인, 미래를 선도하는 **경북대학교**

Creating New Trends and Setting New Standard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KNU 주요 소식

인문한국플러스 사업 최종 선정 최대 7년간 87억 5.000만 원 지원

경북대학교가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2019 년 상반기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인 '인문한국플러스(HK+1유형) 사업'에 최종 선정 됐다. 이번 사업 선정으로 경북대 인문학술원 은 '동아시아 기록문화의 원류와 지적 네트워 크 연구' 사업을 추진하며, 연간 12억 5,000만 원씩 최대 7년간 총 87억 5,000만 원의 사업비 를 지원받는다.

종이가 보편화되기 이전 동아시아 지역의 기록 자료인 죽간(竹簡) 또는 목간(木簡) 자료에 대한 종합적 연구로, 지금까지 동아시아 죽·목간 전체를 아우르는 종합적 연구가 시도된 점이 없다는 점에서 이번 연구는 학술사적으로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 '동아시아 기록문화의 원류와 지적 네트워크 연구'는 역사학, 한국어문학, 고고인류학, 철학, 고문자학, 서지학, 사전학등분과학문 전문연구자 간 경계를 넘는 학제적연구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인문한국플러스사업'은 대구경북 지역에 서 진행되는 최초의, 그리고 최대 규모의 인문 학 연구 사업이라는 점에서 영남지역 인문학맥 의 불씨를 일구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 대된다.

한편 경북대는 인문학 연구 성과를 일반 대중에게 환원하기 위해 '지역인문학센터'를 설치하고, 대구·경북 지역민 대상으로 인문학 강의를 비롯한 다양한 인문학 관련 프로그램을 실시할 계획이다.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hereafter KNU) has been selected for the Humanities Korea+1(HK+1) project, which is an academic research support project established by the Korean Ministry of Education and the Korea Research Foundation.

As part of this project, the *KNU Institute of Humanities Studies* will instigate a 'Study on the Origin of Archival Culture in East Asia and Its Intelligent Network', and will be funded 1.25 billion Korean won yearly for a maximum of 7 years (totaling 8.75 billion won). This research holds significant importance as it is an unprecedented, comprehensive study focusing on bamboo and wood-based archives that existed before paper became a universal means of recording information in the East Asian region.

The Study will be conducted as an interdisciplinary research project with no borders between academic researchers who specialize in various branches of academics including history, Korean literature, archaeology, philosophy, paleography, bibliography and lexicography.

As the first and largest scale research program of its kind in the field of humanities in the Yeungnam area, the 'HK+ Project' is expected to kindle further academic studies of liberal arts in the area.

In order to share the findings of the research with the general public, KNU will establish the *Regional Humanities Research Center*, and provide various liberal arts programs including special lectures on humanities.









SCHOLARSHIPS BY UNIVERSITY

KNU 장학제도, 현황소개

능력 있는 경대인을 위한 다채로운 장학제도 마련

경북대학교가 해마다 765억 원이 넘는 장학금 을 재학생에게 지급하고 있다.

경북대는 매학기당 500만 원의 학업지원비가 지원되는 KNU+인재장학금부터 도전 장학금, 성적우수장학금을 비롯한 다양한 기준의 등록금 감면 장학제도는 물론 재학생 개개인의 능력과 장기를 평가한 KNU 국가고시 장학금과 우수 연구장학금 등을 지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학부 졸업 후 해외 명문 대학의 대학원에 진학하는 졸업생에게 '글로벌 100 진학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재학생들에게 도전의식을 자극하는 다채로운 방식의 장학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다양한 능력을 갖춘 재학생들을 위한 교외장학 금도 많다. 특히 계약학과인 모바일공학 장학 금, LG디스플레이와 함께 하는 Track 장학금 등 기업과 함께하며 취업과 연계한 장학제도가 눈 에 띈다.

경북대는 자기계발 못지않게 이웃사랑을 실천 하며 인류애를 체득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장학금 지급에도 적극적이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기업과 함께 진행하는 '삼성드림클래스' 와 'H-JUMP 스쿨멘토링'. 경북대 재학생들은 방학기간 혹은 학기 중에 정해진 시간만큼 청소년에게 맞춤형 학습 지도 및 정서적 멘토링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장학금을 지원받는다. 재학생들은 이 장학제도 프로그램에 참가해 경제적 지원을 받는 것은 물론 자신의 재능을 나누고, 더불어 사는 삶의 가치를 배우는 기회를 가진다.



Various Scholarships for KNU Student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hereafter KNU) provides a wide range of scholarships to KNU students, amounting to over 76.5 billion won in financial aid every year.

In order to stimulate the spirit of challenge among students, KNU provides a wide range of scholarships, from KNU+ Super Star Scholarships, Challenge Scholarships, and academic achievement scholarships, to differential tuition exemption (applied by various criterial, KNU national exam preparation scholarships, and scholarships for excellence in research. In addition, undergraduate students who advance to top graduate schools overseas are awarded the Global 100 Advancement Scholarship.

A number of external scholarships are also available in connection with supporting student employability, including the Mobile Engineering Scholarship given to students in the Mobile Engineering contract department and LG Track Scholarships offered by LG Displays.

Not only focusing on self-development, scholarships are also available for those who serve in various communities. Good examples are the Samsung Dream Class and 'H–JUMP' School Mentoring scholarships, which are run in cooperation with private enterprises. In this program, students participate in customized study and student mentoring programs and receive scholarships in return. Participants say that they find joy by sharing their talents and learn life values through living together with their neighbors while receiving financial aid.

미래가 있는 대학, 다 함께 행복한 대학 SMART GNU 경상대학교

The University with a Promising Future and Full of Happiness! SMART GNU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MAJOR NEWS - GNU 주요 소식

대학원생의 학문 축제 젊은 개척연구자의 날 전국 대학 중에서 유일 우수연구자 72명 수상

경상대학교는 5월 16일 '제19회 젊은 개척연구 자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5월 13일부터 17일 까지 1주일간은 경상대의 젊은 개척연구자 주 간으로, 그중 5월 16일은 젊은 개척연구자의 날이다.

이 행사는 대학원생의 연구의식을 고취하고 우수한 연구성과를 격려하며 다양한 학술행사 를 개최함으로써 연구중심대학으로 성장하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2010년 처음 개최했다. 이후 해마다 1, 2학기에 전체 대학원생이 함께 하는 한마당 축제를 펼쳐 왔다. 전국에서 대학 원생을 위한 학술 행사를 개최하는 대학은 경 상대가 유일하다.

경상대는 이 행사를 통하여 '진리를 향한 열정', '기존의 관점과 방식을 벗어난 비판정신', '고난 과 역경을 견뎌내는 인내', '과정의 적합성과 결 과에 대한 겸손함'을 가르친다.

젊은 개척연구자의 날 행사에서는 국내외 학술지에 우수논문을 게재한 대학원생 72명이 상을 받았다. 나노신소재융합공학과 석박사 통합과정을 수료한 박광훈 씨, 응용생명과학 부박사과정을수료한사예드이브라알람(SAYED IBRAR ALAM) 씨, 교육학과 박사과정 조정미 씨 등 3명은 최우수상을 받았다.

이상경 총장은 대학원생들에게 "비록 학문은 이루기 어렵지만, 좌고우면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면 오르지 못할 나무도 아니라는 사실 을 기억하라."고 당부했다.

Academic Festival of Graduate Students Young Pioneer Researchers' Day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GNU) held the events of the 19th Young Pioneer Researchers' Day on May 16th.

GNU designated the Young Pioneer Researchers' Week from May 13th to 17th, and the Young Pioneer Researchers' Day on May 16th during this week.

This event was first held in 2010 to provide the base frame from which GNU could grow into a research-oriented university. In order to do so, GNU has tried to inspire graduate students' passion for research, encourage quality research achievements, and hold various academic events. Since then, GNU has held a semiannual festival in each semester, where all graduate students can come together. In Korea, GNU is the only university who holds an academic festival for graduate students.

Through this event, GNU teaches 'passion for the truth; spirit challenging the existing views

and methods; perseverance overcoming hardship and adversity; as well as appropriateness of processes and modesty regarding outcomes.'

On the Young Pioneer Researchers' Day, 72 graduate students received the awards for publishing their excellent papers in domestic and foreign academic journals. Among them, three individuals received the best paper award: Park Gwanghun who completed his combined master and doctoral program of the nano material convergence engineering department; Sayed Ibrar Alam who completed his doctoral program of the applied life science department; and Jo Jeongmi who is in her doctoral program of the education department.

President Lee Sanggyeong sincerely asked graduate students to remember the fact that "although one's academic goal is not easy to achieve, if he persistently puts his effort into it without losing his focus, no goal is too high to reach."









SCHOLARSHIPS BY UNIVERSITY

GNU 장학제도, 현황소개

등록금의 72% 이상 장학금으로 되돌려준다 110여 종의 교내외 장학금… 탄탄한 디딤돌

경상대학교는 학생들의 꿈을 실현시켜 주기 위한 탄탄한 디딤돌인 장학제도를 체계적으로 운영하다.

교내 장학금 26종(GNU 리더스 장학금 등), 교 내 장학재단 장학금 6종(김순금 장학재단 장학 금 등), 교외 장학금 83종(농어촌희망재단 장학 금 등), 기타 국가장학금 등 100여 종을 운영 중 이다.

학생 1인당 장학금은 275여만 원으로 학생들이 낸 등록금의 72.3%를 장학금으로 되돌려준다. 학생들이 받는 장학금 총 금액은 379억 3,700 여만 원이나 된다.(2017학년도 기준)

장학금의 원칙은, 가정 경제가 어려운 학생을 돕고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혜택을 부여하여 교육의 내실화 선진화를 기한다는 것이다.

교육 내실화와 선진화에 대비하여 인문 100년 장학금, 우수 신입생 특별장학금, 재학생 영어 능력 향상 장학금을 지급했는데 2018년에는 4 억 5,300원이다. 소수집단 재학생(장애학생, 외 국인 유학생, 북한이탈학생)에게는 1억 7,300여 만 원을 지원했다. 비교과 활동을 성실하게 이 수하는 학생에게도 장학혜택을 부여한다. 2018 년 2학기에만 489명이 2억 1,000여만 원의 혜 택을 받았다.

독지가가 설립한 장학재단도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 가령, 김순금 장학재단은 2007년부터 12년 동안 305명에게 5억 1,36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해 '근면 성실한 학생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데 기여했다.

More than 72% of Tuition Reimbursed as a Scholarship Steppingstone Solidified by More than 110 GNU and Outside Scholarships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GNU) systematically offers more than 100 scholarships as a solid steppingstone that can help students actualize their dreams.

This includes 26 campus scholarships such as GNU Leaders; 6 from GNU's scholarship foundations such as the Kim Sungeum Foundation; 83 outside scholarships such as the Hope Foundation for Farming and Fishing Villages; as well as other national scholarships.

The amount of scholarship is about 2.8 million Won per student. This means 72.3% of the tuition a student paid can be reimbursed in a form of scholarship. In the academic year 2017, a total scholarship amount granted to GNU students was about 38 billion Won.

In principle, a scholarship is designed to advance and reinforce education by helping students whose family has a financial difficulty and by providing benefits for those demonstrate their academic excellence.

To respond to advancement and reinforcement of education, GNU granted a total scholarship amount of more than 453 million Won in 2018, including its '100 Years of Humanities' scholarship; special scholarship for academically qualified freshmen; and scholarship for the current students to improve their English skills. A scholarship amount of 173 million Won was also given to the currently enrolled students of minority groups such as the disabled, North Korean defectors, and international students. Students with outstanding extracurricular activities also received a scholarship. Just in the second semester of 2018, about 489 students benefited from this scholarship of more than 210 million Won.

Charitable foundations established by philanthropists have also been a great help to students. For example, the Kim Sungeum Scholarship Foundation has granted about 514 million Won to 305 students over the past 12 years starting from 2007. This foundation has certainly contributed to GNU so that "diligent and earnest students would not have to give up their university education due to a financial difficulty."



학생의 미래가 있는 대학,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대학 부산대학교

A University Guided by the Future of Students, A University Loved by the People **Pusan National University**





개교 73주년 부산대 롯데 프로야구 매치데이 학생·교직원과 시민 등 1만 명 대규모 개최

2019년 개교 73주년을 맞은 부산대학교가 구성원 화합과 대학-도시의 상생발전을 위한 롯데 프로야구 응원전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번째로 마련해 또 한 번 뜨거운 젊음의 함성을 울렸다.

「2019 효원한마당: 부산대-롯데자이언츠 매치데이」 행사는 5월 14일 오후 부산 사직야구장에서 열린 롯데자이언츠와 LG트윈스 팀의 2019 KBO리그 홈경기에서 진행됐다. 지난해참가인원 5,000여 명의 2배 규모인 1만 석을가득 메운 부산대 구성원들은 시민들과 한데어우러져 소통의 장을 만들었다.

전호환 부산대 총장은 "73년을 이어 온 우리 대학의 뜨거운 열정과 노력, 시민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에 힘입어 부산대는 더욱 많은 발전과 성장을 이뤄갈 것"이라며 "부·울·경 동남권이 힘을 합쳐 수도권에 상응하는 또 하나의지역 거점이자 지역균형발전의 허브가 되도록부산대가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에 앞서 부산대 합창단 45명과 다문화 가정 멘토링 프로그램으로 운영돼 온 부산대 효원 레인보우 오케스트라 단원 5명이 함께 무대에 올라 애국가를 부르는 뜻깊은 하모니가 연출됐다. 시구와 시타는 전호환 부산대 총장과 조한수 부산대 총학생회장이 했다.

부산대는 총학생회와 함께한 응원문구 공모전을 통해 '개교 73주년 기념'으로 73명에게 야구장 간 식을 제공하고, 기념티셔츠를 제작해 야구장 현 장에서 나눠주는 등 축제 분위기를 더했다.

10,000 members of PNU Celebrated the University's 73rd Anniversary at a Cheering Event for Lotte Giants

Pusan National University (PNU) held "the 2019 Hyowon Hanmadang: PNU-Lotte Giants Match Day" to celebrate its 73rd foundation anniversary. This event promoted member unity and the win-win development of PNU and the city Busan for the second time following the last year.

The cheering event for the professional baseball club Lotte Giants based in Busan was held at the May 14th KBO League game between the Lotte Giants and LG Twins at Sajik Baseball Stadium, Busan. Members of PNU filled 10,000 seats. This was twice the attendance of the event last year. PNU members had the chance to communicate with the public at this venue.

"PNU will achieve more development and growth with the cumulative enthusiasm and

effort of 73 years, and the constant interest and love of the citizens," said Chun Hohwan, president of PNU. "PNU will play a role in the mission to ensure that universities in the southeastern region– Busan, Ulsan, and Gyeongsang Province –become another regional base corresponding to the metropolitan area and a hub for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Prior to the game, 45 members of the PNU Choir and 5 members of the PNU Hyowon Rainbow Orchestra, which operates as a multicultural family mentoring program, created beautiful harmonies by singing the national anthem. The 1st ceremonial pitch was thrown by the president of PNU, and the 1st atbat by Cho Hansoo, student council leader of PNU.

The university added to the festive atmosphere by offering free snacks to 73 fans selected in a cheering competition held by the Student Union to commemorate its 73rd anniversary. Also, participants were given commemorative red T-shirts at the venue.









SCHOLARSHIPS BY UNIVERSITY PNU 장학제도, 현황소개

등록금 반값, 10명 중 8명 장학생 입학우수 4년 등록금 면제 학업장려금 지원

부산대학교는 2009년 이후 11년째 등록금을 동결해 오고 있다. 2019년 현재 부산대 등록금 은 평균 218만 원으로, 400만 원을 상회하는 서울 사립대 등록금의 절반 수준이다.

지난해 학생 장학금 수혜율은 82%로, 10명 중 8명이 장학금을 받았다. 연간 재학생 1인당 장학금액은 281만 원을 넘어섰다.

등록금재원 장학금, 국가장학금과 더불어 장학 법인·동문회 등 외부장학금과 삼성복지재단 등 130여 개 재단장학금이 마련돼 있다.

등록금재원 장학금은 입학성적우수특별장학 금, 성적우수장학금, 학업지원자학금, 근로봉사 장학금, 형제자매장학금 등이 있다. 이 중 부산 대의 대표적인 신입생 입학성적 장학금인 'Premier 장학금'은 수능성적 우수 학생들을 대상으 로 매 학기 등록금 전액을 면제해 주고, 학업장 려금 300만 원을 지원하는 큰 혜택이 있다. 대 학생활원(기숙사) 우선 배정, 해외 장·단기 파 견, 해외봉사·체험프로그램 선발 시 우대 혜택 도 받을 수 있다. 학부과정을 마치고 일반대학 원에 진학할 경우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또 부산대는 (재)부산대학교발전기금을 운영 하며 남안장학금 등 46개 장학금과 기부자가 지정한 학과의 재학생을 지원하는 기관지정목 적장학금 등 다양한 장학제도를 갖추고, 개인 별 특성과 상황에 맞는 장학혜택을 제공하고 자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PNU Tuition Fees are Half of Private Colleges, Offers Scholarships for 8 out of 10 Students, Waives 4-year Tuition for Excellent New Comers, and Offers Academic Subsidies to Those in Need

Since 2009, PNU has had an 11-year freeze on tuition fees. As of 2019, PNU tuition fees average cost is 2.18 million Korean won. This is half of Seoul private college tuition fees which typically exceed 4 million won.

Last year, the scholarship beneficiary rate was 82 percent, so more than eight out of ten students received scholarships. The annual average amount exceeded 2.81 million won per student.

In addition to scholarships for tuition fees and national scholarships, there are more than 130 other scholarships, including scholarships offered by the Korea Student Aid Foundation, alumni associations, and the Samsung Welfare Foundation.

Scholarship funding for tuition fees include special scholarships for excellent admission, excellent grades, academic support, working service, and students with siblings. For example, the Premier Scholarship, is offered to freshmen at PNU. This scholarship benefits recipients by exempting all tuition fees for each semester and a further 3 million won in academic incentives. They are also given priority for dormitory places, overseas short-term dispatches, and overseas service and experience programs.

PNU also runs the PNU Development Fund and has 46 scholarships, including the Naman Scholarship, and scholarships supporting students in specific departments designated by donors. PNU is making continuous efforts to improve the quality of administrative services in order to provide scholarship benefits tailored to individual characteristics and circumstances.

세계사적 소명을 실천하는 창의적 지식공동체

서울대학교

A Community of Knowledge and Creativity

Seoul National University



MAJOR NEWS SNU 주요 소식

천 명의 한 목소리, 'Sing, SNU! 천인만창' 개최

서울대학교 봄 축제의 마지막 날인 5월 2일 오 후 6시, 교수, 학생, 직원 등의 학내 구성원 1,000 여 명이 한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공동체 의 미를 되새기는 자리가 마련됐다.

관악캠퍼스 학생 잔디에는 참가자들이 보라색 반소매 옷을 맞춰 입고 중앙 무대에 오른 서울 대합창단과 교수합창단, 교직원합창단 등 10 개 단체 소속 연합합창단 200여 명과 함께 무 한궤도의 '그대에게',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 계' 등 대중가요 6곡을 합창했다.

이날 행사는 방송사 오디션프로그램인 팬텀싱 어 우승자 김현수 동문(성악과)의 사회로 해당 프로그램에 함께 출연했던 서울대 동문들이 특별 출연 했으며, 오세정 총장, 도정근 서울대 총학생회장, 조철원 서울대 교수협의회장, 박 종석 서울대노조 위원장 등 학내 단체 대표들 도 함께했다.

현장 참여가 어려운 구성원들을 위해서는 실 시간 유튜브 스트리밍 채널도 운영했으며 온 라인을 통해 관악캠퍼스 구성원뿐만 아니라 평창캠퍼스, 연건캠퍼스, 멀티캠퍼스 등에서 다양한 구성원이 참가했다.

가수 김연자의 트로트 곡 '아모르 파티'가 시작 되자 학생들이 춤을 추며 교수들도 박자에 맞 춰 어깨를 들썩이기도 했고, 마지막 곡이었던 '홀로아리랑'에서는 옆 사람과 자연스럽게 어 깨동무를 하며 연주자도 관객도 모두가 하나 가 되어 가슴 뭉클한 이색 장면을 연출하기도

'Sing, SNU! 천인만창'은 서울대 학내 구성원들 간 공동체 의식을 높이고 국가 및 사회 공동체 에 대한 헌신과 공헌의 의미를 되새기자는 취 지로 개최됐으며 이번 행사에서 조성된 후원 금과 추가 모금으로 1억 원을 마련한 뒤 서울대 글로벌사회공헌단을 통해 장애인 자립을 후원 할 계획이다.



Sing! SNU Gathers 1000 Voices

On May 2, the last day of SNU's Spring Festival, more than 1000 members of the school's faculty, staff, and student body came together to sing as one voice at "Sing! SNU." They gathered at the SNU presidential lawn for a sixsong flash mob performance. A total of 10 groups partook in the event including the University Choir, the Faculty Choir, and the Staff Choir.

Sing, SNU! was organized by SNU alumnus Kim Hyunsoo (Department of Vocal Music), a former contestant on singing competition program Phantom Singer, student council president Do Junggeun, President of the Faculty Choir Cho Chulwon (Department of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and SNU union leader Park Jongseok. Professor Kim Youngyul (College of Music) conducted the orchestral accompaniment. Those who could not make it could participate by live streaming the event on YouTube.

The songs included in the program were chosen by a survey of the SNU student body. The six songs were: "Don't You Worry" by Wild Camomile, "To You" by Shin Haechul, "Into the New World" by Girls' Generation, "We Are the Champions" by Queen, "Amor Fati" by Kim Yeon ja, and "My Arirang" by The Immortal. Participants danced to the lively trot song "Amor Fati" and put their arms around each other and swayed for "My Arirang."

Sing! SNU was held to raise the sense of community among SNU members and encourage them to reflect on the meaning of contribution to the nation and its diverse communities. Through this event, the SNU Institute for Global Social Responsibility (IGSR) raised 100 million won, which was donated to the Seoul Center for Independent Living, an organization that helps empower people with disabilities become self-sufficient.







SCHOLARSHIPS BY UNIVERSITY

SNU 장학제도, 현황소개

서울대학교 장학제도

서울대학교의 장학금은 재원을 기준으로 교내 장학금과 교외장학금으로 나누어진다. 연간 전 체 장학금액 중, 교외장학금이 차지하는 비중 이 70% 이상으로, 한정된 예산이라는 교내 장 학금의 한계점을 보완해주고 있다.

교외장학금 중 국가장학금을 제외하고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장학금은 (재)서울대학 교발전기금 장학금과 관악회 장학금이다. (재) 서울대학교발전기금 장학금이란 외부 기업, 단 체 혹은 기타 재단 등에서 서울대학교 발전기 금재단으로 기부한 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장학 금이다. 한 부모 가정, 외국인, 특정 전공자와 같 이 상세한 조건을 제시한 장학금, 서울대에 전 적으로 위임하는 장학금 등 사회 각계각층에서 학생들의 학업을 응원하는 같은 마음으로 다양 한 형태의 기부로 이루어지고 있다.

서울대학교발전기금 장학금 중 가장 대표적인 장학금은 '선한인재 장학금'이다. 선한인재 장 학금은 저소득층 학생들(가계소득 1분위 이하) 에게 매월 생활비 30만 원을 지원하는 장학금 이다. 한해 26억 원 가량이 학생들에게 지급되 고 있으며 등록금 면제가 대부분인 장학금 유 형 중에 가장 특별하고, 의미가 있는 장학금이 라할수있다.

관악회 장학금은 서울대 총동창회에서 지원하 는 장학금으로 동문들이 후배들을 생각하는 따 뜻한 마음으로 기부를 하고 있어 의미가 있는 장학금이다. 주위의 도움으로 어렵지만 학업을 무사히 마친 선배들이 본인의 젊은 시절을 되 돌아보며 지원이 필요한 후배들에게 응원을 보 내주는 '나눔의 선순환'이 되는 장학금이다. 관 악회 장학금에도 '결연장학금'은 경제적으로 어 려운 학생들에게 매달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어

등록금 면제와 같은 일시적인 장학금에서 한 발짝 더 나가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보조해 주고 있다.

서울대의 장학금은 약 2만 7,000명의 서울대 학생들에게는 성장의 원동력이 되고, 가정에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우리 사회가 건강 한 발전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밑거름이 되 고 있다.

SNU (Seoul National University) Scholarship

SNU scholarships are divided into internal and external scholarships based on the source of the funding. External scholarships account for more than 70% of the total scholarships awarded annually, supplementing the limited budget of internal scholarships.

Excluding national scholarships, the SNU Development Fund scholarship and Gwanak Club scholarship account for the greatest percentage of external scholarships.

The SNU Development Fund consists of funds donated by companies, organizations, and other foundations. These scholarships are offered to a wide range of students, such as students from

single-parent families, foreign students, and students majoring in specific areas.

Scholarship for Outstanding Talent is the most common type of scholarship offered through the SNU Development Fund. The Scholarship for Outstanding Talent supports 300,000 won per month for low-income students (below the first level of household income), and approximately 2.6 billion won is awarded annually. This sets the Scholarship for Outstanding Talent apart from other scholarship types, most of which only offer tuition waivers.

The Gwanak Club Scholarship is supported by the SNU Alumni Association. This scholarship holds special meaning for the SNU community because it consists of donations from SNU alumni. It creates a "virtuous circle of sharing" alumni offer support to their juniors in need of assistance.

In addition to the Gwanak Club Scholarship the "Sisterhood Scholarship" helps economically disadvantaged students to continue their studies by supporting them beyond their tuition fees by providing monthly living expenses.

The SNU scholarships serve as an engine for growth for 27,000 SNU students and contribute to the healthy development of the Korean society by reducing the economic burden of the families of SNU students.

학사과정 장학금 UNDERGRADUATE



록금면제장학금 Tuition-waiver scholarships

nal merit and North Korean defectors), etc

등록금 외 장학금 Non-tuition-waiver scholarships

근로장학금 / 선한인재장학금 (학업장려금) / 해외수학장학금 cholarship for Working Students / Scholarship for Outstanding Tal it (support for studies) / Scholarship for Students Studying Abroad

국가장학금 National scholarships

가우수, 국가장학1,11유형, 정부 지자체, 국가근로 cholarship Type I and II,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Scholship. National Scholarship for Working Students

사설 및 기타 Organizations

반악회, 발전기금, 단과대 자체, 장학단체 Awanak Club, Development Fund, College Scholarship, etc

석·박사과정 장학금 MASTER'S AND DOCTORAL



록금면제장학금 Tuition-waiver scholarships

우등, 강의연구지원, 맞춤형장학, 유학생, 핵심TA shin for Academic Excellence, Scholarshin for Lectur

등록금 외 장학금 Non-tuition-waiver scholarships 로장학금 / 강의연구지원(월정) / BK장학금

nolarship for Working Students / Scholarship for Lecture and Rearch Support (monthly fixed) / BK Scholarship

우수.정부·지자체.국가근로

ional Scholarship for Outstanding Performers. Central and cal Government Scholarship, National Scholarship for Working

사설 및 기타 Organizations

막회, 발전기금, 단과대 자체, 장학단체 anak Club, Development Fund, College Scholarship, etc.

긍지와 희망, 진리로 행복한 세상을 밝힌다 **전남대학교**

Pride & Hope, Cherish the Truth, Enlighten the World

Chonnam National University



MAJOR NEWS

CNU 주요 소식

기념홀 개관 2題 최후의 5.18시민군 윤상원 열사 반독재 민주화운동 김남주 시인

전남대학교에 민주열사 윤상원과 저항시인 김 남주를 기리는 기념홀이 지난 5월 2일과 3일에 잇따라 문을 열었다.

윤상원 열사는 1978년 전남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주택은행에 근무하던 중 전남대 교 육지표 사건에 대한 소식을 듣고 광주로 내려 와 노동운동과 들불야학 강학으로 활동했다.

1980년 5.18 당시에는 지하신문인 '투사회보' 를 제작·배포하고, 항쟁지도부 대변인을 맡아 외신기자들에게 광주의 참상을 알리며 전남도 청에서 마지막까지 항전하다 계엄군에 의해 사 망했다.

윤상원 열시와 들불이학 동료였던 박기순 열사 간의 영혼결혼식에서 불린 노래가 그 유명한 '임을 위한 행진곡'이다.

김남주 시인은 1969년 전남대 영문학과에 입학했으나, 1972년 반유신투쟁 지하신문(유인물) 「함성」과 「고발」을 제작·배포하다 구속과함께 제적당한 뒤 '창작과 비평'을 통해 시인으로 등단했다.

1979년 남민전 사건으로 15년형을 선고받아 수 감 중에도 종이가 없어 화장지에 '바람에 지는 풀잎으로 오월을 노래하지 말아라」라는 시를 쓰고, 펜이 없어 칫솔을 갈아 우유갑 안쪽면에 꾹꾹 눌러 쓴 '다산이여 다산이여」 등 의 육필 원고를 남긴 것으로 유명하다.

Two Memorial Halls Open at CNU - one for Yoon Sangwon, a Martyr of the May 18 Democracy movement; and the other for Kim Namju, the anti-dictatorship, prodemocracy poet

On May 2nd and 3rd, two commemoration halls were opened on the CNU campus to honor two historical figures of CNU: Yoon Sangwon, a Martyr for democracy; and Kim Namju, a poet of the resistance movement for democracy.

Yoon graduated from the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and International Relations at CNU in 1978. While working for the Housing & Commercial Bank in Seoul, he received news of the 'Our Aims of Education', an antidictatorship movement organized by several professors at CNU. He quit his job at the bank and came back to Gwangju to join the labor movement. He joined the Deulbul Night School for workers as a teacher.

During the May 18 Democratization

Movement, he published and distributed the
"Journal of Resistance". He also communicated
with foreign correspondents to spread the truth
about the Uprising in Gwangju as the
spokesperson for the Gwangju citizen army. He
fought against the martial law forces until the
last day of the Uprising and was shot dead at
the former Jeonnam Province Hall.

The song, synonymous with the Uprising, "March for the Beloved" was written for Yoon's "spiritual wedding" to Park Gisun, a labor





Kim Namiu

Yoon Sangwon

activist and fellow teacher at the Deulbul Night School.

Poet Kim entered the Department of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of CNU in 1969, but was expelled as he was arrested for publishing and distributing 'subversive' anti-martial law journals, entitled "Outcry" and "Accusation." Later, he made his debut as a poet in the publication 'Chang-bi'.

In 1979, he was sentenced to 15 years in prison for his involvement in 'Namminjeon' and during his imprisonment, he penned poems such as "Do not Sing for the May with Leaves that Shed before the Wind". He inscribed this famous poem on toilet paper. He wrote "Ode to Dasan" on a milk carton with a sharpened tooth brush.







SCHOLARSHIPS BY UNIVERSITY

CNU 장학제도, 현황소개

아낌없이 나누는 장학 혜택

전남대학교는 학생들이 학업에 충실해 자신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고 있다. 전남대는 지난해 기부금을 포함한 교내외 장학금 600여억 원을 전체 학생의 80%에 달하는 1만 9,000여 명에게 평균 250여만 원씩 지급했다.

특히 지난해 10월부터는 학생들의 생활비 지원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생활지원형 장학금' 제도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이 장학금은 수혜 대상을 넓히면서도, 성적을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심층면접을 통해 선발해 학업수행과 생활비 조달이란 '이중고'에 시달리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 '열정', '동행', '도전'의세유형으로 나눠 한 학기 당 12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열정' 장학금은 교내 부속기관과 생활협동조 합 등에서 일하며 공부하는 학생에게 120만 원 까지 지급하는 장학금이다. 특히 생활협동조합 은 재학생을 우선하되 졸업 유보생까지 선발하 여, 취업 준비를 위해 졸업을 유보한 학생의 안 정된 생활을 조금이라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 었다.

'동행' 장학금은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개척 하고자 하는 저소득층 학생에게 180만 원을 지 원하는 장학금이다.

'도전' 장학금은 소득분위와 상관없이 모든 재학생을 대상으로 미래에 대한 도전정신을 고려해 최소 180만 원을 지원한다.

Various Scholarship Benefits

CNU has dedicated funds for its students to focus on their studies and to fulfill their dreams. For instance, CNU provided 19,000 students, or 80 % of the total number of students with scholarships of 2.5 million KRW on average in 2018. This was made possible by 60 billion KRW from donations and on/off campus scholarship funds.

CNU also introduced the 'Life Support Scholarship' in October 2018 to provide practical support to cover students' living expenses. This is a non-merit-based scholarship that expands the number of assessed criteria and selects beneficiary students through in-depth interviews, not solely on their academic performances in order to relieve the students of the 'double burden' of balancing studies and part-time jobs. The scholarship grants 1.2 to 2 million

KRW per semester to students who are selected for three types: 'Passion,' 'Companion,' and 'Challenge.'

The 'Passion Scholarship' provides a maximum of 1.2 million KRW per semester for those who work for university institutes and the CNU Coop. Especially, the CNU Coop selects recipients from CNU students including those who chose to delay graduation for career preparation so as to help them to have a regular, stable source of income.

The 'Companion Scholarship' grants 1.8 million KRW to students from low-income backgrounds, to support them as they strive to gain independent lives.

The 'Challenge Scholarship' provides a minimum of 18 million KRW to students who demonstrate the spirit of challenge and prepare for the future regardless of their financial conditions.



알찬 대학, 따뜻한 동행

전북대학교

The Best Glocal University

Chonbuk National University



MAJOR NEWS

CBNU 주요 소식

학생 손으로 키운 모종 나눔 '지역민 호응'

HRC 학생들 손수 재배한 모종 6만 본 무료 나눔

5월 15일 오후 전북대학교에는 모종을 나누는 학생들과 이를 받아가는 지역민들의 화기애애 한 웃음꽃이 가득했다. 전북대 우수 학생 기숙 형대학(Honors Residential College, HRC) 프로 그램 참여 학생들이 지난 수개월 동안 재배한 채소와 화훼 모종 6만 본을 나누는 행사가 열 렸기 때문이다.

이날 나눈 모종들은 전북대가 학생들에게 도전 정신을 키울 수 있도록 도입한 우수학생 기숙 형 대학 프로그램 중 에코플로어 활동 학생들 이 비교과 영역의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재배 한 것이다. 고추와 가지, 비트, 신선초, 케일, 방 울토마토 등의 채소와 화훼인 공작초 등 다양 했다.

학생들은 1학기 시작과 함께 식물자원을 통한 바른 인성을 함양하고, 건강한 생활을 도모하 기 위해 박병모 교수(생명자원융합학과)의 지 도를 받아 다양한 모종을 재배해왔고, 그 성과 의 기쁨을 지역민과 나누기 위해 나눔 행사를 열었다. 행사장에는 500여 명의 구성원과 지 역민들이 참여해 시작 전부터 긴 줄이 생길 정 도로 큰 호응이 있었다.

정기석 학생(생물산업기계공학과 2년)은 "HRC에코플로어 활동을 통해 파종부터 새싹이 자라나는 모습을 볼 수 있어 즐거움을 느꼈다"며 "학생들이 직접 재배한 모종을 지역사회에 뜻깊은목적으로 나눌 수 있어 기쁘다"고 밝혔다.

CBNU Students Share Seedlings with Residents HRC students distributes 60,000 seedlings to local society

On the afternoon of May 15, CBNU campus was full of gratifying laughs among the students sharing the seedlings and the people who took them. The students in 'Honors Residential College (HRC) Eco Floor Program' distributed 60,000

varieties of vegetables and flower seedlings cultivated over the past several months.

With the start of the first semester, the students have cultivated various seedlings such as red-pepper, eggplant, beet, kale, cherry tomatoes and flowers, under the guidance of Professor Park Byungmo in the Department of Bio Science & Rural Resources. It was an activity to foster the right personality of students and to help raise their challenge spirits through the experiential program of the comparative area in HRC program.

The giveaway event was to share the joy of young citizens' achievements with the local society. About 500 people including students and local residents participated, and there was such a big response and a long line even before it started.

"We found it enjoyable to see the plants growing from seed through HRC Eco Floor activities," said Jeong Kiseok, a student in the Department of BioIndustrial Machinery Engineering. "I'm happy to share the seedlings raised by ourselves for a meaningful purpose in the community."











SCHOLARSHIPS BY UNIVERSITY

CBNU 장학제도, 현황소개

학생 도전역량 키우는 특별한 장학금 결과보단 노력 지원하는 '도전역량 장학금'

전북대학교에는 다른 대학에선 찾아보기 힘든 장학금이 있다. 단순히 성적이 좋다고 주는 것 이 아니라 스스로 도전하고 싶은 분야를 실제 해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도전역량강화 장학 금'이다.

이 장학제도는 2017년 시작됐다. 지원 대상도 학기 당 400명 정도 된다. 스스로 설계한 도전 활동을 대학에 제시하면 1인당 100만 원의 장 학금을 준다. 특수목적으로 이렇게 많은 학생들 에게 동시에 지원되는 장학금은 매우 드물다. 올 3월 전북대는 이번 학기 장학금 수혜 학생을 선발했다. 1학기에만 384명이 장학금을 받았 다. 이 장학금으로 학생들은 자신이 원하는 공 모전을 준비하기도 하고, 해외 활동이나 극한 체험, 연구, 서적 출판 등 다양한 활동을 한다. 8 월이면 결과 발표회를 통해 다양한 활동 등을 공유해 학생들의 도전활동을 확산시키기도 한 다. 대학이 학생들이 스스로 꿈을 설정할 수 있 도록 하고, 구체적으로 이행하는 발걸음에 대 학이 힘을 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특히 실비 형태의 지원이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활동에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이 밖에도 전북대는 매년 10월 개교기념일 즈 음에 대학이 설정한 도전과 소통, 창의 인성, 실 무, 문화 등 6대 핵심역량 분야에서 다양한 활 동을 한 학생에게도 장학금을 준다.



CBNU's Special Scholarship to Boost Student's Challenge 'Challenge Boost Scholarship' values efforts over results

CBNU has a unique scholarship which is hard to find in other universities. It is the 'Challenge Boost Scholarship' not for the students with good grade but for those who want to challenge some area themselves.

Since 2017, around 400 students have benefited from this scholarship per semester. It is also very rare for a special-purpose scholarship to be offered to such a big number of students. Each of the successful candidates is given one million won for presenting their self-designed challenge to the university, and share experiences afterwards.

In March this year, CBNU selected 384 students to receive scholarships this semester. With the scholarship, students prepare for the contests they want, or perform various activities such as overseas field trips, extreme

experiences, research and book publishing. In August, they will promote other students' challenging activities by sharing their experiences through presentation of results.

In this way, CBNU helps students to set their dreams on their own, by empowering them to take concrete steps to implement goals. In particular, since the support is in the form of real money, it also has the advantage of being able to use it freely for activities that one wants

In addition, CBNU grants scholarships to students who engaged in various activities in 'the Six Key Competences' such as challenge, communication, creativity, personality, practicality and culture to celebrate the university's opening anniversary in October every year





총장 김수갑 President Kim Sukab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충대로 1

Chungdae-ro 1, Seowon-Gu, Cheongju, Chungbuk 28644, Korea

- 1951년 초급농과대학으로 시작, 2018년 신수도권 중심대학으로 도약 원년
- 2014~2018 학생만족도 1위(NCSI 조사), 세종국가정책대학원 설립 운영
- 조화, 품격, 미래를 바탕으로 함께 여는 역동적 미래를 그리는 충북대학교
- · Beginning as a junior agriculture college in 1951, CBNU has leapt to its current status as a major university in the new capital area
- Standing as the No. 1 university in Student Satisfaction (NCSI Survey), from 2014 to 2018, CBNU has established and ran the Sejong Graduate School of
- ·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draws a Dynamic future based on the three core values of Harmony, Dignity and Future



총장 김동원 President Kim Dongwon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567 Baekje-daero, deokjin-gu, Jeonju-si, Jeollabuk-do 54896 Korea

- 1947년 인가된 도립 이리농과대학과 전주 명륜대학, 군산대학관을 모태로 개교
- 모험인재, 한국적 캠퍼스, 둘레길, 월드클래스 학문 분야 등 4대 브랜드 육성
- 가장 잘 가르치는 대학… 2012, 2015, 2017년 학생 서비스 만족도 전국 1위
- · Founded as Iri Provincial College of Agriculture (1947), consolidated with Myeongnyun College (Jeonju) and Gunsan College (1952)
- · Nurturing adventurous students, creating the most Korean-styled campus, sharing campus trail with local society, supporting world-class research (4 objectives)
- Selected as the best university for student service satisfaction by KS-SQI (2012, 2015, 2017)



총장 송석언 President Song Seokeon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Jeju National University, 102 Jejudaehak-ro, Jeju-si,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63243, Korea

- 1952년 도립 초급대학으로 시작, 도립 제주대학 승격 후 국립대학 이관
- 2008년 제주교육대학교 통합,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국제 교육기관 발돋움
- 경쟁력 있는 지식창출로 국가발전 선도
- In 1952, Jeju Provincial Junior College was founded. It became the four-year Jeju Provincial College in 1955 and designated as a National University in 1962
- Merged with the Je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in 2008. Become a world-class university alongside Jeju, a free international city
- · Leading national development with competitive knowledge creation



총장 오세정 President Oh Sejung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1 Gwanak-ro, Gwanak-gu, Seoul 08826 Korea

- 1946년 9개 단과대학과 1개 대학원을 갖춘 국내 최초의 종합 국립대학교로 출범
- 1975년 관악캠퍼스 설립으로 캠퍼스 종합화 달성
- 교육과 연구를 통해 대한민국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선도
- Established as the first national university with 9 Colleges and 1 Graduate
- · Centralized dispersed campuses in Gwanak
- · Played central role in economic development and democratization of Korea



- Established through the rice donation campaign by every resident in
- 1952 in Daedeok Science Town • The goal is to be the leading university of Korea spreading toward the world together with the residents
- · Construction of Sejong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started. The campus will be constructed in Sejong Special Self-Governing City



in southwestern region of Korea · CNU has led the development of Korean democracy, safeguarding the nation's freedom, peace, democracy, and human rights • CNU recently promulgated and announced 'Agenda 2021' with the goal of

leading innovative convergence with a focus on creativity in education.

• Since its foundation in 1952 upon the desire of the local citizens for higher education, CNU has become the top flagship national university 전라북도 경상남도

충청북도

청주

충청남도

전라남도

제주도

강원도

춘천



총장 김헌영 President Kim Heonyoung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길 1

1 Kangwondaehak-gil, Chuncheon-si, Gangwon-do, 24341 Korea

- 1947년 춘천농업대학 출범, '실사구시(實事求是)'의 건학 이념
- 춘천·삼척·도계 3곳의 멀티캠퍼스 체제 구축
- 거점 국립대 취업률 1위(2018년 1월 정보공시 기준)
- Established Chuncheon Agricultural College in 1947, with the founding spirit of the quest for truth based on practical science
- Integrated three campuses in Chuncheon, Samcheok and Dogye into a multi-campus system
- · Achieved No.1 employment rate among local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 (Based on the information notice in January 2018)



총장 김상동 President Kim Sangdong

대구광역시 북구 대학로 80

경상북도

80 Daehakro, Bukgu, Daegu 41566 Korea

- 1946년 9월 국립대학 승격(대구사범대학, 대구의과대학, 대구농과대학)
- '진리·긍지·봉사' 교시로 글로벌창의인재 '첨성인(瞻星人)' 양성
- QS 세계 대학 취업능력 랭킹 국내 6위
- Upgraded to National College in September 1946 (comprised of the Colleges of Education, Medicine, and Agriculture)
- · KNU established the concept of the talented, globally creative student, or 'Cheomseong-in' (瞻星人), under KNU's Educational philosophy of 'Truth, Pride, Service'
- KNU ranks 6th in Korea in the QS World University Employability Rankings



총장 전호환 President Chun Hohwan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로63번길 2

2, Busandaehak-ro 63beon-gil, Geumjeong-gu, Busan, 46241, Korea

- 1946년 5월 15일 국내 최초 종합 국립대학으로 출범
- 진리·자유·봉사의 건학 이념,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 6개 학문분야 QS평가 세계 101-200위권, 융합과 통섭형 엘리트교육
- The nation's first comprehensive national university, established on May 15th, 1946 • Guided by the university's founding values of truth-freedom-service to become a
- global research-oriented university
- Six departments are ranked in the top 101~200th by the QS World University Rankings. Elite education through the fusion and convergence of disciplines



총장 이상경 President Lee Sanggyeong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대로 501

501, Jinju-daero, Jinju, Gyeongnam, 52828 Korea

- 1948년 경남 도립 진주농과대학 개교, 1972년 '경상대학'으로 교명 변경
- 식물생명과학, 항공기계시스템, 나노·신소재 분야 국내 최고 경쟁력
- 중국 상하이자이퉁대학 발표 '세계대학 학술순위' 국내 11위(2018)
- Founded in 1948 as Jinju Agricultural College, it was accredited as a national university and renamed as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in 1972
- GNU has been recognized as one of the top-tier universities in three academic fields in Korea such as life science, aerospace and mechanical systems, and nano and advanced materials
- · According to the 2018 Academic Ranking of World Universities(ARWU), GNU was ranked within the 11 top universities in Korea

